



김용태 약사

전세계 오줌요법 경험자들이 밝히는 기적같은 효과

URINE THERAPY 오줌요법



당뇨·암·비만을 고친 사람들

약사 김용태 지음

오줌만큼 좋은 약은 없다
난·불치병을 고친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수기

건강신문사

- 김용태 약사는 부산대 약대를 졸업 후 부산에서 김용태약국(051-442-5691~2)을 운영해 오면서 30여년간 난·불치병 치료법에 몰두하고 있는 성서요법 전문가이다.
-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정필도의 인수집사로, 전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 대한 활인 약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시신기증 부산지역 제1호로 자신의 신체장기를 모두 기증하였으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본부 창립하고, 초대 본부장을 역임. 현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본부 명예 본부장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꾼이기도 하다.
- 기독교보, 크리스천 타임, 기독교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지에 건강칼럼을 연재했으며 저서로 '성서요법 암·당뇨·비만을 고친 사람들', '오줌요법 당뇨·암·비만을 고친 사람들', 피부미용의 지침서인 '약과 미용' 등이 있다.
- 99년 5월 독일에서 열린 제2차 세계요법대회에 한국대표로 초빙되어 요단식 자연요법으로 환자들을 고친 사례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 '불치병은 없다'라는 주제로 10일간(2000년 5월 5일~14일) 미국 LA소재 K-TAN TV방송국을 비롯한 미주 8개 TV라디오 방송-언론사 초청으로 건강세미나 강연차 도미한 바 있다.
- 2004년 5월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요료학술대회에 한국대표로 초빙되어 말기 암 환자들을 고친 사례들을 발표하여 큰 반응을 얻었다.
- MBN TV '한밤스페셜' 고정 출연, 건강 강의를 하였으며 53회 방영되었다. CTS '크리스천 파워'에 출연, 김용태 약사의 신앙, 일, 봉사활동 등 생활 전반이 40분간 방영되었다.
- 글로벌 전인치유 神大院 교수

오즘요법

당뇨, 암, 비만을 고친 사람들

김 용 태 지음

건 강 신 문 사

차 례

추천사 / 왜 오줌인가-3

책을 내면서 / 오줌만큼 좋은 약은 없다-9

1부 오줌은 깨끗하다-16

2장 오줌요법의 의학적 검증-20

-왜 치료효과가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가

3장 오줌요법의 역사-26

2부 오줌을 똑바로 알아라-28 4부 오줌요법의 현황-111

1장 오줌의 주요성분-28

-성분분석표

2장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35

3장 오줌을 이용한 의약품-36

3부 오줌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38

1장 오줌요법으로 치유되는 질병-38

2장 오줌요법을 거부감 없이 실천하는 방법-57

3장 오줌요법으로 난,불치병을 고친 사람들-59

(1)신광수씨의 오줌요법 체험담

(2)국내사례 : 종합

(3)외국사례 : 종합

4부 오줌요법의 현황-111

(1장)재난 극복을 위한 오줌요법-111

(2장)국내의 오줌요법 단체-112

(3장)세계 오줌요법 학술대회-113

부록

오줌요법의 신과학적 이해 (생체정보이론)-114

추천사



윤승천(尹承天)

건강신문,건강가이드,한국의 침단의술

의료평론가,발행인,사장,시인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윤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목숨과 건강에 관한 놀라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윤도 없고 복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독자라면 이 책을 그냥 덮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을 계속 읽다 보면 결코 윤이 없거나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설이지만, 오줌의 그 놀랍고 기적 같은 효과 때문에 오줌으로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건강법이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이나 됐음에도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의료계(의사, 약사, 한의사)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혐오스럽고 더러운 민간요법으로 도외시되고 있다. 나는 오줌요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알고 나서부터는 처음과는 달리 오줌요법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기적 같은 효과와 안전성에 흥분돼 마치 큰 돈벌이라도 되는 양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권유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내가 먼저 남들에게 말하거나 권하지 않는다. 상대방에서 내 신분을 알고 물어오더라도 기회가 되면 오줌요법에 관한 책이나 한번 읽어보라고 조언해 줄뿐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오줌요법에 대해 말하거나 오줌을 마신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오줌요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더럽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나는 만 10년째 건강신문사 사장이며 건강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건강신문, '건강가이드', '한국의 침단의술'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발행·편집인이자 중앙일보사 '문예중앙'의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한, 한국문단에서 공인 받은 시인이며, 의료평론가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첨단의술과 의·약·한방과 의료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또한 어떻게 명의, 명약사가 되고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이 절대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18년째 의료관련 일선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이기도 하다. 내가 이처럼 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내가 오줌을 마시고 또 눈과 코에 넣기도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국내외 최첨단의술과 의료현장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분야에 몸 담고 일한 1984년 이후의 침단의술과 의료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통하게 파악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드문 현직사장이면서 기자인 사람이다. 생각이 앞서가는 독자라면 이쯤 해서 이 책을 덮을지도 모른다.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밝히겠다. 나는 1999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줌을 마시기도 하고 눈과 코에

넣기도 하고 오줌으로 양치질을 하기도 한다. 가끔은 두피와 얼굴을 마사지하기도 한다. 물론 그 놀랍고 기적 같은, 불가사의한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줌요법이 제도권 의료계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거듭 지적하지만 놀랍고 기적 같은, 불가사의한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줌요법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 건강에 관한 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현재의 의료시스템과 제약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약사·한의사 등 의료인들에게도 지금의 의약분업제도 후유증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의료 제도, 제약산업, 의료인들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제약회사나 병·의원, 의사가 많지 않아도 되며 약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일이 없어진다. 약이 사실상 '독'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제도권 의료인들이 난치·불치라고 명명하는 각종 성인병 등을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면서 치료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내가 오줌요법을 알고 난 뒤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왜 이처럼 기적 같은 요법에 대해 국가나 제도권 의료계 또는 제약계가 나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결코 나설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 제약산업, 의료인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의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자체가 뒤흔들리는 혁명적인 일에 앞장서 나설 리가 만무한 것이다. 제로 오줌요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년씩 병·의원엘 가지 않으며 약도 거의 먹지 않는다. 나도 오줌요법과 자연요법(자연의학)을 알면서부터 지난 2년간 치과에 몇 번 다녀온 것 외에는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다. 물론 감기약도 한번 안 먹었다. 감기 정도는 오줌과 생수, 운동 등으로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다. 나 자신이 오줌요법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지만, 오줌의 성분과 오줌요법의 약리기전, 효능과 부작용, 안전성 등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실험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난 후부터는 나 또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부 개인 지식인이나 의료인, 종교인들이 선각자적인 정신으로 실천하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오줌요법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불가사의한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01년 4월 2일 현재 제도권의료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검증이니 임상이니 의학적 인정이니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없다. 그러나 오줌의 성분과 효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의학·제약계가 인정하면서 꾸준히 활용해 왔다. 오줌에서 추출한 항암제, 혈전용해제, 살균제, 각종 피부연고제 등은 이미 훌륭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 초, 오줌요법으로 암·당뇨·비만 등 불·난치병을 많이 고친 김용태 약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5월쯤 바람 쐬러 독일이나 한번 다녀오자는 것이었다. 그에게 굳이 독일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니, 오줌요법에 관한 세계학술대회가 독일의 한 휴양지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까짓 오줌요법에 무슨 세계학술대회인가, 하면서 건성으로 지나쳤다. 며칠 뒤에 김 약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나는

독일의 휴양지라는 곳에 더 흥미가 끌려 휴양지나 한 번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물론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도 둘러볼 생각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최첨단의술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오줌요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결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생각했었다. 병이 깊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는 구역질 나는 민간요법쯤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기자 일을 겸하다 보니 오줌요법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으나 신문에 다루거나 취재를 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마을 게스펠더는 인간의 주거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조그마한, 그러나 동화 속이나 나폴레옹의 그림 같은 전원 소읍이었다. 세계오줌요법 학술대회가 열린 5일 동안 나는 김용태 약사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함께 갔으니 방을 같이 쓰는 것이 당연했지만 김 약사가 오줌을 마신다는 사실이 더럽고 혐오스러워 함께 있는 내내 불편했다. 구역질이 나는 것 같았고 사람 자체가 추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독일행 비행기안에서도 나를 제외한 일행들은 수시로 종이컵을 들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오줌을 받아 마셨다. 장시간(약18시간)비행에서 오는 피로와 낮과 밤이 바뀌는 시차로 인한 불면증을 오줌 몇 잔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나는 별난 사람들의 기행쯤으로 생각하며 기자 입장에서 언젠가 이 들의 모습을 증언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호텔방 안에서 김 약사는 오줌요법에 여전히 극도의 거부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는 나를 의식해서인지 별다른 강요나 설득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욕실에 있는 컵도 내가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 혹시나 김 약사가 오줌을 받아 마시던 컵을 내가 사용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 였다. 이튿날부터 시작된 세계 오줌요법 학술대회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오줌요법신봉자들의 모습도 놀라웠고 그렇게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원의 돈을 들여가며 오줌요법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나는 내 편견과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모습도 상세하게 기록할 생각이다) 그러나 오줌요법은 물론 오줌 자체에도 여전히 관심이 없었던 터라 학술대회 행사에는 참석하는 등 마는 등 건성이었다. 내 관심사는 아름다운 전원휴양마을인 게스펠더와 독일의 의료제도 및 의료시스템에 있었다. 김용태 약사는 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오줌을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이것저것 구입하더니만 이튿날부터는 오줌을 코에도 넣고(코킹) 귀와 눈에 넣기도 하면서 점점 더 오줌요법 신봉자가 됐다. 다른 일행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지에서 합류한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과 강국희 교수도 열렬한 오줌요법 신봉자였다. 강 교수는 일본 동경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당시 극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나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증언할 생각이다.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었다)

독일에서의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는 날 곧바로 동네에 있는 동신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해서 8시쯤 응급실로 감). 그 당시 한두 달을 전후해 10번 이상을 응급실로 실려갔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었다. 원인불명의 극심한 피로감과 금방이라도 쓰러지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의 불면증,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두통이 당시의 내 증상이었다. 눈은 썩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다. 몸무게도 60kg정도까지 줄어들었다. (현재 72~73kg) 어느 날은 7시쯤 동네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9시쯤 집으로 왔다가 다시 증세가 나타나 급기야 밤 11시쯤 119 구급대에 실려가 연세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원인불명이었다. 명색이 건강신문사 사장이라면서 자신의 건강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그때 이미 몇 년째 명약국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도미당 약국의 약을 습관적으로 거의 매일 먹고 있었으며, 환자가 미어터지는(의원인데도 보통 1~2시간 기다려야 된다)은평구 응암동 김혜옥 내과에도 자주 들락거렸다. 피검사, 초음파, 위내시경, 소변검사, 기타 임상병리검사 등을 했지만 여전히 원인불명이었다. 최저 혈압이 40을 간신히 넘고 맥박도 겨우 40회를 넘기는데도 모두들 신경성이라고 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과로하지 말라고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생활, 그것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응급실에서 링겔(포도당 5~10%) 한 병을 맞으며 한잠 자고 나면 불안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은 사라졌다. 이따금 포도당 외에 진정제를 함께 맞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장항문병 전문이라는 '대항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하고 갑상선 질환일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갑상선 질환의 최고 전문가라는 이종석 내과에 가서 갑상선 정밀검사를 받기도 했다. 또 심장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 연세의료원 심혈관센터에서 24시간 심장을 체크하는 심장정밀검사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인을 알 수가 없었으며 증상에 차도가 없었다. 견디다 못해 문단의 선배이기도 한 남서울병원의 신승철 원장(정신과전문의)에게 부탁해 공황장애 증상의 약을 먹기 시작했다. 6개월에서 1~2년 정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1개월 분으로 2~3개월간 나누어 복용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을 갔었으니 무리일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극심한 만성피로 증후군과 불면증, 두통, 공포감, 쇠약감 등의 증상은 계속됐다. 그러던 중에 오즘요법연구단체인 한국 MCL연구회 김정희 회장의 소개로 한국자연건강학회 김태수 회장을 만났다. 나는 김 회장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자연요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대 생물학과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분과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또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사람이 무지해서 자연요법을 실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태수 회장은 배설을 잘 시키고 생수를 많이 마시며 오즘요법을 실천하면서 허블화이버를 복용해 보라고 권했다. 모든 비용이 한달에 1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달에 2~3만원 정도로 그 이전의 치료비나 기타

경비 등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나는 김태수 회장으로부터 그 외 다른 자연요법(나는 자연의학이라고 한다)도 여러 가지를 전수받았다. 1999년 5월 하순경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다. 워낙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정확히 오줌을 처음 마시던 시기와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줌을 마시면서 자연요법을 실천했다. 나는 철저한 침단의학(현대의학) 신봉자였지만, 침단의학으로 내 몸과 건강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줌요법과 자연의학의 실천결과는 기적 그 자체였다. 내가 시인이고 기자이지만 그 이상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나는 손발이 싸늘하도록 차서 아내로부터 수족냉증이라는 핀잔을 들어왔고, 병적으로 유독 추위를 많이 탔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족냉증이 없어졌으며, 더이상 추위를 타지도 않는다. 심지어 한겨울에 옷통을 모두 벗고 잠을 자기도 한다.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한때는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종일 나오는 소변을 모두 마신 적도 있지만 보통은 커피 반잔 정도의 양만큼 마신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한 모금만 살짝 마시기도 하는데, 오줌을 마시고 한 30분쯤 지나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온몸 (특히 손, 발)의 혈액순환이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요즘은 내가 생각해도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 매일처럼 마시지는 않지만 오줌 맛으로 몸 컨디션이나 상태를 체크한다. 오줌 맛이 거부감이 없을 때는 몸 상태도 최상이다. 그러나 오줌 맛이 쓰거나 짜면 몸이 피로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 몸도 여기저기 가렵고 찌뿌둥하다. 그럴때면 나는 나대로 피에 독소가 많이 있거나 탁해진 때문으로 해석하고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 그러면 곧 좋아진다. 가끔씩 오줌에 눈을 담그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다. 음식은 특별히 가리거나 주의하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육류나 우유는 잘 먹지 않는다. 특히 우유는 거의 먹지 않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체중을 늘리기 위해 고기와 우유를 날마다 먹는 등 무척 노력을 했었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배변에 신경쓰면서 생수와 오줌요법, 자연의학을 실천하고부터는 놀랍게도 체중이 10kg 이상 늘었다. 지금은 오히려 체중이 73kg 이상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중이 73kg 전후가 되면서 몸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이 회복된 후부터 나이는 40대이지만 육체는 몸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 있었던 스무살로 돌아간 것 같다. 20대, 3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정력적이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력에 찬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주변사람들이 예전에는 늘 만성피로에 찌들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강인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오줌요법을 알고 나서 내가 경영하는 신문사에서 오줌요법에 관한 책을 두 권이나 출간했고 이번이 세 권째이다. 자연요법(자연의학)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그동안 오줌을 마시는 대학교수, 의사, 약사, 한의사, 종교인 등 선각자적인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여러 명 만났다. 지난해 북으로 갔던 미전향 장기수중의 한 사람은 북한에 가면 오줌요법을 정책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기수 확산범으로 15년간 한국의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줌요법으로 건강관리를 했었다는

것이였다. 북한에서는 상당한 지도자급 인사였던 그는 북한의 여러 실정을 감안할 때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오줌요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실용적인 건강관리법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오줌요법에 관한 취재 차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북으로 가게 되면 나이가 70이 넘은 만큼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오줌요법을 북한에 전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줌에 관한 국내 언론의 태도도 아직까지는 편견적이다. 별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화제성이나 기행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 내가 이 처럼 장황하게 오줌요법과 내가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된 배경을 늘어놓는 것은 현대의학의 한계와 그 한계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현대의학자들 때문이다. 침단의학의 한 가운데 있던 내가 그 침단의학의 한계와 비겁함을 절감했다면 현대의학의 신봉자들은 내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난치성, 불치성 혹은 심인성, 신경성이란 말로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현혹할 것인가. 왜 원인이 없는가? 치료방법이 없는가? 자신들이 모른다고 원인불명, 치료불가라는 말로 무지와 무식을 숨기려 하고 있는가. 어떻게 침단의술이고 신치료술이 되는가. 소위 제도권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학적 검증을 받는 과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침단의술과 신치료술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실험동물이 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가. 의료인들은 왜 자신들이 악성 암에 걸리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며 자연의학에 매달리려 하는가. 난치, 불치성 성인병에 걸리면 자연의학을 찾아 헤매는가. 나는 지난 18여년간 수많은 최첨단 수술과 치료, 처치, 진단 장면을 눈으로 보아오면서 인간의 향상성 즉 자연치유력과 복원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을 기록할 것이다. 침단의술의 눈부신 발전과 그 무한한 혜택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기적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자연의학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2001년 4월 23일 윤승천

책을 내면서

오줌만큼 좋은 약은 없다

오줌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생수이다.

오줌만큼 효과가 좋고, 오줌만큼 부작용이 없고, 오줌만큼 돈이 들지 않고

오줌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은 세상에 없다.

인체는 하나님의 정수기요, 오줌은 신비한 증류수이기 때문이다.

나는 금년 나이가 64세이다.

눈이 특이하게 맑고 시력이 좋다. 그리고 피부가 곱고 부드러우며 병이 없고 몸이 건강한 편이다. 1997년도까지만 해도 모발이 없는 대머리였으며 가발을 쓰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카락이 다 자라 있을 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모발이 무섭게 나고 있다. 나에겐 돋보기가 필요없다. 치약과 크림이 없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며 발모제 없이도 머리카락이 났고, 정력제 따위가 없어도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 가르쳐 주신 오줌건강비법을 10년째 열심히 해 온 덕택이라 하겠다.

나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목욕을 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줌을 한 컵 마신다. 그리고 단골 목욕탕으로 직행한다. 냉탕, 온탕을 번갈아 들어 갔다가 거울 앞에 앉아서 오줌을 받아 양치질을 하고 필자가 고안한 아이컵(eye cup)으로 양쪽 눈을 깨끗이 씻는다. 또, 오줌으로 귓 속과 귓구멍을 소제한다. 그리고 스킨처럼 얼굴에 바르고 1회용 면도기로 깨끗이 면도를 한다. 비누칠을 하지 않아도 수염이 잘 깎일 뿐 아니라 잘못해서 면도날이 얼굴에 상처를 내면, 나는 그릇에 받아둔 오줌을 얼른 바른다. 그러면 금새 지혈이 되고 상처가 아물며, 얼굴을 오줌으로 마사지하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이마가 명경처럼 광채가 난다. 그리고 난 다음 남은 오줌으로 머리를 자꾸 축여 준다. 놀라운 것은 오줌으로 자꾸 머리를 축여주면 머리카락이 무섭게 난다는 것이다. 실로

이것은 21세기 과학의 세계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다. 오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 고기를 먹으면 비린내가 나고, 약을 먹으면 쓰며, 짜게 먹으면 짜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싱겁다. 그런데 실제로 맹물은 많이 먹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실주스나 꿀을 타서 먹기 좋게 한 다음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마시면 오줌 맛이 괜찮고, 거부감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오줌요법의 요령이다.

지난 10년간 오줌요법으로 나의 건강을 지켜온 경험에 의하면 오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몸에서 힘이 나고 병이 빨리 도망간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1월, 구정 연휴 때 교인들과 필리핀 '보라카이'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60세가 넘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5일간 많은 것을 보고 왔다. 나는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집중적으로 오줌요법을 했었다. 250cc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한 방울의 오줌도 남기지 않고 마실 작정으로 오줌을 계속 마셔 댔다. 신진대사가 빨라서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화장실을

가는 등 바빴다. 나는 은밀하게 오줌 건강 여행을 한 셈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리와 허리가 아프다며 피로함을 느끼는데 나는 오줌 덕분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원기가 넘쳐 났고 신명이 났었다.

물론 나는 언제나 채식위주의 이른바 '다니엘식(食)'을 하였고, 그것이 오줌요법의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

그동안 3천여 명에 이르는 목사님들에게 오줌요법을 권유했었는데 2천여 명은 열심히 하고, 1천여 명은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경기도 과천에서 샘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정희 목사님은 내가 개발한 YT대체식은 잘 먹으면서 오줌을 마시라고 하니 그것만은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용태 약사에게 가라', '김약사 말에 순종하고 오줌을 마셔라', '오줌은 깨끗하니라', '부서진 자, 낫아진 자는 마시게 되어 있느니라' 라는 응답을 받고 지금은 오줌요법을 잘 하고 계신다. 오줌요법을 못하는 공통된 이유는 오줌이 불결하다는 것이다. 불순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몽땅 오해였다. 오줌은 가장 깨끗하다. 오줌만큼 깨끗한 것도 없다. 독일에서는 오줌을 주사로도 사용한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양수가 없으면 아기는 죽는다. 아기는 열 달 동안 양수 속에 있으면서 오줌을 싸고 그 오줌을 먹고 지낸다. 양수는 거의가 아기의 오줌인 셈이다. 아기한테는 오줌이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깨끗한 생명수이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 오줌을 먹고 자라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줌은 피가 신장에 와서 걸러진 피의 웃물 즉, 혈청(血清)인 것이다.

내가 오줌요법을 하게 된 동기는 오줌이야말로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신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이다.

성경말씀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은 나누지 말라 (잠언 5:15~17)』고 하셨다.

다만 개신교 성경에는 잠언 5:15~17 말씀을 간격을 두고 구분하지 않고, 다른 말씀 속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문맥상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 게스펠더에서 열린 제2차 세계오줌요법대회에 참가한 필자

그러나 성경의 장, 절의 구분은 전문 성서학자나 목사가 구분한 것이 아니고, 100여 년 전 프랑스의 한 인쇄업자가 구분한 것이다. 신구약 공동번역서에 보면 이 구절을 구분, 번역하여 이해가 제대로 되게 해 두었다.

히브리 원어에 정통한 감리교 원세호 목사의 주석에도 우물이나 물이 오줌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여기 나오는 물은 히브리 원어로 오줌 즉, 소변으로 되어 있다.

영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의사는 약 70년 전, 오줌금식요법으로 죽어가는 수천 명의 말기암 환자를 살렸다. 그는 아내를 백혈병으로 잃어버린 후,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내과전문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과감하게 오줌금식요법과 오줌습포와 오줌 마사지를 시행하게 했었다. 이른바 융해작용에 의해 유방암이 4일만에 나은 경우가 있었는데 10일만에, 30일만에 각종 암이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일본에 '오줌요법' 붐을 일으킨 오줌요법 권위자와 함께
좌로부터 일본 사노외과 원장 사노 박사, 내과전문의 나카오 박사, 필자

의사로서 환자들을 평생 치료해 왔었지만, 그는 '오줌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약은 없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정리하여 1945년 '생명수'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1993년 5월에 출판, 지금 시중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암스트롱은 현대 오줌요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후 아무도 그 맥을 이어 온 사람이 없었다.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히 그 맥을 이어서 꺼져가는 난·불치병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육신을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열어 두셨다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오줌요법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시고, 그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과 건강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 자기 힘으로 혼자서 건강하고 장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어 주신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줌요법도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지킬 때 난·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오줌요법이든 무슨 요법이든 간에 다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나는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나의 저서 『당뇨, 암, 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란 책의 말미에 신광수 선생의 오줌요법 체험수기를 게재하고, 나를 찾아온 말기암, 당뇨를 위시한 각종 난·불치병 환자들에게 권유해 왔었다. 심지어는 오줌에 대한 남의 책을 사서 선물까지 하며 이 오줌요법을 권유했다. 그리고 한달 한 달 난·불치병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러 왔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학이 발달한 미국에서만도 해마다 56만명, 하루 1500명 이상이 암으로 죽어가고, 국내에서만도 해마다 5만명 이상, 하루 150여명이 죽어가고 있다.

미국 남가주대학의 존스 박사는 암환자가 병원에서 방사선이나 항암제 수술을 받으면 3년을 살고 그것이 싫어 도망을 가면 12년 반을 산다고 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난한 환자들에게도 암을 고치는 길이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이 책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줌건강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가칭) 사단법인 오줌건강국민운동본부의 허가를 복지부에 신청해 두고 있다.

허가가 나오는 대로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이 운동본부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이 운동을 통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에게 오줌건강 비법을 보급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한다.

필자는 6년 전, 10월 어느 날 아침에 간(肝)이 나빠서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현대의학에서 간 기능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로 GOT 검사를 했었는데 그 수치가 무려 160이나 되었다.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날 밤 혼자서 팔에 링겔 주사를 꽂은 채 밤새도록 오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간 수치가 60으로 뚝 떨어졌다. 회진을 온 의료진이 깜짝 놀랐었다.

그때 피검사를 세 번 정도 했었는데 윤진한 병원장과 담당의사였던 김기현 교수는 나를 C형 간염환자로 판명했다. 나는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여 계속해서 오줌을 마셨다.

그 결과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으로 간주된 C형 간염을 깨끗이 치유해 냈다.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 중환자에게 오줌금식요법이 최고란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난주에도 목이 갑갑하고 기침이 난 적이 있었다.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감기도 물리칠 겸 오줌금식을 5일간 했다.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이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마셨다. 그 기간 동안 배가 고프지 않고 얼굴에 축이 나지 않았으며 피곤하지도 않고, 원기가 생겼다. 오줌금식을 마치고 나서 감기도 물러가고 한 달간 아팠던 허리도 치유되는 등 건강이 회복되어 기분이 좋았다.



오줌요법의 기적같은 효과에 매료된 세계 40여 개국의 참가자들
(제2차 세계오줌요법 대회 중)

나는 건강비법으로 월 1일씩, 3개월에 3일씩 오줌금식요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새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배영문 목사님께서도 40일간 오줌금식요법으로 오래된 전립선염과 당뇨병을 깨끗이 고치셨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암, 당뇨, 비만 등 난·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개발한 YT 대체식을 먹게 하고 오줌요법을 병행하게 하여 병이 일단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오줌요법만으로 치유를 마무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의료 선교용으로 이 오줌요법을 익혀 나가

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회의 집회, 수련회나 등산, 외국 여행시, 재난시에 오줌요법을 활용하면 아주 좋으며, 금식기도 가운데 오줌금식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정수기요, 오줌은 최상의 증류수이다. 오줌요법을 잘 활용하면 어떤 난·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독감의 경우에도 오줌금식요법으로 하루 이틀 만에 물리칠 수 있고, 그 외 잡다한 병에 걸렸을 때에도 며칠 정도면 병이 물러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옛말에 '병은 자연이 고치고, 돈은 의원이 먹는다.' 는 말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인체는 어떤 병원보다도 훌륭하다. 그리고 오줌은 어떤 약보다도 훌륭하다.

인체는 자연치유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오줌은 바로 신기한 치유약인 셈이다.

어떤 병도 내부의 치유력으로 고치지 못하면 외부의 어떤 방식으로든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짐승들을 보라. 그들에겐 병원도, 의사도, 약사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어떤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남는다. 오직 인간만이 껍질을 벗겨 많은 병원과 약을 가지고 있다.

오줌요법을 믿고 잘 실천하면 병원이나 약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오줌요법은 천가지 이론보다 한가지 실천이 중요하다. 말이 필요없다. 체험을 통해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지난 4월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해서 포항에 갔었다.



제2차 세계오줌요법 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들
좌로부터 성균관대 식품생명학과 강국희 교수, 홍릉경로대학 김기일 학감,
한국MCL연구회 김정희 회장, 한국MCL연구회 이해영 총무, 필자

크리스찬 대학과 크리스찬 기업이 한번 협조해 보자는 것이었다. 의과대학의 인가가 나오고 한동대학교 병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서의학(BIBLE MEDICINE)과 오줌요법(URINE THERAPY)이 이 대학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바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날로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의료보험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는 이때,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때에 이 책을 내는 것이야말로 시의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글이지만, 각종 난·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건강생활에 참고가 된다면 필자의 기쁨이 이에 더할 바 없겠다.

특히 나에게 '성서의학(BIBLE MEDICINE)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건강비법'이 자손 만대로 전파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준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흥구, 성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01년 4월 23일

김 용 태

1부 오줌은 깨끗하다

1장 오줌요법이란

오줌요법은 자신의 오줌을 직접 마심으로써 병을 예방, 치유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몸은 성장하면서 영양의 불균형,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 물질들이 쌓여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줌은 이렇게 흐트러진 몸의 대사계를 조절하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줌을 입으로 다시 마시면 오줌의 미량성분이 목을 통과하면서 세포에 감지되는데, 그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면역계와 자연치유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줌요법이다.

사실 오줌이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오해다. 오줌은 혈액성분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서 나온 것이므로 혈액의 성분과 거의 같으며, 균이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청결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졌다.

어린이이나 젊은 여자의 오줌을 마시면 약이 된다는 말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자기의 몸에서 나온 오줌이 가장 큰 효험을 지닌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병과 싸워서 이기려는 자연치유력이 있는데, 자신의 오줌에는 이 자연치유력이 만들어낸 호르몬과 기타의 물질들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 때문에 오줌요법을 신봉하는 의사들은 자기의 오줌이야말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영약이라고 주장한다.

오줌요법에는 마시는 것 외에도 마사지, 습포, 관장, 금식 등의 방법이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방금 받은 신선한 오줌에서 오랫동안 묵힌 오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처음에는 오줌을 마신다는 것이 꺼림칙하게 느껴지겠지만, 오줌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모든 불·난치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오줌을 마시는 치료법이기에 때문에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원가비용이

제로라는 것이다.

오줌은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그 일부를 추출하여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오줌요법을 GW요법(Gold Water), 생명수 요법(Water Of Life), 3N요법(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없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1. 오줌은 무해하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줌요법을 권했을 때 그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이 오줌의 유해 여부이다. 그래서 오줌요법 신봉자들은 그동안 오줌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결과를 발표해 왔다.

일본의 의사들 중에 나카오, 히가시하라, 사노 박사 등은 오줌요법으로 자기 자신을 실험한 후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하여 오줌의 무해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했다.

스웨덴 외과의사 쿡 박사는 1986년에 방광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방광을 제거하고 대장으로 방광을 만들어 오줌을 고이게 한 후 방광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관찰하면서 오줌의 독성 여부를 몇 년에 걸쳐 검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오줌에 독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오줌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그 유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줌의 유기 성분에는 요소, 요산, 크레아틴, 암모니아수, 마뇨산, 우로크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각각 항산화 작용, 강장작용, 항암작용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요소는 이뇨, 살균작용을 하며 항균작용을 증진시키는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무해하다. 요산은 간에서 다시 요소로 바뀌어 독성이 제거된 후에 오줌으로 배설되며 노화를 억제하고 항결핵 효과가 있다. 그 밖에 크레아티닌, 암모니아수 등도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오줌 속에 극히 미량이 들어있으므로 음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오줌은 깨끗하다

일반적으로 오줌은 변과 함께 몸 안의 불필요한 찌꺼기로 만들어진 노폐물로 여겨져 왔다. 인간의 몸에서 나올 때 똑같이 배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줌은 노폐물이

아니다. 오줌은 깨끗한 혈액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된 것이므로 무균이며 아주 깨끗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과의 다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안에서 타액과 섞인 음식물은 식도를 지나 위 속으로 들어간다.

위에서 소화가 끝나면 십이지장으로 들어간다. 다시 소장에서 완전 분해된 영양소는 혈액으로 흡수되어 간장으로 들어간다. 이때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과 나머지 가스는 대장으로 보내지는데, 이것이 변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덜 된 영양물질에 있던 각종 세균이 침범해서 발효 분해가 된다. 대장에 들어간 변의 재료는 대장의 연동운동에 의해 직장으로 보내져서 그것이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즉 변은 음식물에서 영양소가 빠진 가스이며, 세균에 의해 발효 분해된 노폐물이다.

그러나 소변은 다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장에서 완전 분해된 영양소가 혈액과 함께 간장으로 들어가면 영양소가 대사를 받아 체내에서 활동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대사된 혈액은 심장을 따라서 대순환을 거쳐 인체의 각 세포로 들어가고, 이 혈액은 인체의 각 부분, 각 세포에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항체를 받아들여 신장으로 들어간다. 혈액은 신장의 사구체로 들어가면서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이 사구체를 통해 여과된 혈액의 일부분이 오줌이다. 따라서 변과는 별개의 것이며 아주 깨끗한 것이다.

3. 오줌은 생명수이다

생명의 창조와 성장과정에 필요한 생명수를 3단계로 구분하면, 제1의 생명수 양수, 제2의 생명수 모유 그리고 제3의 생명수 오줌이 있다.

오줌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아미노산, 무기물, 탄수화물, 효소, 호르몬, 면역물질, 기타 생리활성물질 등 수많은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제 3의 생명수라 일컬어진다.

이것은 강력한 살균력과 항독작용으로 병든 신체의 방어 체계를 자극해 신체를 건강하게 하며, 가장 치명적인 세균, 바이러스, 독소들에 대한 면역기능을 갖게 한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오줌을 먹으면 병이 회복되고, 건강한 사람이 오줌을 먹으면 몸이 더 가벼워지면서 건강해질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병까지 미리 치료하고 예방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오줌이 생명수의 역할을 해낸 예는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다. 가까운 예로 몇 년전 삼풍백화

점의 붕괴로 장기간 매몰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도 자기 오줌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원도 장성 탄광붕괴로 매몰되었다가 91시간 만에 구출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줌은 위급한 시기에 단순한 수분 공급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직은 오줌에 대한 거부감으로 그 효능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오줌이 자신의 몸에 맞는 최상의 치유제이며 생명수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4. 오줌은 인체의 정보원이다

우리의 몸에는 50억 가닥에 이르는 혈관이 있다. 혈액은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 긴 혈관을 통해 신체 조직과 세포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인체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오줌은 신장에서 여과된 혈액의 일부분이므로 인체의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검진을 받거나 어떠한 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흔하게 받는 것이 오줌 검사이다. 이 오줌의 변화로 여러 가지 질병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오줌의 색깔, 횟수, 오줌의 양, 오줌을 배설할 때의 통증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 이것이 질병을 발견하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혈뇨, 단백뇨는 신장병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 소변이 불그스레하거나 육즙의 색처럼 보이는데, 짙은 소변도 침전으로 인해 붉게 보일 때가 있어 혈뇨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짙은 소변은 날씨가 더워 오줌의 양이 적거나 열이 있을 때, 피로하고 수면이 부족할 때 생긴다. 그밖에 구충제나 붉은 색의 음식물이 복숭아빛 오줌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혈뇨가 의심이 되면 오줌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혈뇨는 요도에서 콩팥까지 어디에서든 가벼운 질환에서 심각한 신장암까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오줌검사는 간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간장에서 담도를 거쳐 장으로 배설된 빌리루빈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화를 일으키면 우로빌리노겐이 된다. 이 우로빌리노겐은 장에서 흡수된 후 다시 간장에서 처리되는데, 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우로빌리노겐이 간에서 충분히 처리되지 못하고 신장에서 오줌과 같이 배설된다. 따라서 이것이 검출되면 간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의심될 때도 오줌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오줌의 당검사는 오줌이 만들어진 지난 몇 시간 동안의 혈당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통 혈당이 180mg/dl 이상일 때 당이 검출된다. 오줌검사는 매우 간편하여 어느 때나 쉽게 할 수 있으며, 계속 반복할 수 있어 일반 가정에서도 흔하게 사용된다.

그 외에 오줌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은 대장과 방광 사이가 서로 통해 있어서 장내 가스가 방광으로 나오거나 거품을 일으키는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물론 이 두가지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거품이 나온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외에도 인체의 정보원인 오줌을 통해 알 수 있는 질병은 무수히 많으므로 일단 병이 의심되면 바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5. 오줌은 돈이 들지 않는 약이다

“오줌요법을 확산시켜서 약사님께 돌아오는 것이 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오줌요법을 권할 때 그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진정코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내 사비를 털어 그들에게 오줌요법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선물해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 자신의 오줌요법 체험을 통해 오줌이야말로 인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줌요법의 탁월한 효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되도록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 뿐이다.

더구나 오줌요법은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것이므로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일부 상류층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비 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9년에 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취지로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가정 경제의 부담과 소비자의 번거로움만 가중된 실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수술 한 번 못 해보고 죽어간다. 그 중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선단체나 이웃의 온정으로 건강을 되찾아 미담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일 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도 치료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오줌요법은 가장 이상적인 건강법이고, 난·불치병의 치유제이다. 오줌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치유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줌요법은 현대의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불치병을 일체의 비용 없이 회복시켜 누구나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2장 오줌요법의 의학적 검증

- 왜 치료효과가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가. 양수가 오줌이다

오줌요법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왜 대중화되지 않았느냐”하며 의구심을 나타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줌요법이 광적인 사이비종교라도 되는 양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더러운 오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반문한다.

이 모든 것은 오줌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오줌을 마셨다. 양수가 곧 오줌인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대변과 마찬가지로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해 왔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오줌요법을 실천해 온 나라에서도 비밀리에 전해져 왔으며, 지식인들조차 자신이 오줌요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물론 그들은 오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없어서는 안될 신성하고 효과적인 영양임을 알고 있었다.

오줌요법의 치료효과

19세기초에 출판된 ‘One Thousand Notable Things’를 보면 다음의 인용문이 실려 있다고 한다.

- △ 심신의 부조에 일반적이고 훌륭한 치료법 - 9일 동안 아침마다 당신의 오줌을 마셔라. 괴혈병이 낫고, 몸이 가볍고, 명랑하게 된다.
- △ 오줌을 마시면 수종과 황달에 좋다.
- △ 따뜻한 오줌으로 귀를 씻으면 난청과 소음에 좋고, 다른 귓병에도 좋다.
- △ 당신의 오줌으로 눈을 씻으면 안질을 낫게 하고, 눈을 맑고 강하게 한다.
- △ 오줌으로 당신의 손을 씻고 문지르면 손저림, 동창, 상처를 낫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한다.
- △ 새로 생긴 상처를 오줌으로 씻으면 기막히게 좋다.
- △ 가려운 곳을 오줌으로 씻으면 낫는다.
- △ 항문을 오줌으로 씻으면 치질과 다른 상처가 아문다.

오줌은 신장을 통과하는 미생물을 분해하여 독소와 항독소 같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물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비타민을 공급하며, 신장으로부터 배설된 항원과 항체가 생물체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오줌은 생물체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줌에 함유된 마지막 대사 산물들은 호르몬이 특수한 작용을 일으킬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오줌의 효과는 이처럼 여러 효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오줌요법의 기적'을 쓴 일본의 내과 의사 나카오 박사는 오줌요법이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원인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오줌의 여러 가지 물질이 환자의 환부에 직접 작용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둘째, 몸 밖으로 배출된 오줌이 다시 체내 소화관을 통해 흡수되면 어떤 종류의 물질 등이 미량으로 생기는데, 그 자극에 의해서 다시 T임파구(흉선으로부터 연유한 임파구로 결핵, 장티푸스,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백혈구 등이 증식되어 그 병 특유의 자연치유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이 이러한 오줌의 불가사의한 기능을 속속들이 다 밝혀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임상실험에서 오줌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면역력 강화작용

인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자체 면역력의 약화에 있다. 면역이라는 것은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 힘이 강하면 질병을 발생시킨 요인들에 강하게 대응하여 재빨리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지만 힘이 약할 경우, 방어능력이 사라져 병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우선 병원에 가서 약이나 주사로 질병을 치유하려 한다. 하지만 항생물질은 대개 병원균을 죽이는 것보다는 증식을 억제할 뿐이며, 나름대로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하여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건강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면역력에 달려 있으므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치유법인 것이다.

그런데 오줌의 성분에 이러한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키는 호르몬과 극미량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자가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돕고 있다. 즉, 오줌에는 개인의 체질에 맞는 면역증강 요소들이 들어 있는 최고의 명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의학박사 T. 윌슨 다이크만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인간의 신체 조건에 따라 환자마다 오줌의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오줌은 구조적 결함을 제외한 다른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오줌의 성분은 환자 투약시 의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자가치유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다른 투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오줌요법은 체내의 면역계통이 신체의 일부를 항원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몸과 조직을 파괴해 가는 질병인 '자기면역병'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면역병에는 루프스(전신성 홍반성 낭창), 신경퇴행성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력증, 하시모토병, 바세우도씨병, 재생 불량성 악성빈혈, 에디슨병 등이 있다. 이러한 병에 걸릴 경우 가벼운 감염에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오줌요법을 통해 자체면역조절을 강화시켜 면역력을 높이면 치유가 가능해진다.

호르몬 조절작용

호르몬은 체내에 있는 세포로만 만들어지는 극히 미량의 성분으로 특정한 세포에 영향을 미쳐 자연치유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활동을 한다. 호르몬은 하수체, 송과체, 갑상선, 상피소체, 흉선, 부신, 췌장, 정소, 난소, 신장, 시상하부, 신경말초 등에서 분비되며 일반적으로 성장과 발육, 환경적응, 에너지의 생성과 저장 등에 영향을 끼친다.

오줌 속에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필요한 20여 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 호르몬이 작용하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도 놀랄만한 효과를 보인다. 오줌을 마시면 정력증강, 혈압강하, 피로회복, 시력회복 등의 탁월한 효과반응을 보이는 것도 호르몬 밸런스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혈류촉진 · 확장작용

1925년 독일의 외과의사인 페리 박사가 발견한 칼리크레인(Kallikrein)은 순환작용계 효소로서 췌장, 갑상선, 부신, 오줌, 혈액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 물질은 프로스타글랜딘과 상호작용하여 혈액의 순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혈관 확장에 우수한 효과가 있으며,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말초세포로의 영양공급을 촉진하며 여러 가지 순환장해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기능으로 칼리크레인은 고혈압의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다.

칼리크레인과 함께 작용하는 프로스타글랜딘은 국소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만들어져 혈관확장과 혈압강화작용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세포막을 강화하고, 세포파괴를 예방하며 적혈구의 흐름을 돕는 작용을 한다.

혈전용해작용

오줌과 함께 배설되는 유로키나제는 혈전을 용해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수술 후 나

타나는 위험한 혈전을 차단하는데 주로 쓰이는 혈전용해제는 오줌에서 추출한 이 유로키나제를 이용해서 만든다.

수술의 경우 혈관 벽이 파괴되면 터진 곳을 막기 위해 혈소판이라는 혈액 속의 분자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달라붙어 응혈이 형성된다. 응혈에 의한 혈전은 혈관을 협착시키거나 막아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이러한 혈전을 풀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혈전용해제이다.

오줌을 마시면 이러한 혈전용해작용으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오줌 속의 유로키나제는 주사제로 투여된 것과 달리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뇨 · 수면작용

오줌의 성분에 함유된 요소는 조직의 세포 외액에서 전해질과 수분이동을 활발히 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이뇨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오줌을 마시면 몸 속의 청정화와 이뇨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부에서는 잠을 자고 있을 때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SPU라는 뇨성 수면물질을 찾아냈다. 오줌을 먹으면 잠이 쏟아질 듯이 밀려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줌 속에 있는 SPU라는 물질의 수면작용 때문이다.

호전반응

오줌요법을 실시하는 초기에 사람에 따라 호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설사와 구토, 메스꺼움, 두통, 편두통, 부스럼, 궤양, 피부염, 심계증, 설사, 불안, 열 등의 증상이나 통증이 발생하고, 아프던 환부의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호전반응이다. 이 호전반응이 발현되면 마치 부작용처럼 느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오줌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독성은 전혀 없으며,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 속의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일 뿐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호전 반응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시기와 증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나타나기도 하고, 짧게는 2~3일,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6~12개월 정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오줌요법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약 호전반응이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매일 마시는 오줌의 양을 조금씩 줄였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오줌요법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

오줌은 한약과 비슷한 냄새가 나면서 약간 짜고 쓰기 때문에 단번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시는 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1일 1회에 약 200ml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보통 아침 첫 배뇨시 중간의 오줌을 마시는 것이 가장 이롭다. 처음에 배설되는 오줌에는 인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줌을 받아서 바로 마시는 것인데, 굳이 마시기가 거북하다면 얼음을 넣어서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 오줌의 맛을 한결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이 싱겁게 된다.

오줌을 마시는 양이나 횟수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름대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줌요법을 잘 이해하고 따르려는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믿음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약도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힘이 든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줌의 효능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길이 최선이다.

◆ 오줌마사지와 오줌습포의 특별한 효능

영국의 저명한 의사이고, 오줌요법의 권위자인 암스트롱 J. F.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 있는 '단식을 할 때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라는 말씀에 깊은 영감을 얻어 머리, 얼굴, 목 그리고 신체의 여러 부위를 오줌으로 마사지 한 결과 심계 항진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많은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질병치료에 있어 가장 우수한 습포는 오줌습포이며, 오줌마사지는 어떤 형태의 마사지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병의 정도가 심해 금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줌마사지나 오줌습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줌마사지를 할 때는 오래된 오줌 또는 여기에 새로 배설한 오줌을 섞어서 데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오줌을 병에 저장해 두었다가 접시에 조금 따르고, 손바닥에 오줌이 충분히 묻도록 적신 다음 손이 마를 때까지 마사지를 해 준다. 그리고 다시 오줌을 접시에 따르

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오줌습포를 할 때는 오줌을 적신 습포를 환부에 붙이고 필요하다면 오줌을 더 첨가하는 방법으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종기, 화상, 상처, 혹, 부종 등 이상이 있는 환부에 해주면 좋은데, 오줌습포가 꼭 필요한 환부에는 오줌마사지를 해서는 안 된다. 마사지를 해야 할 부위는 목, 얼굴, 머리, 발이다. 그렇다고 전신마사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줌마사지를 즐겨 하는 사람들의 피부는 탄력이 있고 윤기가 넘친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가

오줌은 배설되기 전까지 신체의 영양 공급책인 무균 상태의 혈액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변에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우염, 수뇨관의 감염증, 방광염 등의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균이 없고 깨끗함은 물론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오줌의 성분에는 유기질로 요소, 요산, 근소, 암모니아, 무기질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탄수화물, 색소, 지산, 탄산염, 비탄산염, 탄산, 점액소, 효소, 호르몬, 비타민, 아미노산, 항체, 항원, 미네랄 등이 있는데 그 성분을 구체적으로 검증해도 유해 성분은 찾아볼 수 없다. 곧 오줌을 마셔도 무해하다는 뜻이다. 오줌 성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물질 즉,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등이 체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그 독성이 오줌으로 배설되는 일은 없다.

일본의 내과의사인 나카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임상실험을 통해 혹시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소변을 소량 마셨더라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세균 수가 지극히 적은 데다가 위장에 도달하였을 때 위산으로 말끔히 살균되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의 외과의사인 콕크 박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방광암에 걸린 환자의 방광을 제거하고 대장으로 방광을 만들어 오줌이 고이게 한 후 방광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독성이 없는지 등을 5년 여 동안 지켜보았지만 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줌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은 있다. 신장에서 생성된 오줌이 방광, 요도를 통해 배설될 때 세균오염이 생기는 경우이다. 특히 여성은 그 구조상의

문제로 요도감염을 일으키거나 방광염, 요도염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 안에서 PH 1~1.5 정도의 강한 염산이 하루에 1,500~2500ml 정도 분비되어 마신 오줌을 완전히 살균시키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줌으로 인해 요독증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독증이란 신장기능의 이상으로 각각의 장기에 기능 부전이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오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즉 오줌을 마셔도 몸에는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단, 세균이 감염된 오줌을 눈이나 코, 귀 등의 점막에 넣어서는 안 된다.

3장 오줌요법의 역사

오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2000년 이상 거름, 세제 및 약용 등의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주로 영적인 수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져 왔는데, 근래에는 각 종교지도자들뿐 아니라 학계, 의학계,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산업계, 문화계, 언론 등 다양한 계층의 저명한 인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오줌요법의 효능을 알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3세기에 서진의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의 위지 편에 오줌의 다양한 쓰임새가 기록되어 있다. 읍루족, 물길족, 흑수말갈족 등의 동북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집안에 오줌통을 마련해 두고, 오줌으로 세수를 하고 빨래를 했다는 것이다. 고대 로마인들도 오줌으로 세탁을 하여 세탁소는 공중화장실을 겸했다고 한다. 아일랜드인들도 털제조품의 색깔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오줌을 매염제로 사용했는데, 이 처리법은 특히 중미대륙의 인디언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시베리아인들도 오줌으로 가죽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에스키모인들은 그들의 피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오줌을 모아 사용했다. 또 인디언족인 시노크스족은 '시노크 올리브'를 즐겼는데, 이것은 사람의 오줌에 도토리를 5달 동안 담가둔 것으로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환각제로도 쓰였다.

J. G. 보우케의 말에 따르면 고대의 모든 민족들이 사람과 동물의 오줌에 대한 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1917년경에도 영국과 불란서 등지에서는 부인들의 손을 오줌에 씻어야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고, 고대 아프리카에는 우유 그릇을 오줌으로 씻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디언 어머니들은 기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숯가루에 오줌을 섞어 발랐다고 한다. 고대 스페인에서도 사람들이 오줌으로 씻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입과 치아도 오줌으로 씻었는데, 이는 오줌이 입과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중세기 독일의 약사들도 양치질을 오줌으로 하고, 치아는 오줌과 모래를 섞어서 닦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5세기 때 송의 범엽이 편찬한 후한서에는 오줌이 강정제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감시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조가 감시에게 '정력에 좋은 묘약이 없겠느냐'고 묻자, 감시는 오줌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러나 조조는 반신반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그의 셋째 아들 조식(시인, A.D 192~232)은 그 효능을 인정하고 시행하여 정력이 왕성해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한다.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 탕액편에도 오줌이 뇌출혈에 효과가 있으며, 정력제로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설 식물편에 보면 오줌은 기침, 폐, 심장질환에 속효가 있고, 한 노인이 치료가 어려운 나쁜 병에 걸려 40년 동안 자기의 오줌을 마셨더니 용모가 젊어지고, 병이 없어져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것을 윤회주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1993년에 독일의 부테난트(Butenandt)박사는 오줌에서 성호르몬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요즘은 오줌요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자신의 오줌요법 체험을 맨 처음 소개한 사람은 카메라맨 미야마쓰씨였다. 그는 캐나다의 인디언 마을에서 취재하던 중에 심한 허리 통증을 앓았는데, 인디언으로부터 오줌요법을 배워 1개월쯤 실천한 뒤 통증이 말끔히 가시는 효과를 보았다고 술회했다.

한편, 일본에서 오줌요법의 붐을 일으킨 사람은 나카오 내과의원 원장이었다. 그는 2차 대전 때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오줌요법으로 만성 임질 등의 각종 질병을 치료했다. 이 경험으로 터득한 오줌요법의 효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일본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 것이다.

인도의 전 수상 데사이 씨도 오랜 전부터 오줌요법을 실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 컵의 오줌을 아침식사로 대신할 만큼 적극적인 신봉자였다. 그는 처음 오줌과 마지막 오줌은 버리고 중간 것만 받아 마셨다고 하는데, 그의 오줌요법은 마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항상 오줌으로 눈을 씻고 몸 전체를 마사지를 했는데, 그 효과는 그의 모습에 여실히 드러났다.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생기 있는 피부와 힘있는 눈빛, 왕성한 기력을 지니고 있

었다.

데사이 씨는 영국의 자연요법가 암스트롱(J. F. Armstrong)의 '생명수'라는 책을 통해 처음 오줌요법을 알게 되었다. 암스트롱은 성서에서 잠언 5장 15~17 말씀을 읽고, 성서에서 말하는 물이 오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자신이 직접 오줌을 마시면서 체험한 효능을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오줌요법은 이 외에도 많은 선각자들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과 같이 세계오줌요법대회가 두 차례 개최되는 등 부단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줌에 대한 전설

△꼬리 없는 쥐는 마녀의 오줌 때문이다.

△도둑이 그 장소에 오줌을 누면 추격대로부터 보호된다.

△오줌이 달에 비추면 몽유병을 앓는다.

△싱싱한 썰기풀에 환자의 오줌을 넣었을 때 썰기풀이 금방 시들거나 변색되면 환자는 죽고, 녹색으로 머물러 있으면 곧 회복된다.

△싱싱한 버들잎에 오줌을 누었을 때 3일이 지나도록 녹색으로 있으면 임신이다.

△오줌을 누어서 마녀를 물리칠 수 있다.

△임신하고 싶은 사람은 처녀의 오줌을 마시면 된다.

△결혼반지에 오줌을 누면 당사자는 그때의 정력을 돌려 받는다.

△힌두인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소의 오줌을 큰 축복으로 알고 받아 마신다.

△맥주 효모가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의 제빵사들은 오줌을 발효제로 사용했다.

△미국에서 담배의 맛을 제대로 알기 위해 담배를 여자의 오줌에 절인 후 화장실에 걸어 놓았다. 이집트에서도 시가를 여자의 오줌에 절였는데, 남자의 오줌은 너무 강해서 적합하지 않았다.

△발칸지역의 농부들은 치즈 원료를 사내아이의 오줌에 담가 두었다. 그러면 거기서 치즈벌레

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유에 섞으면 아주 맛있는 치즈가 된다.

△베를린에서 100년 전 어느 치즈상이 젊은 여자 아이의 오줌을 치즈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다가 벌을 받았다. 스위스인들도 치즈를 발효시키는 데 오줌을 사용했다.

△여러 동물의 오줌도 치유력을 갖고 있다. 하이에나의 것은 특히 오래된 병에 좋고, 스라소니의 것은 가슴의 통증 그리고 숫염소의 것은 독뱀에 물렸을 때 좋다.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은 숯가루와 오줌을 섞어 문신하는데 사용한다.

△에스키모인들은 머리감을 때 오줌을 제일 좋아한다.

△아일랜드와 독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부인들은 그들의 털옷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항상 오줌을 사용했다.

(J.G.Bouke:Der unrat in sitte, Brauch, Glauben und Gewohnheitsrechten der Voelker-Leipzig 1913에서 일부 발췌)

2부 오줌을 똑바로 알아라

1장 오줌의 주요 성분

오줌은 95%의 물과 5%의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하루 평균 배뇨량은 1,500~2,000ml 정도이며, 그 성분들을 살펴보면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체, 아미노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의 주요 성분들과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수용액의 형태로 콩팥에서 걸러지는데 99%는 재흡수되어 혈액으로 돌아가고 1/100 정도로 농축되어 방광에 축적되었다가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오줌이다.

오줌에는 백혈구·적혈구·상피세포·원주 등의 세포와 유형성분, 포도당·과당·갈락토스·이탄당 등의 당질, 색소물질·마이오글로빈·헤모글로빈·피브리 분해산물 등의 화학물질, 아밀라제·펩티다제·유로키나제 등 25개 이상의 효소, 성호르몬·아드레날린·엔도르핀 등 다수의 호르몬, 디렉틴(Directin)·안티네오플라스톤(Antineoplaston), 3-메틸글리옥살(3-Methylglyoxal)·Angiostatin·CDA2·베타인돌아세틱산(Beta-indole acetic acid)·에이치-11(H-11), Phenylacetate 등의 항암물질, 크레아틴(creatine), 요산(uric acid) 등 극미량의 생리활성물질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제각기 항산화 작용, 강장 작용, 항암 작용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특히 '디렉틴(Directin)'이란 물질은 1966년 미국 실험생물학협회지에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환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안티네오플라스톤(Antineoplaston)'이란 성분은 1960년대 미국의 의사 부르진스키가 발견했는데, 정상 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펩타이드성 물질로 암환자들에게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3-메틸글리옥살(3-Methylglyoxal)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줌의 주요 성분

오줌의 유기 성분에는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암모니아, 마노산, 유로크롬 등이 있다. 그 외에 식염, 칼륨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보통 식품에서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요소 (Urea)

요소는 몸 안에서 단백질이 분해할 때 생겨 오줌으로 나오는 질소 화합물로서 무색·무취의 시원한 소금 맛이 나는 결정성 분말이다.

이것은 오줌이 항세균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상처나 감염 부위를 낫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나 파괴된 조직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세뇨관에서 수분 흡수를 막는 역할 외에 조직 속에서 전해질과 수분의 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뇨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네푸로제나 심부전 따위의 부종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약으로 사용할 때는 1회에 8~10g을 하루 4, 5회 정도 복용하면 된다.

또한 단백질의 마지막 대사 산물로서 지방을 분해시키고 다른 신체 분비물을 용해시키는 기능을 한다. 약간의 살균 효과도 있어 설파민제와 병용하면 항균 작용을 증강시키며 결핵균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이때 비타민 C를 다량 섭취하면 항결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요소는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오줌에 약 14.7g 정도 들어 있으나 200ml의 오줌을 마실 경우에는 불과 2g밖에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다.

▲ 요산 (Uric acid)

단백질, 특히 동물의 내장이나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란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간에서 다시 요소로 바뀌어 독성이 제거된 후 오줌으로 배설된다.

요산은 맛과 냄새가 없는 백색 물질로 암을 일으키는 분자를 근본적으로 청소하는 과정을 돕고 있다. 그리고 노화를 억제하며 항결핵 효과가 있다.

이것은 오줌에 하루 총량 0.18g정도로 극히 미량이 함유되어 있어 가령 하루에 한두 컵의 오줌을 마셔도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생긴 생체생성 성분일 뿐이다.

▲ 크레아티닌 (Creatinine)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단백질의 노폐물이 크레아티닌이다. 색이 없고 물과 소금에 잘

녹으며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세포에서 에너지 인산 결합의 역할을 한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크레아티나나 크레아틴 인산으로 형성되어 혈중으로 유출되어 신장에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그리고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는데 일부는 세뇨관으로 배설된다. 노폐물의 일종이므로 배설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신장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크레아티닌의 정상범위는 남성의 경우 0.8~1.2mg/dL, 여성의 경우 0.5~1.0mg/dL으로써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장장애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오줌 속에는 0.58g정도만 들어있으므로 음용하더라도 그 유해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암모니아수 (Aqua Ammonia)

암모니아수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자극적이면서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풍긴다. 강한 국소자극 작용을 일으키기도 해 피부에 닿으면 발적을 일으키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국소자극을 이용하면 반사적으로 기도 분비를 항진시킴으로써 기관지염막에서 탄산염이 분비되어 거담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오줌 속에는 암모니아가 기껏 0.49g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 한 두 컵의 오줌에 들어 있는 것은 불과 0.07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흔히 거담약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하루 3회, 1회분 0.15~0.5g) 함유량에 훨씬 못 미치므로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 마뇨산 (Hippuric acid)

마뇨산은 인체 내에서 식품 첨가물 등으로 섭취된 안식향산이 간장에서 해독되어 요중에 배설된 것이다.

▲ 유로크롬 (Urochrome)

유로크롬은 정상적인 동물의 요중에서 황색 성분의 것을 말하는데, 깨끗한 오줌에서는 유로크로모겐이란 성분으로 존재한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오줌의 성분에서 그 유해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람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예방, 치료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오줌의 성분 분석표

■ 정상인의 오줌 성분

하루 양 1,500~2,000ml

PH 5~7

고형 성분 50~70g

<「생화학 핸드북」에서>

■ 유기 성분(30~40g)

총 질소 16.8g/1일

요소 14.7g/1일

요소산 0.18g/1일

암모니아질소 0.49g/1일

크레아티닌 0.58g/1일

마뇨산 0.6g/1일

인디칸 0.005~0.002g/1일

유로크롬 0.4~0.7g/1일

유기산

아세톤체 3~15mg/1일

회산 0.8mg/1일

구연산 0.3~0.9mg/1일

구르크론산 3.0~20.0mg/kg/1일

수산 1.5~30mg/1일

피루핀산 15~30mg/1일

유산 3.0mg/1일

산화촌산 79.5mg/kg/1일

■ 핵산 관련 물질

아란토인 0.17mg/kg/1일

퓨린염기 0.2~1.0mg/kg/1일

구아니딘초산 0.2~0.5mg/kg/1일

7-메칠구아닌 0.09mg/kg/1일

■ 요중 당질 배출량

포도당 30~130mg/1일

후락토즈 $0.26 \pm 0.16 \text{mg/kg/1일}$

락토즈 23~84mg/1일

가락토즈 48~50mg/1일

아라비노즈 18~38mg/1일

펜토즈 70mg/1일

■ 요중 아미노산 (단위:ug/mg/크레아티닌)

아스파라긴산 3.4

아라닌 12.8

알기닌 1.7

그리신 65.9

구루타민 49.3

시스틴 8.3

세린 26.7

타우린 59.2

타로린 12.8

트리프토판 11.1

파린 3.8

■ 무기 성분(20~25g)

나트륨(Na) 6~8.4g/1일

염소(Cl) 11.1~18.2g/1일

칼륨(K) 1.8~2g/1일

(S) 16mg/kg/1일

칼슘(Ca) 240~320mg/1일

마그네슘(Mg) 2.9~6.39m mol/1일

철(Fe) 60~100 μg /1일

구리(Cu) 250 μg /1일

아연(Zn) $451 \pm 164 \mu\text{g/kg/1일}$

일산화탄소(CO) 0.21mg/1일

세레니움(Sr) 0.5mg/kg/1일

케이산 0.13mg/kg/1일

■ 요중 색소 성분

유로크롬 0.4~0.7g/1일

유로피리노겐 0.3~2.1에리히 단위

유로비린 143~1.857 μ g/kg/1일

피리루빈 3.08 \pm 0.28mg/1일

포르포피리노겐 0~800 μ g/l

■ 요중 효소

요중 아밀라제 167 \pm 148Smith-Roe

β 구루크로니타제 5.4~14.6 103 μ /hr

β 가락토시타제 132 \pm 52 μ /mg/크레아티닌

α 구르코시타제 66~142m μ /mim

트랜스페프티타제

(GOT) 3~12 μ /mg

(GPT) 0~8 μ g/mg

유로페프신 22.9u/hr

유로키나제 0.38~7.ploug u/

■ 요중 비타민

비타민 B1 4.17 \pm 190 μ g/1일

비타민 B2 30.7 μ g/dl

비타민 B6 195 μ g/1일

비타민 B12 0.44mg/kg/1일

엽산 2.0~6 μ g/1일

카르틴 57.7 \pm 9.6mg/1일

아스코르빈산 0.57~6.5mg/dl

니코틴산 3.8mg/1일

판토테인산 45 μ g/kg/1일

코린 79 μ g/kg/1일

■ 요중 각종 호르몬

부신피질 당질호르몬

17-OHCS	성인 남자	6.1mg/1일	성인 여자	4.1mg/1일
17-케토스테로이드	성인 남자	6.5mg/1일	성인 여자	4.8mg/1일

성선호르몬 배출량

테스트스테론	성인 남자	51.7 μ g/1일	성인 여자	6.5 μ g/1일
총 에스트로겐	성인 남자	2-10 μ g/1일	여자 난포기(卵 期)	5~30 μ g/1일
푸래그난디올	성인 남자	0.1~1.0mg/1일		
	임신 20~28주	15~25mg/1일		
	임신 28~40주	25~40mg/1일		
알르도스테론	성인	2~26 μ g/1일		

■ 요중 그 외의 호르몬

카테골체 배출 정상치	
메타네푸린	39.6 μ g/1일
아드레날린	24.2 \pm 4 μ g/1일
노루아드레날린	52.1 \pm 15 μ g/1일
토파민	402.4 \pm 86 μ g/1일
호모파니루산	6.0 \pm 1.1mg/1일

■ 그 외의 요 성분

인도루 3초산	5~18mg/1일
세로토닌	130~260meq/1일
히스타민	0.2~1 μ g/1일
D-구루카루산	39 \pm 17.9 μ mol/1일
CAMP	3.61 \pm 0.19 μ mol/1일
에리트로포에린	2.8~4.0단위/1일
2-페닐에칠아민(총)	886 \pm 84 μ g/1일
P-타라민	83 \pm 260 μ g/1일
푸로스타그란딘E1	
카리크레인	

■ 요중 세포 성분

적혈구 106 이하

백혈구 2×10^6 이하

원주 2×10^5 이하

상피세포 106~107

이외에도 오줌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효소, 면역물질 등 수많은 미량성분이 들어있다. 이 모든 물질은 극미량의 성분이기 때문에 유해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평소 음식을 통해서 그 몇 배의 양을 섭취하고 있다.

2장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일반적으로 오줌을 불결한 노폐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저 습관적인 선입견일 뿐이다. 인간의 배설물에는 오줌 외에도 변과 땀이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과 오줌은 화장실에서 배설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노폐물로 취급되고 있는데, 변은 음식물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간, 세균에 의해 발효 분해된 것인 반면 오줌은 균이 없는 청결한 것으로서 인체에 꼭 필요한 자연치유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변과 오줌의 성분은 확연히 다른 것이므로 똑같이 더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줌과 성분이 비슷한 땀은 오히려 많은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통 땀을 만지거나 혀로 핥는 데는 별다른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입안의 침을 생각해 보자. 침은 강력한 소화력과 멸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입 안의 점막 보호를 비롯해 입술과 혀를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역할도 해준다. 따라서 우리 몸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이다. 그런데 입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밖으로 뱉어지면 불결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오줌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깨끗한 것인데도 밖으로 배설되면서 한낱 지저분한 노폐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오줌은 인체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최상의 치유제로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이다.

오줌의 생성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안에서 타액과 혼합되어 식도를 지나 위 안으로 들어간다. 위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소화가 끝나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위액의 대부분이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분해된다.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과 같이 간장으로 들어간다. 영양소는 간장에서 대사를 받아 체내에서 활동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대사된 혈액은 심장을 따라서 순환을 거쳐 인체의 각 세포로 옮겨간다.

이 혈액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항체를 받아들여 콩팥(신장)으로 들어간다. 콩팥은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줌의 생성을 주도하게 된다. 즉 혈액이 콩팥에서 걸러지면서 콩팥은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이 곧 오줌이다. 이때 콩팥은 혈액의 항상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성분만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오줌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혈액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밖의 성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콩팥 안쪽에 모인 오줌은 자루 모양의 신우를 거쳐 요도관을 타고 다시 방광에 모인다. 방광은 얇은 막으로 된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일명 오줌통이라 불리는 것으로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한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수축되면서 오줌이 요도를 지나 밖으로 나오게 된다.

3장 오줌을 이용한 의약품

오줌의 놀라운 효능이 의학적인 검증을 받으면서 오줌의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녹십자 유로키나아제 (UROKINASE), 종근당에이치피키트 (Hp Kit Chongkundang), 동광제약(주)의 맥그란로오손 (Macgran Lotion), 중외제약의 브레핀정, 삼성제약공업(주)의 리스진크림, (주)삼천리제약의 뽀드송크림 등이 있다.

그리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오줌의 성분 중에 요산을 쓰는 제품이 많다. 요산은 맛과 냄새가 없는 백색 물질로 노화를 억제하며 천연보습제로서 우수한 효능이 있다. 물론 오줌을 바로 피부에 바르면 화장품을 따로 쓰는 것 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

녹십자 유로키나아제 (UROKINASE)

유로키나아제는 말초 동·정맥혈전증, 폐색전증, 급성심근경색, 뇌혈전증, 뇌경색(증상 발현 후 5일 이내로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출혈이 나타나지 않을 때) 환자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생리식염주사액에 용해하여 정맥 주사하거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포도당주사액으로 정맥 주사한다. 출혈환자, 항응고제 치료중인 환자, 중증의 간질환, 출혈성 궤양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혈 처치가 곤란한 환자, 척수의 수술 또는 손상 환자, 동맥류 환자, 중증의 이식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혈전용해제

오줌에서 처음 추출한 유로키나아제를 이용해서 혈전용해제를 만든다.

대개 수술 후 나타나는 위험한 혈전을 풀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전용해제이다.

혈전용해제에는 헤파린과 알약형태의 와르파린, 생명공학회사 지넨테크사가 개발하여 심장마비환자에게 단 5초만에 주사할 수 있는 급속주사용 TNKase, 가장 널리 쓰였으나 한번 주사하는데 90분이 소요되는 악티바제가 있다. 그리고 영국과 스웨덴의 합작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혈전용해제가 있다.

이것은 알약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가 가능하며 헤파린이나 와르파린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캐무론

‘캐무론’은 일본의 하야시바라 생물화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에이즈 치료약이다. 항 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이 사용된 것으로 일본에서 인가되지 않았을 때도 케냐에서는 이미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 효과가 알려지자 캐무론을 찾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케냐로 몰려들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오줌에는 150~200단위 정도의 인터페론이 함유되어 있다. 즉 오줌을 마심으로써 미량의 인터페론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종근당에이치피키트 (Hp Kit Chongkundang)

제약회사 : (주)종근당

구성성분 : 요소

효과 :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의 유레아제 검출용 시약

맥그란로오손 (Macgran Lotion)

제약회사 : 동광제약(주)

구성성분 : 요소, 리도카인, 염산디펜히드라민, 캄파(D), 초산토코페롤

효과 :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노인·성인의 건피증, 소아의 건조성 피부

용법 : 1일 수회, 적당량을 환부에 도포한다.

브레핀정

제약회사 : (주)중외제약

구성성분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아세트아미노펜, 메타규산알루미늄, 마그네슘 리보플라빈, 아스코르빈산

효과 : 두통, 치통, 발치루 동통,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 성인 1회 1일 3회 공복시를 피하며 복용간격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라스진크림

제약회사 : 삼성제약공업(주)

구성성분 : 요소

효과 : 진행성 지장각피증(주부습진의 건조형)

손발바닥 각화증, 어린선, 노인성 건피증, 모공성 태선, 아토피 피부 손상된 손발톱 특히 진균감염에 의해 손상된 손발톱의 박리 혹은 용해

쁘드송크림

제약회사 : (주)삼천리제약

구성성분 : 요소, 젖산, 히드로코르티손

효과 : 진행성 지장각피증(주부습진의 건조형)

손, 발바닥 각화증, 노인성 건피증, 어린선 모공성태선, 아토피성피부

급·만성 알레르기성 습진, 신경피부염

용법 : 1일 2회 환부를 잘 씻고 마른 다음 바른다.

3부 오줌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1장 오줌으로 치유되는 질병

일반적으로 오줌요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에 윤기가 돌며, 피부가 반들반들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진다. 또한 변비가 해소되고 손톱이나 머리털이 잘 자라며 쉽게 피

로를 느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질병들이 차츰 호전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오줌요법을 한다고 해서 당장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줌요법은 질병에 따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줌요법을 할 때 처음에는 메스꺼움, 구토, 두통, 편두통, 부스럼, 궤양, 피부염, 심계증, 설사, 불안감 등 부정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2~3일 정도 가는데, 심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12개월씩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체의 긴장에서 오는 것일 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도 오줌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꾸준히 오줌요법을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줌요법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기적의 오줌 치료법'의 저자 아델만(Margie Adelman)과 바르네트(Beatrice Bartnett)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이라고 했다.

건강한 음식, 신선한 물, 일정한 육체노동, 명상 또는 기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가 말한 건강한 음식은 신선한 야채, 과일, 견과류(호도 등), 콩, 꿀이나 천연 당분, 아주 소량의 낙농물과 생선 등이다. 그리고 금해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 백설탕, 흰 쌀, 다량의 육류, 모든 산업제 화장품, 특히 탈취제 등이다.

오줌요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치료 사례는 의사 암스트롱 J. F의 '생명의 물(The Water of Life)'과 김정희·강국희 '오줌을 마시자'에서 일부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종양과 암

현대 사회의 3대 성인병에는 암, 심장병, 뇌졸중을 들 수 있다. 오줌요법은 이러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오줌에 함유된 인터페론은 부작용 없는 항암물질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통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하면 혈액 중 인터페론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1회에 1000만~3000만 단위의 인터페론을 투여한다. 하지만 이렇게 고단위의 인터페론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하루 동안 배출되는 오줌에는 인터페론이 150~200단위 정도 함유되어 있다. 때문에 오줌을 마신다는 것은 항암물질인 인터페론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오줌의 인터페론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

난치·불치병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암의 예방 약은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훌륭한 암 예방약이며, 모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훌륭한 생약이다.

의사 고 라바그리아티 박사는 오줌요법으로 암과 종양을 치료한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일 정통 의학치료를 받았다면 유방의 한 쪽이나 혹은 양쪽 모두를 절제했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여자들을 여러 명 진찰한 적이 있다. 수술을 하라는 내 충고를 거절했던 운이 좋은 여자들은 오줌요법을 하고 나서 불치의 악성종양을 앓은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흉터 하나 없이 다시 내 진찰실을 찾아왔다.”

- 60대 후반의 간호원은 악성 종양으로 10일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환자 자신의 오줌과 물만으로 열흘동안 단식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오줌을 자유롭게 마시도록 하고 하루에 한 끼씩 가벼운 식사를 처방했다. 종양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지만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과 정신상태는 놀라울 만큼 개선되었다. 따라서 종양 자체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

- R부인은 빈혈에다 한쪽 유방에 계란 크기의 멍울이 있었다. 고 라바그리아티 박사는 암으로 진단을 내리고 즉시 수술을 하라고 권했으나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다. 대신 하루에 1.4 리터의 오줌과 냉수를 마시며 단식을 했다. 그녀의 남편은 하루에 2시간씩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줌으로 전신 마사지를 해 주고 밤낮으로 양쪽 유방에 요습포를 해 주었다. 그랬더니 10일만에 증상이 치유되었다. 12일이 지난 후 다시 라바그리아티 박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유방에 아무런 이상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빈혈도 사라졌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 한 중년 부인의 겨드랑이 근처에 큼직한 종양이 생겼다. 두 사람의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환자는 수술 전에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영양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 부인의 딸은 자신이 요단식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여 수술할 때까지 요단식을 해 보도록 권유했다. 그 결과 5일만에 종양의 흔적이 없어졌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어긴 것에 분개했지만, 환자의 상태를 정밀 검진하고 나서 완전히 정상임을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잃었다.

- 28세의 한 청년은 의사로부터 앞으로 살 날이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

명은 식도암이 아니면 성병일 거라고 했을 뿐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줌요법으로 완치됐고 아직도 생존해 있다.

- 40세의 한 부인은 망상암이라고 하는 종양이 생겼다. 의사는 절제 수술을 강권하면서도 근치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다시 재발되어 퍼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단식 등으로 23일만에 완치되었을 뿐 아니라 더 젊어지고 예뻐졌다.

- 유방에 종양을 앓고 있던 젊은 여인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오줌과 물만으로 단식을 하고 요습포를 해보라고 권했다. 나흘째가 되니 종양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 종양이 악성이었는지 단순히 유선(□□)이 부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짧은 시간 내에 없어졌다.

2. 에이즈(AIDS)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방어기능이 상실되는 병으로서 피부염과 물집, 구강염, 식도염, 대상포진, 폐렴, 결핵 등의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는 불치의 병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그 모양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워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했다.

그런데 1999년 5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에서 오줌요법으로 에이즈를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임상사례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 26세 된 미혼의 K씨는 서울시내 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청년이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섹스에 빠져들다가 '에이즈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증상이 시작된 것은 1994년 3월이었다. 갑자기 맥이 빠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피곤을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자연히 섹스에 대한 욕구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점점 처량해 보이는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설사도 시작되었다.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에이즈 양성환자로 판명되었다. 눈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며칠 사이에 63kg이던 체중이 55kg으로 줄었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기에는 남은 나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문득 오줌을 마시면 만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책방에 가서 오줌요법에 관한 책을 구입해 단숨에 읽고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그것이 1994년 7월이었다. 오줌을 마시기 시작한 지 두 달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피곤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몸도

가벼워졌다. 나오는 오줌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기 시작한 것은 5개월만인 1994년 12월 7일이었다. 6개월 쯤부터는 심리적인 안정이 찾아오고 '나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체중도 원상 복귀되었다. 오줌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채식으로 식성을 바꾸고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다. 그러던 어느날 까맣던 피부가 점점 희어지더니 손톱, 발톱도 유난히 빨리 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힘없이 축축 늘어지던 다리도 달라져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995년 6월 25일 자신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 넣었던 그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기어이 음성판정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 병원의 치료 대신에 오줌요법을 선택한 내 친구의 에이즈 치료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나도 3년 동안 그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고, 내 생각으로 에이즈나 기타 질병에 오줌요법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 그의 병을 발견했을 때 몸도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오줌요법 실천 1년 후에는 확연하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겨울이면 항상 괴롭히던 급성폐렴도 재발하지 않았다. 오직 요단식과 면역자극제만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1996년 4월부터 자신의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11월에는 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3. 신장병

신장병은 신장의 고유기능인 노폐물 배설기능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간염이나 결핵, 당뇨나 동맥경화를 앓고 있거나 고혈압인 경우 그리고 약물을 수년간 복용할 경우에 발병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그 증상이나 경과가 완만하여 자가증상이 거의 없으며 만성 질환이 다 그렇듯이 잘 낫지 않는다.

신장병 질환이 생기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오줌에 거품, 피 등이 섞여 나온다. 그리고 배뇨시 통증이 있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있는데, 주로 낮에는 다리가 붓고 자고 난 아침에는 눈 언저리가 유독 많이 붓는다. 또한 안색이 창백하고 거무스름하며 배변습관이 불규칙적일 뿐 아니라 혀에 허옇게 백태가 끼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신장병은 남성보다 여성이 걸리기 쉬우며 특히 임신, 출산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장병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감염증에는 신우염이 있으며 통증이 따르는 것으로는 신결석, 요관결석 그리고 신염, 네프로제 등이 있다.

- 40대 초반의 한 부인은 이미 의사가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내린 상태였다. 호흡이 약간 곤란했고, 오줌의 양이 적는데다 걸쭉하고 피고름 같았다. 일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표본이었다. 그녀 키 또래의 여자에 비하면 그녀의 정상 체중은 65kg이었으나 내가 처음 왕진을 갔을 때 그녀의 체중은 127kg이었다. 의사의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고 괴로운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괴로운 증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주일 이내에 적어도 100배나 많은 오줌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흘만에 하루 57g이었던 배뇨량이 5,700g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냄새가 지독하고, 뜨겁고, 걸쭉하고, 탁하고, 찌거기가 많은 오줌이 맑은 빗물처럼 변해갔고 배설도 자유로워졌다.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몸의 구석구석에서 울혈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예언은 적중했다. 배설한 오줌을 다 마신 지 나흘이 지나자 그녀의 오줌은 무미, 무취하고 글자 그대로 타기(口棄)할 정도는 벗어났다. 48일째가 되니 환자는 훨씬 정상으로 호전되어 다음날부터는 그녀의 단식을 중지시키고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섭취하도록 했다. 불과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녀는 오줌요법으로 회복되었다.

- B 씨는 몇 년 동안 영양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실한 식사를 해 왔다. 그리고 대식가는 아니었지만 하루에 8잔의 차를 마시고 평균 25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그가 나에게 왔을 때 이미 두 사람의 의사에게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그의 체중은 129kg에서 190kg으로 증가했다. 마침내 그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49일간에 걸친 요단식을 하도록 했다. 고행의 단식을 시작한 지 나흘째부터 그는 거의 빗물과 같이 맑고 무미한 오줌을 배설했고 부기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없어지기 시작했다. 빈혈증도 있었는데 7주만에 없어졌다. 그의 체중은 지금 48kg이 되었고 모든 면에서 20년 전처럼 젊어 보였다.

- 60세의 한 노인은 2년간 의사에게 심장 치료를 받았는데 불행히도 부라이트병이 발생했다. 그 의사는 결국 포기를 하고 다른 전문의를 초빙해 진찰을 하도록 했다. 이때 그의 눈은 볼록 튀어 나왔고 혀는 몹시 부어서 입 밖으로 나와 있었으며 입술도 평소보다 3배나 부어 있었다. 그 전문의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이 환자를 떠맡았다. 5일 후에 이 환자는 23리터의 오줌을 배설하고 6주 후에 직장에 복귀했다. 말끔히 완치된 것이다.

4. 백혈병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세포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적혈구는 산소공급을 하며 혈소판은 상처가 생기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균과 싸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수명을 다한 세포들은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보충된다(조혈). 이러한 혈액세포들을 연속적으로 생성할 잠재력이 있는 세포들을 조혈모세포라고 부르는데, 조혈모세포들은 골수에 머물면서 평생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조혈모세포가 분화하고 증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악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백혈병이라 한다. 백혈병이 진행되게 되면 출혈이 심해지고 미약한 감염이나 손상에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어 치료를 하지 않으면 3~4개월만에 사망하게 된다. 백혈병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온 전신에 퍼지게 됨에 따라 폐, 신장, 비장, 간 등에 전이가 생기고,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백혈병은 임상적 경과와 악성화된 세포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임파구성백혈병, 만성 골수성백혈병, 만성임파구성백혈병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백혈병은 유전되는 병이 아니라 선천성 혹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성혈액질환이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있으나 실제로 어떤 환자 개개인에서 왜 백혈병이 생겼는지 알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 환자 P 씨는 48세로 일년 사이에 체중이 25kg이나 줄었는데 병원치료를 받고 나서는 몇 주만에 6kg이 더 빠졌다. 그는 의사로부터 그 질병이 희귀하고 항상 치명적이기는 하나, 심부 방사선 치료와 약물 투여, 여러 종류의 주사치료를 병행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도 병이 심하여 부축 없이 방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 나는 그를 진찰하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P 씨 당신의 증상은 의학적으로 백혈성 빈혈 또는 비성빈혈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앞으로 삼개월 밖에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병은 균형 잡히지 않은 편식과 변성 가공 식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단식과 오줌요법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줌요법의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P 씨는 엑스레이 치료로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불과 일주일 동안 요단식을 하고 그의 부인과 친구들에게 장시간 오줌 마사지를 받은 후 부축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경과가 호전되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치료의 필수과정을 빼놓지 않았다. 사실 그의 증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자 나는 그에게 시달려서 조건부 단식 중단에 동의해 주었다. 즉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내 지시에 따르고 오줌 마시기와 오줌마사지를 중단하지 않는다

는 조건이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의 식사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 토마토, 찐야채, 껍질째 찐 감자, 가공하지 않은 우유 그리고 꿀이었다. 이것들을 소량만 먹었다. 얼마 후 그는 생선과 고기 등을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요컨대 두 번씩 조리한 것은 제외한 잘 균형잡힌 식사를 허락 받은 것이다. 물론 자신의 오줌도 계속해서 마셨다.

내가 P 씨를 처음 본 날로 6주 후에 그는 다시 혈액검사를 받았다. 혈구수 측정에서 전에는 백혈구 수가 적혈구보다 55만 6천개나 많았는데 이번에는 1입방 밀리미터당 그 수가 반 이하로 줄었다. 그는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 일주일을 단위로 단식을 더 하겠다고 자청해 왔다. 그래서 6주 동안 단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검사에서는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 12주간에 걸친 모든 치료를 끝내자 마침내 건강이 회복되어 직장에도 복귀했다.

그러나 P 씨의 경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병은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 때문이라고 강력히 인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잘못된 식사습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가 어려운 고행을 끝내고 합리적인 식사를 계속한 2년 동안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병에서 회복된 지 6년만에 인플루엔자 약물 치료 도중 사망했다.

- 나의 옛날 학교 친구는 치명적인 비성 빈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 친구는 얼마동안 엑스레이 심부 치료를 받다가 내가 P 씨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요단식 치료를 받겠다고 찾아왔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의사들에게 끝까지 치료를 받다가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과학이 자연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의 치료술을 미혹시킨 것이다.

5. 심장병

심장병은 대개 알코올 중독에 동반해서 나타나는 심근의 질환으로 차츰 심근과 심장기능이 감소하여 나중에는 폐, 간 순환기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킬 정도로 심장병이 심해지면 심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움직일 때 숨이 짧아지며 발과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늘 피로하고 식욕, 성욕이 없어지며 거품이 많고 혈액이 섞인 가래와 기침이 난다.

심장병의 원인에는 비타민B1, 무기질, 특히 칼륨 같은 영양소의 결핍, 심장에 지방조직이 생겨 심근을 대치한 경우, 다른 질환으로 전분질이 침착되는 경우, 결핵성 각화증, 심한 빈혈, 혈색소증, 스트레스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근본 질환을 치료하지 못하면 심장병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 중년의 H씨는 심장 판막증 때문에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그는 빈번히 길에서 졸도를 해 항상 주머니 속에 약을 넣어 다녔고, 졸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표찰을 옷깃에 달고 다녔다. 그리고 일주일 중 5일간은 하루에 한 끼만이 허용된 식이요법을 하고 있었으며, 주말이 되면 물만으로 단식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깃연도 금지되고 약이라면 단지 발작증에 복용할 알약만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일년 동안 의사의 치료를 받고, 명치 부위에 수상한 혹을 찾아내기 위해 수술을 계획했다. 그가 내게 왔을 때 제일 먼저 그에게 권한 것은 자신의 오줌을 마시라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매우 악취가 나고 부어 올랐지만 곧 해소되었다. 나는 그에게 오줌으로 전신마사지 하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 내 오줌을 가지고 두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 주었다. 그러면서 신체중에 마사지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얼굴, 목, 그리고 발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깨끗한 온수로 씻어냈다. H씨는 매일 아침 마사지를 받으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내가 원하는 음식만 허용해 주었다. 한 달이 지나니 건강이 놀랄 만큼 좋아져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 12주 후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심장 판막증이나 명치에 수상한 혹이 있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의사는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오줌요법을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심장 발작을 보이지 않았고, 재발의 두려움이 거의 없어지자 약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 R씨는 전신 부종을 수반한 심장병 환자였다. 다리, 발, 복부가 크게 부어 올랐으며 심장도 상당히 팽창해 있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했다. 그래서 그는 치료를 받아 보려고 유명한 자연요법 요양소에 들어갔다. 그 곳에서의 치료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2주내에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자 퇴원을 하라고 종용받았다. 그때 R씨는 용기있는 자연요법가인 해로우의 O.워노크·필든 씨의 얘기를 들었다. 결국 이 자연요법가는 오줌요법으로 6주만에 그를 완치시켰다. 단식 기간 중 그의 체중은 76kg에서 50kg으로 줄었다. 물론 R 씨의 의사는 그가 완치된 것_ 을 보고 매우 놀랐다.

6. 열병

말라리아는 전염병의 하나로서 간헐적으로 열이 나고 추웠다 더웠다 반복하면서 땀을 흘리는 증상을 일으킨다. 약물학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말라리아는 혈액 속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때문에 발병한다고 한다. 말라리아의 골치 아픈 특징은 일단 한 번 걸리면 계속해서 재발한다는 점이다.

일반 의학의 치료법은 말라리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말라리아를 잠복시킬 뿐이다. 그러나 오줌요법은 말라리아를 완치시킨다. 현대 오줌요법의 아버지 암스트롱 J. F.는 지금까지 말라리아 환자를 요단식과 물만으로 치료하여 10일 만에 완치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디프테리아, 수두(口痘), 선홍열, 인플루엔자, 류머티스열 그리고 체온이 높이 올라가는 급성질환을 오줌요법으로 치료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운동가 타입의 Q씨는 매우 절제력이 있는 소식가였는데, 3년 전에 동양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다. 내가 그를 처음 보기 전에 1년 동안 36번이나 말라리아가 발병했다고 한다. 그는 규칙적으로 키니네를 복용하면서 오줌요법을 실천했다. 그 결과 10일간의 요단식으로 완치되어 더이상 키니네를 복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에도 말라리아는 재발하지 않았다. 그는 절제하는 생활과 꾸준히 오줌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 오래도록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다.

- 밀림의 오지에 사는 토착민들이 흑수열에 걸려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소령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소령에게 10일간 단식을 시키고, 습포를 붙이고 자신의 오줌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완치시켰다.

- 발병 당시 환자는 17세의 젊은 여인이었다.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 체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몹시 허약한 상태였다. 발병한 지 6일째, 그녀의 체온은 여전히 40도였고 급속도로 쇠약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 환자에게 냉수를 마시면서 요단식을 하도록 했다. 내가 치료를 시작한 지 24시간 후에 체온이 38도로 내렸고 걸쭉하고 악취가 나던 오줌이 더욱 맑아졌다. 3일이 되니 체온은 36도로 떨어졌고, 5일째는 35도가 되었다. 환자는 매우 생기가 넘쳤으며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후 몇 일만에 그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7. 상처와 화상

오줌에는 상처 치유능력이 뛰어난 알론탄인이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줌요법을 하면 통증이 심한 상처, 칼에 베인 상처, 욕창, 녹슨 못에 의한 상처, 가시에 찔린 상처, 악취를 풍기는 상처 및 중증의 상처까지 신속한 회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3~4일만에 치료되지만 약물 치료를 받았던 환자나 중증의 환자는 10~18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텍사스 템플의 의사 코튼 씨는 “나는 시험해 볼 목적으로 오줌요법을 실천했는데, 그 효과

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줌을 사용해서 상처와 화상부위를 치료하는 오줌요법을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글을 쓴 바 있다.

- 몇 년 전에 나는 사고로 발가락, 복사뼈 그리고 발이 심하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은 발 속을 비집고 들어가 아픔과 충격은 극에 달했다. 나는 의사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고 오줌요법에 들어갔다.

나흘 동안 단식을 하고 형겅에 오줌을 적셔서 환부에 습포를 붙였다. 습포에 계속 오줌을 적셔 습기를 유지하고 한 5일 정도 풀지 않았다. 마침내 습포를 떼어보니 치료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상처의 흔적이 모두 없어졌고 발이 튼튼해졌으며 나를 괴롭히던 발가락의 티눈도 사라졌다.

- 40대 초반의 한 남자는 팔의 앞 부분에 총상을 입어 매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일년 전에 그 총상을 입었는데, 여전히 낫지 않았고 상처의 크기가 세로 약 25cm, 가로 약 1cm나 되었으며 때로는 진무르고 굼기까지 했었다. 의사들은 그 상처가 결국 탈저(口口)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연고 등의 외용약을 발랐다. 정통 의학 치료에 넉달머리가 난 그 환자는 플레처 섭취법과 솔즈베리 요법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본 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상처는 낫지 않았다.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환자가 되었다.

내 조수는 우선 모든 외용약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상처 난 팔을 하루에 세 번씩 오줌으로 씻어내고 같은 오줌을 가지고 몸의 다른 부위를 오랫동안 맨손으로 마사지했다. 또 그에게 오줌과 냉수만으로 사흘 동안 단식을 하고 잠시동안 일광욕을 하라고 권유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처의 터진 자리는 아물었으나 가는 흉터가 조금 남았다. 요컨대 만 일년 동안 무익한 치료를 하고 오줌요법으로 단 10일만에 완치된 것이다.

- 죄수 한 명이 태형을 선고받아 채찍질로 불기를 심하게 맞았다. 함께 있던 동료 죄수가 오줌요법을 이용해 상처를 치료했다. 맞았던 상처부위가 곧 아물었고, 육신거리던 근육통도 해소되었다.

8. 비만

현대의학에서는 비만을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있다.

비만증은 섭취한 에너지 중 소비하고 남는 것이 지방질로 전환되어 인체의 여러 부분, 특히

피하조직이나 장간막에 축적되는 현상으로 표준체중의 2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비만 증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다른 대사 및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예방과 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에는 아무 고통없이 경과하나 비만이 장기간 고도에 달하면 각종 폐단이 나타난다. 순환기 계통으로는 심비대 등이 나타나고, 이어서 운동시 심계항진 호흡 곤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황격막 거상 등으로 호흡곤란에 이어서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등이 생기기 쉽다. 또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통풍, 월경 이상, 성욕 감퇴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연요법에서는 비만증이 많이 먹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의 배설이 잘 안되고 자연식품에서 얻어야 하는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비선의 부조화가 원인이라고 한다. 요단식은 피를 깨끗이 하고 부조화된 분비선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효력이 있다.

- 30세의 한 부인은 79kg이나 나가는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녀는 대식가는 아니었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하는 버릇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식이요법과 단식도 해 보았지만 단식이 끝난 후에 식사를 정상으로 시작하면 단식하기 전보다 더 빨리 체중이 불어났다. 그러던 중 오줌요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단식과 마사지를 곁선행했다. 그러자 14일 후에 체중이 64kg으로 감소했고, 균형적인 식이요법 덕택에 지금까지도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50세가 넘었지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나이 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듣고 있다.

-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할머니(73세)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지방간이 있어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 큰딸은 오줌요법 책을 읽어보고서 그것을 권했다. 김 할머니는 하루에 여러 차례 소변을 마셨는데, 두달 만에 배에 살이 쭉 빠지고 지방간도 없어졌다.

9. 고혈압과 뇌졸중

고혈압은 중풍,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성인병이다.

일반인들의 정상혈압은 139~89mmHg 범위이며 고혈압환자라 하면 혈압이 150~90mmHg 정도를 말한다. 이 환자들에게 오줌을 마시라고 하면 오줌의 염분이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오줌의 염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이다.

강하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오줌을 마실 때에는 수시로 혈압을 측정해 보면서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오줌요법을 하더라도 상태를 지켜보면서 약을 줄이다가 안전할 때 끊어야 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악성종양 및 심장질환과 함께 성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이다.

특히 젊은 성인에 비해 노인들에게 10~20배정도 많이 발생하여 65세 이상의 인구 중 5% 정도가 뇌혈관질환에 의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뇌졸중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그 예방과 치료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나라 인구 10만 명당 83.3명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식생활의 개선, 노령인구의 증가, 각 위험인자 치료의 미진함으로 인해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 각국에서의 뇌졸중의 발생빈도도 인구 10만 명당 연간 150~250명, 유병률은 800명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 달리 다수의 환자가 민간요법이나 한방치료에 의존하고 있어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나 생존율, 발생빈도의 추이를 검토하는데 정확한 역학연구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 일본의 노나가 씨(71)는 지난 3년간 고혈압과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사노병원의 원장으로부터 오줌요법을 권유받고 즉시 실천에 옮겼다. 그 전에는 혈압이 210mmHg~130mmHg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오줌요법을 시작한 후부터는 우선 어지럼증과 우울한 기분이 해소되었다. 그리고 두통이 사라지면서 눈도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많은 친구를 고혈압으로 잃었는데, 오줌요법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고 감사해 했다.

- 서울 영등포구의 신도림동 321번지 유임순(55세) 씨는 지난 1995년에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 그 후부터 계속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보고 동생이 오줌요법을 권했다. 그러나 왠지 꺼림직 해서 계속 거부하다가 몸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게 되었을 때 오줌요법을 시작했다.

이제는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어깨와 허리가 아프던 증상도 말끔히 해소되었다.

- 20대의 한 청년은 지난 12년 동안 뇌졸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사람들을 통해 좋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줌요법을 선택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고질적인 뇌졸중이 말끔히 회복되었다. 그는 아직도 오줌 마시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급작스런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S. 아스하벤 씨에게는 뇌졸중에 걸린 아들이 있었다. 저명한 의사들에게 검진을 받는 등

치료에 힘을 기울였으나 계속 악화되지만 할 뿐이었다. 여기 저기 수소문 끝에 아스하벤 씨는 아들에게 오줌요법 치료를 시작했다. 며칠 지나자 설사를 통해 체내에 쌓였던 모든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18cm나 되는 기생충도 빠져 나왔다. 뇌졸중 증세도 완전히 회복되어 의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10. 당뇨병

당뇨병이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으로 우리 신체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Insulin)이라는 호르몬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체내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여 혈액 속에 혈당이 많아지고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기원전부터 그 기록이 남아 있는 당뇨병은 18세기가 되어서 '단맛 나는 오줌이 많이 나오는 병'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 19세기 후반에 당뇨병이 췌장과 관계 있는 병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약 150만명의 당뇨병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와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 양상의 변화, 의학의 발달로 인한 조기진단,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운동량 부족을 초래하는 생활습관,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

-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교사 박 모 씨(35세)는 항상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자궁주변이 가려워 병원을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하루 1,400kcal의 식사와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했다. 15일 정도 지난 후에 350이었던 혈당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을 했다. 그러나 매일 24단위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오줌요법이 당뇨에 특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느니 치유만 된다면 오줌 그 이상도 못 먹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오줌요법을 시작했다. 오줌을 마시면서 매일 1,400kcal의 식사와 운동을 계속하니 체중도 줄고 인슐린의 단위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11월에는 24단위, 12월에는 18단위, 다음해 2월에는 4단위, 3월에는 인슐린이 필요 없게 되었다. 오줌을 마신 지 4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만큼 증상이 호전된 것이다. 건강도 찾고, 돈도 절약하고 금상첨화였다. 더구나 오줌요법을 충실히 하다 보니 음식에 대한 기호도 변해 야채를 좋아하게 되고, 소식을 생활화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괴롭히던 피로에서도 벗어나 어느 때 보다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 경기도 화성군 화성읍 342번지에 사는 최철기 씨(56세)는 약 10년 전에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서 거의 잊고 지냈다. 최근에 와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 드러눕는 시간이 많아졌다. 병원에 가보니 혈당 검사치가 400mg이상이나 나왔다. 담당의사는 요당이 +3이나 된다고 입원을 권유했다. 1개월 정도 입원해 병원치료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반으로 줄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300mg으로 올라가 있었다. 최씨는 '입원을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몹시 걱정스러웠다. 그러던 중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자신도 당뇨병이 있었는데 오줌요법으로 고쳤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최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당장 시도하려 했으나 오줌을 받아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다가 증세가 더 심해져 결국 50cc의 오줌을 받아서 마시게 되었다. 역겨운 것을 참고 20일 정도 마시니까 피로감과 권태감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리고 살이 많이 찐 편이어서 수영을 하며 오줌을 계속 마셨더니 체중이 70kg에서 54kg으로 줄어들었다. 혈당치도 190mg으로 내려가 담당의사가 무척 놀라워했다. 지금은 요당이 나오지 않고 혈당도 정상화되었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자각 증상도 모두 사라졌다.

11. 피부병

피부는 우리 눈에 항상 노출되므로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갖기 원한다.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부병 자체의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현대사회는 환경오염과 신체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부병의 발병 확률이 높은 편이다. 피부는 '내부장기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과적인 질환과 연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장기의 질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건강한 피부에는 약 1%의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져 갈라터지고 별겍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때문에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줌을 마시고 발라야 하는 것이다.

피부질환의 종류에는 크게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습진성 피부질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에 의한 피부감염증, 유전성 피부질환, 직업성 피부질환, 정신피부질환, 광과민성질환, 구진인설성 피부질환, 피부면역 질환, 피부 대사이상증, 피부의 양성 및 악성 종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 60세의 한 노인은 마른버짐이 생겨 일주일 동안 오줌과 물만으로 단식을 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1주일간 단식을 하고 하루에 세 번씩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오줌으로 마사지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완치되었다.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전신에 수포가 생겼다. 아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연히 오줌요법을 전해 듣고 매일 전신에 오줌 습포를 해주었더니 20일만에 치유되었다.

- 모회사의 여사원 K씨는 사춘기시절부터 여드름 때문에 고민해 왔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얼굴에 덕지덕지 나 있는 붉은 여드름은 그녀의 자신감까지 무너뜨렸다. 수시로 피부과를 다니며 거액의 돈을 털어 넣어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K씨는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오줌요법을 시작하게 됐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확실하게 차도가 보였다. 주변친구들이 비법을 물어왔지만 차마 오줌을 마신다는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다.

- 부산 서대신동에 사는 김석대(53세)씨는 알레르기 체질로 인한 두드러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려워 피가 나도록 긁었더니 원인 모를 피부병까지 생겼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2년 10개월만에 거의 90%가 완치되었다.

- 봄베이 홍차 공장의 대리점 지배인이었던 S. 라시크랄바이 씨에게는 손가락 습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수개월 동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오줌요법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2주만에 손가락에 걸린 습진이 모두 치료되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 모씨(70)는 지난 20년 동안 여름만 되면 습진으로 양쪽 다리가 별경게 되었다. 서울시내 유명한 피부과는 다 다녀왔을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쉽게 낫지 않았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1년 후부터는 여름에도 습진이 재발되지 않았다. 이 씨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 지금부터 20여 년 전,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전신에 나병이 번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머리와 얼굴, 흉부, 복부, 손, 발 등에 크고 작은 반점들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어디에선가 오줌요법에 관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오줌을 마시자 얼마 후에 눈병이 사라졌고, 오줌마사지를 한 다음에는 나병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체계적으로 오줌을 마시고 마사지를 병행했다. 팔뚝과 다리에 약간의 반점들이 계속 나타나긴 했지만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았다.

-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배 모씨(42)는 지난 5년간 줄기차게 나는 종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때로는 고름이 가득 찬 종기가 전신에 돋았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입원도 해 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오줌요법을 알게 되었다. 두 달간 매일 두 번씩 오줌을 마시고 종기가 난 환부에 오줌습포를 해주었다. 그리고 8일간 요단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완치되었다.

12. 탈모증

정상인의 모발은 평생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자라다가 빠지고 다시 새로운 주기(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시작한다. 누구나 머리를 감을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있으면 놀라게 되는데, 보통 10만 개 정도의 모발 중 하루에 20개에서 50개 정도가 빠지는 것은 정상이라고 한다.

탈모의 원인으로는 대머리가 가장 흔한 경우이며 그밖에 원형 탈모증, 휴지기 및 생장기 탈모증, 내분비질환, 외상, 감염, 홍반성 루프스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는 약물요법은 없으나 미녹시딜 용액의 도포나 안드로겐의 영향을 억제하는 약제 등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약물요법은 장기간 사용해야 하고 일부분에서만 효과를 보이며 끊을 경우 다시 재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오줌요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줌으로 머리를 감고 마사지를 해주면 탈모 증상이 없어질 뿐 아니라 머리카락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꾸준히 하면 머리카락이 새로 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60세의 한 노인은 탈모 해소에도 오줌요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에 옮겼다. 매일 오줌을 마시면서 머리에 오줌을 발랐는데, 더 이상 탈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얗던 머리카락도 차츰 검은 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 대영제국령의 정부 관리였던 비나 파니카 씨는 두통과 탈모 증세로 고민이 많았다. 우를리 칸찬에 위치한 자연요법 요양소를 찾아가 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좋아지는 것 같았으나 이내 두통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한 달만에 두통과 탈모 증상이 사라졌고 또한 잡다한 질병들까지 해소되었다.

- 마산에서 상업을 하는 김 진해 씨(37세)는 몇 년 전부터 머리가 빠져 아침에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숨이 폭폭 나왔다. 그는 노총각인데다가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어느 날인가 야채를 사로 온 한 아주머니에게서 오줌요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줌으로 머리를 감고, 마사지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머리가 빠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두피를 비집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다.

13. 기타 잡병

1) 성병

성병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균을 얼어 죽게 하는 방법으로 성병을 치료하기 위해 냉수만으로 단식을 했다. 11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보니 증상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에 고 박스터 씨의 소책자 중 하나를 읽게 되었다. 그는 단식을 계속하면서 오줌요법을 실천했다. 10일이 지나니 성병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마른버짐도 크게 호전되었다. 그는 피부에서 흔적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요단식을 하기로 결심하고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 모든 증상들이 회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이 몇 년 전보다도 더 민감해졌다.

2) 야뇨증

아홉 살 된 한 소년은 어릴 적 내내 야뇨증으로 고생을 하여 전문의들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몸만 여위어 갈 뿐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11일간 요단식을 했는데 놀랍게도 완치되었다.

3) 신장염

한 여인이 신장염에 걸려 괴로운 증상을 호소하며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의사 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환자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며 크리스마스까지도 살지 어렵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그녀가 오줌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그녀의 오줌을 마시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오줌과 냉수만으로 30일간 단식을 하며 매일 건강한 오줌으로 마사지를 하고 나서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게 됐다.

4) 월경불순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월경 기간이 너무 길고 주기가 짧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처음에 그녀는 대증요법을 해보았는데 효험이 없어 다시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역시

부분적인 차도만 보였을 뿐 육체적으로는 더 허약해지고 마음의 안정도 잃어갔다. 그녀는 월경이 2주나 계속되는 동안 오줌요법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비록 처음에는 오줌에 월경의 피가 많이 섞여 나왔지만 꼭 참고 용기있게 마셨다. 단식 기간 중에는 매일 1~2리터의 냉수를 마셨다. 3일이 지나자 오줌은 정상이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28일간 단식을 했고 매일 서너 시간씩 건강한 사람의 오줌으로 마사지를 했다. 그 후 이 환자는 월경불순뿐 아니라 오래된 비(疝)카타르와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증상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다.

5) 점액성대장염

한 소년(6세)은 뚜렷한 병적 증상이 없는데도 대변에 점액이 자주 섞여 나왔다. 그 소년은 요단식을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지자마자 단식을 그만두기가 마음에 걸려 나흘 동안 단식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소년의 어머니와 이모에게도 똑같은 대장염 증상이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은 증상이 5일도 안되어 호전되었지만 8일간 단식을 계속했다.

6) 전립선 비대증

나이 든 한 신사는 언제부터인가 배뇨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고통을 호소하자 한 친구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오줌을 마셔 보라고 충고했다. 이것은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 달 후에 전립선 비대증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7) 두통

아메다바드에 사는 다홀니 풀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아오는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 급기야 두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의 권유로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되었다. 첫날은 구토를 했지만 3일 동안 오줌을 계속 마신 후에는 만성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8) 치통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 모씨는 오줌요법의 적극적인 신봉자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치통이 찾아왔다. 오줌으로 가글링을 시작한 지 20분만에 치통이 가라앉았고, 3일 후에는 치통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김 씨는 오줌이 진통제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극찬했다.

9) 치조농루

그는 치과의사로부터 치조농루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전에 오줌요법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치과의사에게 말하지 않고 매일 자신의 오줌을 마시고 오줌으로 양

치질을 했다. 놀랍게도 9주만에 치조농루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의사는 치조농루가 치료될 정도로 그의 건강상태가 좋아진 이유를 궁금해 했다.

10) 콧병

대구에 사는 황인상(76세) 씨는 7년 동안이나 콧병으로 고생했다. 가끔씩 코에서 진한 액체와 피가 흘러나왔고 열을 동반한 통증도 있었다. 그는 콧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줌요법에 들어갔다. 하루 두세 번 오줌을 코로 흡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되었다.

11) 귀 질환

마헨드라 V. 미스트리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개월 동안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의사들의 치료로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오줌요법을 시작했다. 약 180cc의 오줌을 하루에 두세 번 마시고 따뜻하게 데운 오래 묵힌 오줌으로 전신을 마사지했다. 그리고 귀에 몇 방울씩 넣어 주었는데, 보름이 채 안되어 완치되었다.

12) 황달

황달 환자의 경우 요단식을 하면 이틀에서 사흘 만에 피부가 누렇게 변색되던 것이 차츰 없어진다. 단식의 고행을 계속하다 보면 놀랍게도 피부 색깔이 생기 있고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다. 간암이 아니라면 이 증세를 치료하는 데 보통 10일이면 충분하다.

13) 녹내장

녹내장은 수술로 완치되기 어려운 아주 심각한 질환이다. 병원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녹내장 환자들은 대략 한 달 정도의 요단식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반대로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14) 백내장

보통 10일간의 요단식이면 눈을 가리고 있는 흐릿한 피막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길어야 28일이었다. 백내장은 몸에서 따로 떨어진 별개의 병이 아니다. 눈도 신체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다른 증상 때문에 몸 전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국부 질환은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도 저절로 낫는 수가 있다.

15) 류머티즘

류머티즘의 경우 대략 10일 내지 12일간의 요단식으로 대부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증

상이 가벼운 환자라면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의 단식으로도 좋은 반응을 보인다. 요단식은 요 마사지와 요습포를 병행해야 한다. 다 나은 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식사를 균형 잡힌 식이요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16) 기관지 천식

37세의 한 남자는 14세부터 앓아온 기관지 천식 때문에 해군에서 제대를 했다. 험한 바다 생활이 그의 병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았다. 그는 분무약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 밤 적어도 네 번 정도는 일어나야 했고, 분무약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다. 그는 3개월 동안 하루에 1.7리터 내지 2.3리터 정도의 오줌을 마시고 두 번에 걸쳐 각각 36시간과 40시간의 요단식을 했다. 그 결과 병에 대한 걱정이 모두 없어졌고 건강도 상당히 좋아졌다.

17) 신장질환

G 씨는 오른쪽 신장의 절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며 오줌 색깔은 피 색깔이었고 엑스레이 사진에는 신장의 골속에 커다란 결석이 생겼다. 의사는 신장이 망가져서 절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G 씨는 수술을 거부하고 오줌요법을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오줌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한 번에 몇 일씩 반복해서 요단식을 했다. 그러자 몇 주만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고, 오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3개월 후에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신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18) 류머티열

한 여성이 유행성 독감과 류머티열로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집안에서 앓았다. 엉덩이, 다리, 발목이 계속 부어 올랐지만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만에 모두 완치되어 다시 직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

19) 관절염

관절염은 대부분 뼈 속에 이물질이 침전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매우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오줌을 마시고 마사지를 해주면 12일에서 40일 내에 치료된다.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요단식이다. 단 10일이면 완전히 치유시킬 수 있다. 물론 질병이 심화되어 환자가 지체장애를 동반한 불구 상태라면 완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 약물의 과용

한 부인은 남편이 아편(□□)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절망하여 남편이 비운 사이 30g의 아편을 물에 타 마셨다. 그 결과 부인은 30분만에 졸도했다. 놀란 남편은 아내의 입 안에 오줌을 부어 넣었다. 그렇게 밤새 오줌을 마시게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부인은 의식을 되찾았다. 오줌이 부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21) 변비

서울 마포에 사는 한 여성(디자이너, 27세)은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다가 변비가 생겼다. 식사를 극도로 줄이고 체중에 신경을 쓴 탓인지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시원하게 변을 보고 있으며 온 몸에 활력을 되찾았다. 뿐만 아니라 얼굴 피부까지 좋아져 주위사람들로부터 예뻐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22) 발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주 모씨(54)는 3년이 넘도록 양쪽 팔에 돌아나는 발진으로 애를 태웠다. 여러 가지 연고와 물약을 다 발라 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침내 주변사람의 권유로 매일 밤 팔에 오줌을 발랐더니 얼마 안되어 발진이 사라졌다.

23) 눈병

충남 당진에 사는 한 숙자 씨(52)는 요즘 저녁마다 눈에 오줌을 바르고 있다. 그 동네에 눈병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한 씨는 이웃의 아주머니가 눈병에 걸렸다면 오줌을 바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더욱 놀란 것은 며칠 만에 눈병이 없어진 것이다. 그 아주머니는 한 씨에게 눈병을 예방하려면 빨리 오줌을 바르라고 권유했다. 한 씨는 오줌을 바른 탓인지 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24) 냉증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은 모씨(37)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잔병치레가 많았다. 아이를 둔 후에는 배와 무릎이 차고 발이 시려워 항상 옷을 두껍게 입고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시작한 다음에는 배와 무릎이 따뜻해지고 발이 더워져서 밤에 이불을 덮지 않아도 잘 수 있었다.

25) 혈액순환 장애

40세의 한 여성은 날씨에 관계없이 양손이 파랗게 변하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었다. 의사의 권유로 수술도 받았으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결국 의사들은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될 가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환자의 양손은 고름이 가득 찼고, 탈저가 생겨 축축해졌다. 양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할만큼 절박한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줌요법을 병행했다. 소량의 오줌을 마시고 요습포, 찜질 등을 하고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살균연고를 발랐다. 그러나 별다른 차도가 없어 오줌과 물만으로 3주간 단식을 했다. 2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양손을 사용하게 되었고,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줌이 약물로 찌들고 불순물로 가득 찬 환자의 병든 혈액조직을 말끔이 씻어냈던 것이다.

2장 오줌요법을 거부감없이 실천하는 방법

누구에게든 어떤 특정한 것의 맛이나 냄새가 특별히 싫게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해장국에 들어가는 선지 맛을 유독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국장 냄새에 질겁하기도 한다. 이처럼 맛과 냄새는 자라오면서 몸에 밴 습관 같은 것이다. 오줌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더럽고 불쾌한 것으로 습관처럼 생각하다 보니, 오줌을 마신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일반 의약품을 먹거나 몸에 바를 때는 좀 역겨운 맛이나 냄새가 나더라도 기꺼이 수용하고 있지 않은가. 오줌요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청결한 오줌을 마시는 것이다. 뱉어 버리고 나면 더럽게 느껴지는 침도 항상 입안에 품고 있는데, 하물며 건강을 위해 오줌을 마시는 것이 왜 불결하다는 것인가.

오줌은 혈액이 여과되어 나오는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종합적인 생약이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은 매일 두세 차례 이상 마시는 것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소량 정도만 마셔도 큰 도움이 된다.

병원의 약을 함께 복용한 후 '오줌에 약이 섞이지는 않았을까'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은 이미 몸 안에 상당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소화된 상태이므로 오줌으로 나왔을 때는 약 성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단, 고혈압인 사람이 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오줌요법을 실시하면 약과의 상승작용으로 혈압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있으므로 마시는 양을 50cc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다음은 오줌을 이용한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다.

오줌 마시기

오줌요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자신의 병이 낫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큰 효험을 볼 수 없다. 자신의 오줌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오줌을 마실 때는 범어 교전(敎圓)에 '처음과 마지막 오줌에는 몸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 숨어 있다'는 기록이 있듯이 처음 오줌과 마지막 오줌은 버리고 중간 것을 받아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아침 첫 오줌은 유용한 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사람이 하루 동안 배설하는 오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오줌을 받는 용기는 플라스틱 소재보다 유리컵이나 도자기가 더 좋다.

처음 마시는 양은 50cc 정도(소주 1잔)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150~200cc 정도(맥주잔 1컵)로 늘린다. 건강한 사람이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는 매일 한번 아침 첫 오줌을 마시면 된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침 첫 번째 오줌을 포함하여 여러 번 마실수록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비위가 약해 오줌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사람은 한동안 우유, 커피나 주스를 타서 마시다가 차츰 바꾸어나가도 무방하다. 그리고 수용성 프로폴리스나 포도즙을 타서 마시면 오줌냄새도 사라지고 상승작용으로 인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줌에 바이오미네랄수를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줌마사지

오줌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해 오줌으로 마사지를 하면 파괴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다. 오줌마사지는 오줌단식을 하는 동안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오줌요법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치료법이다.

오줌을 받아 마신 후 그 나머지 양을 손바닥에 묻혀 얼굴, 목, 머리, 발 등 온몸을 문지르고 20분 정도 있다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되는데, 적어도 4일 이상 묵힌 오줌이 더 효과적이다. 오줌 자체에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오줌을 담아둔 병 안에 세균이 번식할 염려는 없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오줌 병을 담궜다가 알맞게 데워지면 손바닥에 묻혀 이마부터 얼굴 전체를 마사지해 가는 것이 좋다. 양손은 심장을 향하여 움직이고 머리에서 아랫부분으로, 발끝에서 윗부분을 향해 마사지한다.

오줌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는 되도록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한다.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오줌 마사지를 해 주면 전신에 쌓여 있던 독소가 제거되어 비타민, 호르몬, 효소 등의 영양분이 신체 곳곳에 공급된다.

오줌 관장

오줌 관장은 오줌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방법이다. 오줌을 항문에 넣으면 오줌이 창자 안에 고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입으로 마시는 경우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는 아주 소량(5~10cc)의 오줌으로 충분하며, 여기에 수용성 프로폴리스나 유산균을 섞어서 관장을 해도 좋다. 이 방법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치질환자이다. 실제로 치질, 탈홍, 치루 등 중증 환자들의 항문에 오줌을 넣어 치료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었다. 오줌을 넣을 때는 관장기나 주사기를 사용하면 된다. 자신의 오줌이야말로 최고의 관장약이다.

오줌 금식

오줌 금식이란 식사를 하지 않고 명상과 함께 오줌과 생수만을 마시는 방법이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의 금식으로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몸 안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도 좋다. 1년에 세 번씩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해 주면 관절, 근육부분의 노폐물까지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 금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혼자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지는 것이 최선이다.

금식 방법의 예를 들자면, 7일간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금식(감식기간) 7일, 본금식 7일, 보식기간(증식기간) 7일로 총 21일간 음식조절을 해야 한다. 예비금식 기간에는 차츰 묽은 죽으로 밥의 양을 줄여 나가고, 보식기간에는 그 반대로 서서히 밥의 양을 늘여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때 음식조절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오줌을 만드는 방법

맛이 좋은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수시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면 오줌이 맑고 묽어져서 마시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육고기 보다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러면 오줌에서 투명한 연두빛이 나고 냄새가 거의 없어지며 맛이 부드러워진다.

3장 오줌요법으로 난·불치병을 고친 사람들

1. 신광수 선생의 오줌요법 체험담

무기수로서 15년 동안의 수형생활 중에 오줌요법으로 건강을 회복

생년월일 : 1929년 6월 27일

출생지 : 일본 시즈호카현 하마마쓰시

본적 : 경남 양산군 하북면 하북리

오줌요법을 실시하게 된 배경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병이 많은 편이었지만 비교적 의료조건이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기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신수로 교도소에서 생활한 후부터는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의 의무과는 사회의 병원에 비해서 시설이 빈약한 데다가 환자가 무척 많아서 몇 번이나 아픈 증세를 얘기하고 대책을 호소했는데도 만족스러운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무기수는 다시 말해 종신수로서 생을 마칠 때까지 감옥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수명대로 다 살려면 무엇보다도 건강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데, 감옥이라는 곳은 섭취하는 영양이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까지 쌓이기 때문에 수감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병은 물론, 새로운 질병들까지 얻기가 십상입니다. 저 또한 만성기관지염, 심한 천식, 만성건습진, 축농증, 극심한 위염, 만성대장염, 치질, 구강병, 귀고막 파열, 알레르기성 체질, 냉병, 변비증 등 많은 질환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공안 사범인 손유형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교도소에서 암에 걸려 가족(일본 거주)들이 보내온 '왁친'을 비롯한 온갖 고가의 약들을 다 복용해 봤지만 오히려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중 일본의 대중 건강잡지에서 나카오 박사가 쓴 '오줌요법'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오줌요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줌에 해가 없으니 밀쳐야 본전이다. 한 번 해보자'하며 시작한 것이 몇 달 후에는 놀랍게도 암 증세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가족에게 오줌요법에 관한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실천한 지가 벌써 8년

이상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분이 난치병을 고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도 오줌요법으로 치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2년 8월 8일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혼거방에서는 오줌요법을 싫어하거나 마구 시비를 거는 사람까지 있어 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살짝 음뇨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0.75평의 극히 좁은 독거(獨居)감방에서 혼자 생활을 했으므로 타인의 간섭없이 마음놓고 오줌요법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오줌요법의 시행 단계

첫번째 단계 - 오줌 마시기 (1992.8~1993.3 전주교도소)

처음에는 약 6개월 정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온 오줌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줌의 양을 늘려 지금은 새벽에 나오는 오줌(2컵 정도)을 다 마시고 있습니다.

오줌을 마실 때도 한꺼번에 사이다 마시듯 꿀꺽 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모금씩 입안에 넣어서 37~38까지 숫자를 센 다음 조금씩 타액과 혼합된 상태의 오줌을 만들어 삼켰습니다. 맨 마지막 한 모금은 신문 등을 보면서 그냥 입안에 품고 있다가 30~40분 후에 조금씩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취침 30분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컵씩 마셨고, 자다가 밤 중에 나오는 오줌도 받아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후부터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증세가 완화되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가 차서 항상 복대를 하고 다녔는데, 오줌을 마신 후부터는 복대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두번째 단계 - 눈, 코, 음경, 항문 세척 (1993.3~1993.12 전주교도소)

1993년 3월부터는 오줌을 마시면서 눈, 코, 음경, 항문 등도 오줌으로 세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오줌을 마신 다음 1시간 30분 후에 대변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오줌을 넓적한 사기나 유리 대접에 받아서 잠시 옆에 놓아두었다가 대변을 다 본 다음(여기서는 사기, 유리그릇이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릇을 씁니다) 미리 받아둔 오줌 그릇을 손에 들고, 오른 쪽 눈에 갖다 대어 눈을 그 속에 담갔습니다. 오줌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37~38회 상하좌우로 굴린 다음, 또 그 오줌 그릇을 왼쪽 눈에 갖다 대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처음에는 눈 안이 약간 쓰렸지만 습관이 되면서 점차 괜찮아졌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적신 양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릇 속의 오줌의 양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눈세척이 끝난 다음에는 그 오줌 그릇을 콧구멍 밑에 갖다 대어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식으로 30회 정도 반복하여 코 안 깊숙한 데까지 깨끗이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6회 정도 또 오줌을 콧구멍으로 들이마셔 입으로 뱉어내고, 마지막에 또 한번 입으로 넘여가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마음껏 들이마신 다음에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오줌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면서 약 5~7분 정도 입으로만 숨쉬었습니다. 그러자 코 안 벽에 달라붙었던 코딱지와 고름 등 불순 물질들이 오줌의 힘에 의해 다 용해되어 코를 풀 때 밖으로 쉽게 배출되었습니다. 이때 억지로 코를 풀지 않고 입으로 숨쉬던 것을 코로 쉬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진한 콧물이 흘러 내려오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손을 안 대고 그냥 코로 크게 숨을 내뿔으면서 코를 푸는 식으로 했더니 코 안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코 안을 세척한 다음에도 그릇에는 오줌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오줌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른 그릇에 옮겨놓았다가 대변을 다 본 다음 항문을 닦은 후 남은 그 오줌으로 먼저 귀두(龜頭)의 겹질 안과 마디를 비롯한 음경 전체를 마사지하는 식으로 깨끗이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오줌 그릇을 항문 밑에 갖다 댄 다음 힘을 주어 항문을 크게 벌리고, 가장 긴 손가락에 오줌을 듬뿍 묻혀 항문 안 깊숙이(손가락이 쑥 들어가서 쭈글쭈글한 것이 닿는 곳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언제나 손이 깨끗해야 하며 특히 손톱을 늘 잘 관리해 항문 안의 점막피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오줌으로 항문 바깥 주변과 고환 주변을 마사지하는 식으로 세척했습니다.

이렇게 눈, 코, 음경, 항문에 오줌을 넣고 세척하고, 오줌의 영양소가 다 흡수되어 피부가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물(될 수 있는 한 더운 물은 쓰지 않습니다)로 얼굴과 음부, 그리고 항문 주변 전체를 깨끗이 씻어내어 마른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이 시기에 기관지염, 천식, 축농증, 비염 등 여러 가지 잡병이 나왔습니다.

세번째 단계 - 오줌 마사지와 오줌 습포 (1993.5~ 전주, 광주, 서울교도소)

1993년 5월경부터 매일 운동이 끝난 다음, 온몸을 오래된 오줌으로 마사지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좋지 않은 부위는 오줌 습포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마시는 오줌과 아침에 대변을 볼 때 따로 받아서 눈, 코, 음부, 항문에 넣는데 사용하는 오줌 외에는 모두 요강에 받아두었다가 적어도 5~7일 이상 묵혀서 농도가 진한 오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나 사기그릇을 구할 수 없어 플라스틱으로 된 마요네즈통 몇 개를 구해서 요강 대신으로 썼습니다.

먼저 양 손바닥에 오래된 오줌을 듬뿍 묻혀, 머리, 얼굴, 귀, 목 순서로 마사지했습니다. 농

도가 진한 오래된 오줌은 눈 안이나 코 안,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면 몹시 쓰라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 코, 입에는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만, 귀 안에는 얼마든지 넣어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난청이나, 고막이 파열된 분은 오래된 오줌을 직접 귀에 넣어 손으로 귀를 막고 귀 전체를 50회 이상 비비는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양팔과 앞뒤 동체 부위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했는데, 특히 앞부분(배, 배꼽, 가슴, 겨드랑이)을 더욱 정성껏 150회 정도 마사지하고, 나머지 부위는 37~38회 정도 마사지를 했습니다. 하체 부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아침에 농도가 연한 오줌으로 약간 씻었지만, 운동 후 땀이 많이 나서 다시 한번 농도가 진한 오줌으로 음부 주변과 항문 주변 등 다리 가랑이 부위 전반을 50회 이상 마사지했습니다. 만약 다리 관절염이나 다리 신경통, 허리병 등이 있는 분은 그 부위를 열심히 마사지하고 요습포까지 해주면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오줌에 두 발을 한꺼번에 담가 두 손으로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 전체, 특히 오목 들어간 부위를 150회 정도 마사지를 하고는 그냥 푹 담가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줌이 듬뿍 묻었던 머리카락도 꾸덕꾸덕해지고, 얼굴과 몸 전체의 피부에 묻었던 오줌도 다 말라 모든 피부가 마치 보디빌더들의 윤기나는 피부처럼 번들번들 윤기가 날 정도가 되었을 때 찬물(겨울철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거울을 보았더니 오줌의 냄새만 없어졌을 뿐 피부의 윤택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한층 더 건강해 보였으며 기분도 매우 상쾌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귀고막 파열이 정상으로 고쳐졌고 치질, 만성기관지염, 만성 천식 등이 완치되었습니다.

신체별 증상과 치료 효과

머리 부위 - 비듬 없어지고 백발 검어져

저는 젊었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고 흰머리가 유난히 많아 거의 백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비듬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자주 비누나 샴푸로 머리를 감고 비듬 약을 바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잘 낫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너무 가려워서 자주 머리를 긁었기 때문에 심한 부위는 늘 딱지가 생겼고 긁으면 피까지 나는 바람에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농도가 진한(7일 이상 된) 오줌으로 1년 정도 정성껏 마사지(머리 감는 식으로)를 하다보니 저절로 완치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머리 뒤 부위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듬이 없어져 전혀 가렵지 않을뿐더러 신기하게도 완전 백발이던 것이 다소 검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 부위 - 눈병 해소되고 시력 좋아져

저는 어릴 때부터 눈병(결막염과 트라코마 등)에 자주 걸렸고, 65세쯤 되었을 때는 갑자기 백내장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력도 점점 나빠져 매년 시력 검사를 통해 도수가 한 단계씩 높은 안경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줌을 마시고 매일 눈을 씻었더니 1년 후에는 눈병이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몸은 늙어가도 눈은 언제나 맑고 환해 지금은 1985년에 썼던 안경을 그대로 쓰고도 잘 보입니다.

귀 부위 - 파열된 고막 생성

1948년 겨울, 학생운동 당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좌익 신문을 배달하지 못하도록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7일 정도 묵은 오줌으로 귀를 마사지하면서 그 안에 매일 오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2년반 만에 오른쪽 귀가 갑자기 중이염에 걸린 것처럼 아프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 교도소 의무과에 가봤습니다.

의무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염증도 전혀 없는데 고막 한복판이 빨갛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 귀의 고막이 46년 전에 파열되어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몇 번이고 반문하다가, '아! 드디어 오줌요법에 의해 새 고막이 생겨났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2~3일이 지나니 저절로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은 양쪽 귀의 고막이 완전해졌으므로 그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코 부위 - 축농증, 비염 치유

저는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 성장한 탓인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축농증과 비염이 심했습니다. 언제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팠으며 기억력에도 많은 지장을 끼쳐 학과 공부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약물로만 치료를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부터 매일 오줌을 마시고 동시에 연한 오줌으로 귀를 꾸준히 세척한 결과, 약 2년만에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축농증으로 인한 두통이 말끔히 없어졌고, 기억력도 젊었을 때 이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치아 부위 - 치조농루와 구취 제거

어릴 때부터 가난하여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구강 위생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때문에 충치가 많았고 잇몸에 고름이 생겨 치아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심했던 것이 치조농루와 구취였는데, 매일 새벽에 나오는 첫 오줌과 취침 30분전의 오줌, 그리고 자다가 나오는 밤중의 오줌을 계속 꾸준히 마셨더니 완치되었습니다.

오줌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잠시 입안에 품었다가 서서히 삼키며, 마지막 한 모금의 오줌은 1시간 이상 입안에 품고 있다가 오줌 안의 주요 성분이 입안의 모든 점막으로 다 흡수되어 맹물처럼 된 다음에 조금씩 서서히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치조농루가 심할 때는 손으로 고름을 짜낸 다음 연한 오줌으로 입안을 가셔내곤 했습니다. 보통 틀니를 새로 하면, 치과의원에서 몇 번 씹어보고 수정해서, 다 맞았다고 한 것도 실제로 처음에 밥 먹을 때는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잇몸과 닿는 곳을 따라가면서 꺾다보면 나중에는 본래의 틀니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의 치료대 위에서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잘 맞습니다!'라고 말한 이상, 그 후 실제로 밥을 여러 번 씹다가 잇몸의 점막상피질 부위가 다소 상처가 나서 벗겨져도 매번 틀니를 꺾아내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 연한 오줌을 손으로 바르면서 입안에 오줌을 장시간 물고 있다가 맨 나중에 양치질하는 식으로 세척해 상처를 빨리 아물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틀니를 끼고 밥을 씹어보니 1차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한참 지나니 또 아파서 틀니를 벗겨내고 오줌으로 치료하여 다 아문 다음 다시 틀니를 끼고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5~6회 반복하여 오줌치료를 계속 한 결과 1개월 후에는 상처 난 잇몸이 완치되었고, 그 자리에 굳은 살이 생겨 틀니를 끼고 아무리 오랫동안 음식물을 씹어도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산범이다 보니 좀 무리한 경우를 당해 혀가 끊어질 정도의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짠 것, 매운 것들이 들어가면 몹시 아려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취침 전에 오줌을 마실 때마다 그냥 단번에 마시지 않고 한 모금씩 입안에 잠시 품었다가 천천히 삼키며, 맨 나중의 한 모금은 30분~1시간 동안 입안에 오래 품었다가 삼키곤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약 4년간 지속하였더니 모두 완치되어 이제는 맵고 짠 김치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 부위 - 피부병과 가려움증 해소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피고, 좀 피곤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면 입술 주변이 터지거나 부스럼이 생기곤 했습니다. 보통 10일 정도가 지나도 낫지 않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오줌을 마시고 얼굴에 오줌마사지(농도가 진한)를 계속 했더니 약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이면 얼굴 피부가 약한 탓에 귀와 코끝이 항상 빨갛게 얼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오줌의 힘으로 다스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오줌을 마시는 것만으로 피부가 눈에 띄게 고와 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비누로 세수하는 대신 오줌으로 세수를 하고 밤에 잘 때 울무가루에 오줌을 섞어서 오줌팩을 하면 피부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오줌을 마시는 것 외에도 매일 아침마다 깨끗한(연한) 오줌으로 눈, 코, 귀를 세척하면서 남은 오줌으로 얼굴도 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해 오후에 운동을 하고 나서 전신을 마사지할 때, 오래된 오줌으로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을 오랜 시간 손으로 비비면서 마사지를 다소 심하게 하고 난 다음, 얼굴만 따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오줌 속에 오랫동안 담그는 방법으로 얼굴 피부를 단련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1년 이상 된 아주 독한 오줌 속에 얼굴을 담갔더니 피부가 헐어 껍질이 벗겨지고 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습니다만, 피폭자 등 방사선에 의한 피부의 상처는 2~3년 된 아주 오랜 오줌으로 고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그 후부터 너무 독한 오줌은 특별히 심한 상처를 치료할 때만 사용하고, 얼굴 세수용으로는 1주일간 묽은 오줌을 사용했는데, 치료한 지 3일만에 그 헐었던 곳을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면도를 한 다음에 스킨, 로션 같은 화장수나 미안수를 쓰지 않고, 1주일간 묽은 오줌으로 얼굴을 씻었더니 소독도 잘 되고, 피부가 더 윤택해 졌습니다. 오줌 세수 후 오줌의 영양분이 얼굴 피부에 잘 침투되어 피부가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찬물(맹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으로 실천했습니다.

목 부위 - 지독한 건습진의 고통에서 벗어나

1953년부터 오른쪽 목에 생긴 심한 건습진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는데, 오줌요법으로 43년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적어도 1년 이상 된 오줌으로 자주 마사지를 해주었더니 쉽게 완치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양약과 한약들을 다 써보았고, 견디기 힘들 때는 전문 피부과 병원의 입원 치료까지 받아보았습니다만 치료받았을 때는 좀 좋아졌다가도 1개월 후에는 다시 재발하곤 했습니다. 전문의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죽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집요한 습진'이라고 했습니다. 완치를 단념하고 그때 그때 임시치료로 견디어 가고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에서 받던 임시 처치조차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중에 1992년 8월부터 오줌요법을 전수받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4년간 오줌을 마시고 오래된 오줌으로 마사지와 오줌습포를 하루도 빠짐없이 극성스럽게 했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하지도 않습니다.

이 지독한 습진과의 투병 과정이 제일 힘들었고,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오줌요법을 시작한 지 2개월 후부터 목의 습진이 차차 없어져갔지만, 그 대신 다른 부위(음부 주변과 다리가랑이, 얼굴, 겨드랑이, 항문 주변 등)로 습진이 옮겨가서 가려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음부 주변에 생긴 백선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자다가도 무의식중에 손톱으로 긁는 바람에 언제나 진이 나와 때로는 걷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오줌요법을 실천하다보니 습진, 백선 등 모든 악성적인 전염성 피부병들이 완전히 없어졌고, 재발도 하지 않아 아주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체질 - 알레르기성, 땀 체질에서 해방

저는 알레르기성 체질인데다가 만성 기관지염과 심한 천식으로 30년 이상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온이 좀 내려가면 영락없이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 기침이 너무 심해 발작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도 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약들을 다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근본적으로는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여 계속 재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시작한 지 약 7~8개월 후부터 조금씩 차도가 생겼습니다. 2년 정도 후에는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겨울에 전혀 온기가 없는 독거 감방안의 차디찬 마룻바닥에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있어도 감기 한번 안 걸렸으며, 찬 공기를 들이마셔도 기침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심하던 천식도 뚝 떨어졌습니다.

천식의 경우에는 하루 한 번 오줌을 마시는 데 그치지 말고 하루 배설하는 오줌을 전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도가 보이면 하루 한 번만 마셔도 무방하나, 추운 겨울에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단식을 하고 하루치의 오줌을 다 마셔야 하는데, 이 때 오줌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생수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독 땀이 많은 체질이라서 가려움증이 심했는데, 비누 대신 오줌으로 목욕을 한 후부터는 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름은 물론이고 아무 때나 조금만 더워도 땀이 흘러 곧 온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오줌요법을 실천하면서 체질이 점차 개선되던 과정 중에 호전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

회 정도 호전반응이 있다가 마지막 3회째(오줌요법을 하기 시작해서 2년만에)에는 온몸(특히 앞가슴 부위)에 땀띠처럼 생긴 심한 두드러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오줌 때문에 체질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되었지만, ‘오줌은 몸에 절대로 해롭지 않다’는 확신으로 오줌 마시기와 오줌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마시는 오줌의 양을 더 늘렸고, 오줌 마사지도 더 오랫동안 극성스럽게 해보았더니 2~3일 후에는 차츰 사그라졌습니다. 이제는 체질이 완전히 달라져 땀이 나도 전혀 가렵지 않으며, 또 밤에 식은땀도 흘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이 되었습니다.

오줌요법 수행자로서의 소망

벌써 70이 넘는 노인이지만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줌요법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암을 완치시킨 재소자와 나카오 박사의 저서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오줌요법 신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시는 단계에서 끝내지 말고 바르고 마사지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완치의 기쁨을 보다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말고 오줌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병을 치료할 돈도 없고,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고생하시는 많은 환자들에게 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산물은 지구상의 그 어느 것보다 깨끗한 것입니다. 오줌요법이 널리 알려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국내사례

“종아! 오줌을 마셔라” 하나님의 응답 듣고, 오줌요법 실천

김문정 (여, 56세)

생천교회 담임목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2

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난 10년 간 채식을 하며 약 한 번 사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 밥맛을 잃어 하루 두끼 식사를 겨우 밥 두 숟갈 정도 먹는 게 고작이었지만 몸은 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국선교를 6차례나 다니며 1년에 6개월은 외국 선교로 인한 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자주 연단에 서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약한 영에 잡힌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쉴 틈 없이 국내외 선교에 많은 일들을 맡기시며 위로와 축복도 많이 주셨지만, 저는 영육간의 피로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어 2년 전에는 감기증상으로 두 달간 심하게 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외국선교 현장에서 심한 피로와 몸살을 앓았는데, 6월 귀국 후부터 눈에 황달이 오고 컵 하나도 잡을 힘이 없었으며 아침에 전화가 오면 말할 기운이 없어 한 손으로 밥알을 떼어 먹으면서 겨우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B형 간염이라며 간 치수가 높으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간암이 아닌가 해서 불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암이 아니며 꼭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인진숙과 한약을 먹는 등 갖은 애를 쓰는 와중에 하나님은 또 국내의 큰 선교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3개월의 선교 기간 동안 거의 누워서 선교를 했습니다. 임신부처럼 뱃배가 부르고 그릇 몇 개만 씻어도 피곤으로 누워야 했으며,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1월 말경에 주위 분으로부터 김용태 약사의 '당뇨, 암, 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란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선 제가 기도를 드리는 중에 "김 약사를 찾아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심장 협심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여동생(선교사)과 김용태 약사님을 찾아가기 전날, 하나님은 김 약사님을 통해 우리들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영물을 꾸게 하셨습니다. 김 약사님이 처방해 주신 대체식(QKH)을 겨우 하루 정도 먹었는데도 놀라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이틀, 사흘이 지나자 점점 새 기운이 솟았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기적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 2개월 동안 꾸준히 대체식을 먹고 나니 김 약사님께서 "오줌을 마셔라" 하시면서 건강신문사에서 발행한 오줌요법책을 주셨습니다.

'아이구! 오줌이 웬 말이냐? 그 더러운 것을 마시라니.' 저는 도저히 오줌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식만 먹어도 이렇게 병이 호전되는데 왜 더러운 오줌을 먹으라고 하시나?' 하면서 귓전으로 흘려 버렸지요. 그러고는 좀더 빨리 치료해 보려고 신유은사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받아 동생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수 받으려 하지 말고

김 약사 말만 들어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고, 하나님! 김 약사님이 오줌 마시라고 했는데 설마 그 말까지 순종하라는 건 아니시겠지요’ 하며 혼자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편 묵상 중에 “종아, 오줌을 마셔라” 하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큰일났구나, 싶었습니다. 분명 하나님 음성인데 더러운 오줌을 마시라고 하시니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오줌은 깨끗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렸지만 처음 시도가 어려워 주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시어 저의 오른팔이 뼈 속까지 시커멓게 썩어 가는걸 보여주시며 만약 이런 병이 든다 해도 안 마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벌떡 일어나 단숨에 오줌을 마시고 나니 그 다음부터 잘 마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작은 컵 1컵 정도 마시면서 대단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선 “한 번만 마시지 말고 더 자주 마셔라. 배에도 오줌으로 마사지를 하라”고 하시더니, 다시 “부서진 자 낫아진 자는 마시게 돼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많은 양의 오줌의 마셨는데 얼마 후에 호전반응이 나타나 한달 반 가량 온 머리에 좁쌀 반만한 크기의 부스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오줌을 마셨더니 스폰지 같이 물렁물렁하던(병이 많은 증상) 머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치유속도가 빨라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줌을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체식을 만드는 NCK를 위해 기도하라”는 응답도 주셔서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김 약사님을 통해 치유 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시어머님은 20여 년간 당뇨로 화장실도 못 걸어가시고 넘어지시던 분이 오줌이 나올 때마다 받아 드시더니 지금은 밖에 나가 산책까지 하십니다. 또 한 집사님은 오줌을 머리에 발라주었더니 희끗희끗한 잔머리가 검게 변했으며, 위암 초기였던 한 청년은 대체식과 오줌요법으로 3개월만에 80%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3 월 26일 하나님께서는 또 “종아! 오줌은 만병통치약이다. 가난한 자에게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줌요법은 사탄이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있는 ‘3년반 동안 전세계에 가뭄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사명자들과 성도들이 오줌을 마시며 기근을 면하게 된다’ 라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오줌요법이 세상을 살릴 생명수가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극심한 기관지 천식, 고혈압, 성생활까지 좋아져



임홍식 (남, 67세)

목포노회 고사도교회 담임목사

전남 신안군 신의면 고사도 144번지

목포에서 배로 2시간 정도 들어오면 작은 섬 고사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곳 주민 20여 명과 함께 낮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아직 문명의 혜택이 완전하지 않아 밤 11시면 모든 전기가 끊길 뿐 아니라 의료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줌요법과의 만남은 제게 더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효과가 빠르고 우수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 한의원을 다 찾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치료가 어렵겠다는 진단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천식에 좋다면 무엇이든 다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신보에서 김용태 약사님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줌을 마셔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 약사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또 기독교신보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그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김 약사님은 대체식을 권해 주시면서 제게 건강신문사에서 출간된 오줌요법에 관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년 6월 25일부터 하루에 4컵~6컵 정도, 아내(이정자 씨, 61세)는 7월 2일부터 2컵~3컵씩 꾸준히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27년 여 동안 고혈압을 앓으며 항상 혈압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혈압이 240을 넘었는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3~4개월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더 이상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자궁의 혹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의 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욕이 급격히 줄어들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15년 이상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한 이후로 나이에 맞지 않을 만큼 성욕이 왕성해지고 절정에도 쉽게 오르는 등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쳤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이 약해서 밭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오줌을 마시고 오줌습포를 해 준 후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피곤해하고 이런 저런 잔병치레도

많았는데, 그런 증상까지 말끔히 해소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흡입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고, 좋아하는 등산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오줌 요법을 시작한 후로는 뛰어다녀도 될 만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정확히 지난해 12월 5일부터 천식약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 극심한 추위로 목감기에 걸려 약간의 호전반응도 경험했지만, 이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 의사들의 소견처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오줌을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오줌으로 눈을 씻고, 이를 닦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 후 제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눈이 맑아지고, 치아가 튼튼해지고, 피부도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이렇게 훌륭한 영약을 지금이라도 만나게 된 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은총을 알리기 위해 목사님들, 신도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오줌요법 책을 선물하면서 그 탁월한 효과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권위 있는 건강신문사에서 오줌요법에 관한 책을 출간했기에 우리 부부는 자신있게 그 책을 이웃이나 신도들에게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태 약사님이 주신 한 권의 책이 저의 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덴대체식과 오줌요법으로 6개월만에 위암 회복



정상환 (남, 50세 황성감리교회 장로)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1-13
원주기독백화점 대표
전화 : 033) 748-3232

먼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가끔씩 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약을 타 먹긴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병원 약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하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모든 것이 두렵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월말에 건강신문사에서 출간된 '성서요법 당뇨, 암, 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저자인 김용태 약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제게 '에덴대체식'과 '오줌요법'을 권해 주셨습니다.

저는 에덴대체식을 먹으면서 모든 식사를 건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용태 약사님께서 오줌요법을 여러 번 권해 주셨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간곡한 권유로 생각을 바꾸고 나니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에덴대체식과 물만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덴대체식의 성분이 녹아있는 오줌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역했지만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증상에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6개월 정도 후에는 거의 완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4개월만에 82kg이던 몸무게가 68kg이 되었고, 콜레스테롤과 지방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부 또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고, 정신력이 강해져 매사에 의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졸음 운전 때문에 늘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었는데, 정신이 맑아져 장거리 운전 중에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오줌으로 눈을 씻었더니 늘 충혈되었던 눈의 피로가 해소되고 항상 맑고 건강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용태 약사님께서 위암이 고쳐졌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온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뒤늦게 사회복지에 관한 공부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줌요법을 실천한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았으며 병원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87세이신 아버지와 74세의 장인어른께도 권해드렸더니, 그 즉시 시작하시어 눈은 물론 여러모로 건강해지셨다는 인사를 하십니다. 제 주변에도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상이 호전된 저의 사례를 전해 듣고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병을 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에덴대체식과 오줌요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권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에덴대체식과 오줌요법으로 모든 성인병을 치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생명의 은인이신 김용태 약사님, 항상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원종국 목사님, 저를 이 자리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작은 아버지이신 정계항 장로 내외분 그리고 형제들과 투병중에 애써준 사랑하는 아내와 유미, 규황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Вам에게 넘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간암, 위암을 고치고

정영섭 (남, 51세)

부산 바라교회 담임목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17-1

저는 2000년 8월에 부산 복음병원에서 간암, 위암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암은 항암제, 방사선, 수술로는 완전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선고로만 느껴졌습니다. 수술·항암제·방사선 요법이 암치료를 위한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암을 완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부전기도원에 들어가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녀들이 암으로 죽어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엾게 여기시고 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암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성서에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얻은 에덴대체식사요법과 오줌요법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김용태 약사님으로부터 처음 오줌요법에 대해 들었을 때 사실은 받아들이기 마음이 없었습니다. 노폐물이라는 인식과 더럽고 불결하고 구역질나는 찌꺼기라는 선입관 때문에 도저히 오줌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에덴 대체식을 먹고 오줌요법을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에덴 대체식과 오줌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오줌은 하루에 여러 번 마셨습니다.

오줌이 정말 노폐물이고 독이라면 그렇게 여러 번 마셨다면 제 몸에 분명 이상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노폐물이나 독이 체내에 쌓여 큰 문제를 일으켰어야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오줌을 마셔도 제 몸에 노폐물이나 독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이 지나자 약간의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기운이 생기면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에덴대체식을 먹으면서 성서요법을 실천하고 오줌을 마신지 3년이 지난 현재, 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되살아나 위와 간에 전이 된 암의 뿌리가 없어졌으며 10cm나 된다면 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고통 받던 치질과 기침 증상도 함께 호전되었습니다. 15년 전 심한 독감으로 인하여 앓고 있었던 기관지 천식이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치질이 심했습니다. 변을 볼 때마다 자주 피를 쏟았고 통증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에덴대체식을 통한 성서요법을 실천한 뒤 위암, 간암이 나았을 뿐 아니라 치질과 기관지 천식이 없어졌으며 건강 상태가 병을 앓기 전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 김 약사님의 성서요법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불신을 갖던 제가 관련서적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체계적인 과학성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전혀 안 드는 치유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성서요법만 있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병 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수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성서요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 교회의 성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하며 성서요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병을 주셨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체의 놀라운 자연치유력과 이 자연치유력의 극대화를 위한 성서요법의 원리와 실천하신 분들의 치유사례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김용태 약사와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탈모 증세 사라지고, 저혈당·저혈압 정상으로



음춘자 (여, 50세)

회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261-5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줌요법의 효능에 대해 익히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오

촌 숙부님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그 분은 병이 위급해질 때마다 오줌을 마셔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숙부님은 당시에 심각한 결핵으로 자주 각혈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오줌요법이 놀라운 효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지역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인이었던 숙부님이 오줌요법을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오줌요법에 대한 효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혈당과 저혈압 등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김용태 약사님이 오줌요법을 권해 주실 때 저는 한치의 주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줌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 증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 모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사라지고, 항상 기운이 넘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아침, 저녁에 집에서 오줌을 마시고, 낮시간에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일회용 컵으로(유리병을 들고 다니는 것이 여의치 않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받아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회용 컵이 떨어지면 커피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커피는 버리고 거기에 오줌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론 저는 김용태 약사님이 권해주신 대체식(YT)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속이 허전하다거나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할 때도 소화제를 먹듯 바로 오줌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내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됐습니다.

저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때마다 약을 먹곤 했었는데, 오줌요법을 하고 나서는 이 증상도 호전되어 더 이상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나거나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보드라워져 주위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줌요법을 실천하고 나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탈모증세가 심각해져 남모르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머리카락이 빠죽 빠죽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용태 약사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오줌을 바른 것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을 되찾게 되어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오줌요법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오줌요법으로 소중한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_

당뇨병, 장염 호전되어 삶의 활력 되찾아

최완식 (남, 57세)

개인택시 운영

전남 완도읍 무등아파트 101동 601호

저는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당뇨병까지 겹쳐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평소에도 혈당이 60으로 떨어져 늘 어지럽고 식은 땀이 흘렸습니다. 심할 때는 30까지 떨어져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늦여름에 김용태 약사님의 '성서요법 암, 당뇨, 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오줌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부산의 김용태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분께서는 현직 대학교수와 서울대 출신 석사가 쓴 '오줌을 마시자'라는 책을 보여주시며 대체식(YT)과 함께 오줌요법을 실천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바로 오줌을 마시고 대체식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줌을 마시고, 점심·저녁에도 대체식을 먹은 후 한컵씩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식사 후에만 혈당치가 150~200 정도 나오고 아침이나 보통 때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고질병, 장염이 있었습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변을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변을 보더라도 항상 설사를 해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염 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모 병원에서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담당의사는 한국사람에게 드문 병인 쿠론시(?) 같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한 이후로 장염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간혹 설사를 하더라도 배의 더부룩한 가스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고 오히려 속이 편했으며 기운도 생겼습니다. 오줌요법으로 덕분에 좋아진 것은 구강과 눈입니다. 저는 오줌요법을 알게 된 이후로 더 이상 치약을 쓰지 않고 오줌으로만 양치질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항상 치아가 시리고 피가 나던 증상이 모두 사라지고 어떤 음식도 잘 먹을 만큼 치아가 튼튼해졌습니다. 또한 김용태 약사님께서 주신 용기에 오줌을 담아 눈을 담그고, 깜박거리며 눈을 씻어주었더니 눈이 환해지면서 맑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력까지 좋아져 이제는 굳이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신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다보면 눈이 많이 피로했는데, 이제는 저녁때가 되어도 거의 피로를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줌요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환의 물혹, 신비한 효과로 한달 만에 치유

박승병 (남, 57세 / 미국 거주)

Sung B. Park 6546 Lee Valley Dr. #102 Springfield, VA 22150

전화 : 703) 923-9758

저는 10여 년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잠을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몇 시간이고 계속 의자에 앉는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가까이 하면 나타난다는 '비디오 증후군'까지 겹쳐서인지 시력이 현저하게 약해지고, 7년 전부터는 '엉덩이 앉은 뼈'까지 고장이 나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두 달간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주치의의 당부에 따라 그 후에는 틈틈이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썼지만 여전히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이 지속되다 보니 이번에는 한 쪽 고환이 골프공 크기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부산의 한 비뇨기와 전문병원을 찾아갔는데, 고환에 물혹이 생겨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내 나이 57세,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구차하게 다른 부위도 아닌 고환을 드러내 놓고 전신마취 수술을 받겠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체중은 이내 4kg이나 줄어 제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너무 마르고 병색이 완연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 동안 실의에 빠져있던 제가 허수복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허 장로님은 제게 오줌요법을 권해 주시며 그 효능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환의 물혹이 외부의 충격이나 영향으로 생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의사의 권유대로 당연히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겠지만, 저의 경우는 몸 내부의 누적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한 것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몸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로 그 물혹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고서는 또 다른 부위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체질이 개선되면 내 몸 속에 있는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이상이 생긴 부위를 치유해 나갈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제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고 저는 바로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주간은 금식하는 마음으로 생식을 복용하면서 하루에 두 세 번씩 오줌을 마시고 좌욕을 했는데, 오줌을 마시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정수는 자신의 오줌이라는 장로님의 설명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랍게도 고환의 물혹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체질 자체가 건강한 상태로 바뀌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앓아서 일하다 보니 장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숙변이 씻은 듯이 빠져 나오고 머리가 맑아져 날아갈 듯 상쾌합니다. 또한 매일 오줌으로 눈을 씻고 얼굴에 마사지를 해 주었더니 시력이 향상되고 피부도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피로하지도 않으며 온 몸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갈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연생식과 오줌요법의 신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허수복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비의 건강법을 저에게 거저 주셨으니 저 또한 사는 동안 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신비의 오줌요법 체험을 나눠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갑상선암, 전신마비, 뇌종양, 위염 완치



김현열 (남, 43세)

부산 성광교회 담임목사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448-42(19/2)

전화 : 051) 202-8178

할렐루야! 저는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10월 목사안수를 받고 부산 성광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20여년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몸이 좋지 않았으나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약물치료도 계속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향학열에 불타 공부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어느 날 그만 쓰러져 전신에 마비가 오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응급조치로 이웃 약국과 동네 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온갖 보조식품을 먹고, 민간요법 등을 해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송도아리랑고개 낭떠러지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가룟유다 생각이 나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전신이 무력해서 어지럽고, 화장실을 출입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할 수 없이 복음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오히려 경련증세와 어지럽고 피곤한 증세가 더욱 심해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몸이 낫지 않아 기도원에서 내려와 다시 복음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내 몸에 간질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 보았더니 뇌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집에 와서 몸져 누워 지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은 아침부터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나 황급한 나머지 119소방 구조대를 불러 종합병원이 아닌 김용태 약국으로

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해 왔는데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다보니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저의 영혼도 흐려지면서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다. 내 병은 습관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자신이 고쳐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김용태 약사님은 설명해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식생활 상담을 하는 도중에 내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건강법칙을 지키면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달 간 대체식을 먹고 오줌요법을 부지런히 하였더니 정말 놀랍게 모든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약사님의 지시대로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성서 건강수칙을 지키면서 대체식과 오줌요법을 한 결과 갑상선암, 전신마비, 간암, 뇌종양과 위염을 위시한 모든 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악성 고혈압 이긴 경력 10년의 오줌 전문가

김혜경 (가명, 43세, 주부)

본인이 원치 않아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습니다.

저의 남편은 대학 선배이신 김용태 약사님(부산광역시약사회 회장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초대본부장 역임)의 권유로 1990년부터 매일 오줌 마시는 것을 일상화해 온 경력 10년의 오줌건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징병검사에서도 처음에 무종처분을 받았다가 다음해 3월 종4급을 받은 바 있는 악성 본태성 고혈압 환자인데도, 결혼할 무렵까지는 아직 젊은 나이 탓인지 별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복합성 고질병(속칭 '골병' 후유증)의 극심한 재발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김 회장님의 약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줌요법을 적극 권해 좋아하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에다 심사숙고 한 후 한 번 결심하면 고집과 독심이 대단한 편입니다. 오줌요법을 소개받자마자 책과 자료를 정독하고서는 주저 없이 다음날 아침부터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도 두세 차례 더 오줌을 마시게 되었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오줌을 마시는 습관은 집을 떠나 외지에 나가있는 경우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오줌을 마시게 된 1990년의 전후 사정은 이랬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은 결혼 7개월 후 부산에서 상경하여 서울에서의 나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갓 입사한 회사에서도 이른바 '골병' 후유증의 세 번째 재발로 병가와 휴직을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당초 발령 받은 서울지사 근무를 포기하고 근근히 내근부서에서만 근무를 해야할 만큼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

나기 위해서, 그리고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투입되는 어려운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묘책이 요구되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오줌요법이 구원의 손길을 보낸 것입니다. 한편 남편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탓에 오래 전부터 변비증세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오줌을 마신 지 불과 이삼일만에 변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마신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회사 건강검진에서 모든 건강지표가 정상으로 나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초 신장 173cm에 체중 74kg으로 약간 살이 찐 상태였는데, 오줌을 마시고 나서는 언제부터인가 65kg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평소 과식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오줌이 소화제라며 식사 전후에 오줌을 마시고는 했는데, 결코 배탈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편은 속칭 골병 후유증 중에서도 병원진단에서 병명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통증이 기적처럼 감소했다고 기뻐했습니다. 더구나 오줌을 마시고 고혈압 증상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나는 스스로 생체실험을 해 오줌요법의 효능을 확인했다. 오줌요법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최상의 건강 상비약이자 치료약이다. 치료비용이 일체 들지 않고 전신에 효과가 있으니 이 이상 더 좋은 건강보물이 어디 있겠느냐. 오줌을 마시겠다는 용기와 중단 없이 계속할 인내심만 있으면 건강 100세는 충분히 보증한다”고 말하며, 오줌을 마실 때마다 평소 위장병 증세로 건강이 시원찮은 저에게는 물론 어머니, 동생, 친지들에게도 오줌을 마시라고 입이 닳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김용태 회장님을 통해 신광수 선생의 오줌요법 실천수기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뒤로는, 건강을 위한 설계를 새로이 했다고 하면서 매일 오줌을 머리에 바르고, 귀에 넣고, 눈을 씻고, 코에 넣고, 얼굴에 바르는 등 목 윗부분을 오줌으로 빈틈없이 도배를 하고 있음은 물론 오줌으로 발을 씻고는 발이 마른 뒤에야 양말을 신습니다. 하루에 오줌 마시는 횟수도 네다섯 번 이상으로 늘리고, 마시는 양도 많아져 한 되 이상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갓 눈 오줌으로 각 부위를 바르고 씻은 후 체온에 의해 오줌이 마르고 나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수많은 오줌요법 관련 출판물과 언론보도 기사를 읽고는, 이렇게 철저히 오줌건강요법을 실천하면 비듬이 없어지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점차 바뀌며, 터진 고막이 재생되고 귀가 울리는 이명증상이 없어지며, 갓가지 눈병이 없어지는 데다가 시력이 좋아지고, 비염 등 콧병이 해결되며 코감기에 즉효이고, 얼굴 색이 맑게 밝아지며 주름과 기미가 생기지 않고 손발이 부드러워지며 발 냄새가 나지 않고, 손발이 트거나 갈라지지 않는다는 굳건한 확신 아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요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만, 남편은 ‘골병’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 일부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꾸리(*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 물리요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은 현재 만 50세입니다. 그런데 오줌요법을 10년 이상 실천한 덕분에 얼굴에 주름살이 거의 없으며, 얼굴 색이 맑고 밝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보통 예닐곱 살은 적게 봅니다. 심지어 30대 중반 정도로까지 젊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다가 중노년층의 어르신들로부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꾸중을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위암 수술 후 염증 제거되고, 당뇨병 차츰 호전



강태복 (남, 43세)

새언약교회 목사

여주시 신기동 121-1

전화 : 061) 691-9945

저는 작년 8월에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의 75%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불안한 날들이었습니다. 저의 건강을 염려하던 처제가 우연히 김용태 약사님의 '성서요법 암·당뇨·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제게 김약사님의 생식과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오줌요법에 관한 내용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부산의 김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약사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며 오줌요법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당장 오줌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유리병을 들고 다니며 하루에 세 번씩 빠짐없이 오줌을 마시고, 저녁마다 오줌으로 눈을 씻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러던 올 2월에 갑자기 장에 마비가 와 서울의 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수술 후 생기는 염증까지 깨끗이 치유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위 절단 수술을 받으면 후에 장 마비, 유착 증세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오줌요법을 계속 실천하면서 숙변이 제거되는 등 장이 점차 좋아져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래 전부터 무좀으로 뒤꿈치가 항상 가렵고 갈라져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오줌에 발을 담궜더니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이 가렵지 않을 뿐 아니라 발뒤꿈치가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저는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3학년 재학중)을 다니면서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즐거운 일이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신 교회 집사님께 오줌요법을 권해드렸는데, 몇 주만에 300이던 혈당치가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좌골신경통이 호전되어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호전반응을 심하게 겪기도 했는데, 꾸준히 계속했더니 고질병인 비염까지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주일날 아내와 함께 집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오줌요법 덕에 살았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 아내(홍명숙, 40세)도 처음에는 선입견 때문에 망설였는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후로 쉽게 피로하지 않고 매사에 활력이 생겼으며 매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친지나 이웃에게 오줌요법을 알리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줌요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예방, 치료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줌요법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과 김용태 약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풍과 치매 예방에 오줌요법 효과 있어

손정숙 (여, 72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5-21

저는 평소 물을 적게 먹고 음식을 다소 짜게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육고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자주 과식을 하는 편입니다. 50대 중반 이후부터 신장염 증세로 한 때 크게 고통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퇴행성 무릎관절염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고혈압과 관절염 약 등을 장기 복용하면서 오줌요법이나 건강식품 보다는 병원 약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혈압으로 인한 중풍(뇌졸중)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오줌요법을 하면 절대로 치매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아들은 김용태 약사님을 통해 오줌요법을 권유 받고 악성 고혈압을 치유시킨 생생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믿음을 갖고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오줌을 먹는데 매번 오줌의 양이 어찌나 적은지 그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지만, 70평생 물을 적게 마셔 온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줌요법을 시작한 지 몇 달 안되어 명현현상(호전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명현현상이 어찌나 심하게 왔던지 수족에 아무런 힘이 없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별다르게 먹은 것이 없는데도 배가 아픈 현상이 이틀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분명한 호전반응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링거주사를 두 차례 맞으면서 오줌요법을 계속 실천했는데, 어느 사이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제가 “오줌 마시는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해보겠다. 내가 아들 덕분에 장수하려나보다” 라고 말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출가한 자식들은 물론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오줌요법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발률 90%, 간암 수술 후 건강 회복



최임경 목사 (남, 60세)

진주교회 담임목사

진주시 상봉동 915-1 상봉진주빌라 502호

전화 : 055) 743-2004

저는 친구인 강국희 교수로부터 처음 오줌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친구지만 ‘참, 희한한 놈 다 봤네’ 하며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강 교수가 준 오줌요법 책도 한쪽 구석에 던져 놓고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1월 12일 자꾸 피곤한 증상이 의심되어 서울중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혹이 4~6cm 정도 자랐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가족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운을 차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교회 신도들도 금식기도를 올리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간동맥 색전술을 받기로 하고 1월 17일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 치료되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수술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 후에 재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 다 나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재발률이 90%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병을 알고 계셨던 한 자매님이 올 2월초에 김용태 약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산으로 찾아가 김 약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저에게 식이요법과 오줌요법을 권해주셨습니다. 오줌요법에 관한 것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오줌요법이 참으로 대단한 치료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강 교수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직접 만나 오줌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줌을 마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두 모금 정도만 마시며 오줌으로 세수를 하고 눈을 씻었습니다. 며칠 지나면서부터 피부가 좋아지고, 눈에 눈곱이 끼던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용기를 내어 하루 세 번씩 오줌을 받아 그대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몸이 가벼워지면서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90%정도 재발된다는 간암 증세가 여전히 회복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오줌요법 덕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더 주의해야겠지만 꾸준히 오줌요법을 실천한다면 문제없이 건강을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도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오줌요법에 대한 효능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줌은 더러운 혐오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아내와 장모님, 작은 조카도 오줌요법을 실천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뇨병 치료하고, 헤어젤 대신 오줌사용



신성태 (남, 53세)

임마누엘교회 장로

여주시 여서동 부영아파트 508동 714호

전화 : 061)651-5687

김용태 약사님을 통해 오줌요법을 만난 것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질병인 당뇨를 앓으면서 여기 저기 병원도 많이 다녀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몹시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마다 일반 약을 복용하기도 했는데, 일시적인 차도만 보일 뿐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분이 있는 장로님으로부터 김용태 약사님의 '성서요법 당뇨·암·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부터 김용태 약사님의 대체식을 먹었습니다. 이 후 저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작년 12월 23일 김용태 약사님께 첫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의 증상을 말씀드리자 그 분은 오줌요법을 권하셨습니다. 오줌을 마시고, 눈을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김용태 약사님의 생기 있는 혈색과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의욕적인 생활을 보면서 저도 오줌을 마셔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오줌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줌으로 눈을 씻은 후부터는 눈이 맑아지고 피곤을 덜 느끼게 되었으며, 세수를 한 후에는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가 많이 시리고 잇몸이 안 좋았는데, 치약 대신 오줌으로 양치질을 한 후부터는 이와 잇몸이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용태 약사님의 말씀에 따라 헤어젤 대신 오줌을 머리에 바르고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제가 오줌을 바른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냄새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덕분에 머리결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항상 윤기가 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매사에 의욕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당뇨병이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줌요법을 한 지 아직 몇 달 안되었지만 곧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염, 변비 호전되고 뱃살 다이어트까지

강현섭 (남, 65세)

부산제5영도교회 장로, (주)실로암 장의서비스 관리이사

부산시 남구 용호4동 482-15 무지개아파트 303호

전화 : 051) 623-9384

제 아내는 7년 째 C형 간염으로 고생을 해 왔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이렇다 할 차도가 보이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8월, 김용태 약사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김 약사님께서도 오줌요법을 권해주셨는데, 같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갖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줌을 마신다는 것이 혐오스럽게 여겨졌지만 효과가 있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 세 번씩 오줌을 마시면서 그날 섭취한 음식이 오줌의 맛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더니 오줌을 마시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뱃살이 빠져 34인치였던 허리사이즈가 32인치로 줄었습니다. 저절로 뱃살 다이어트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심한 변비 증세로 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는데, 오줌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까지도 김 약사님의 대체식만 먹고 오줌을 마시는 것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척 중의 한 분이 10년 동안 B형 간염을 앓아왔는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후로 현저하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올해 1월말부터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두 달 정도 됐는데, 주위사람들로부터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염 증세가 차츰 호전되고 있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줌요법을 실천하면서 주위사람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일체의 비용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구나 부작용이 없고 치유 속도가 빨라 어느 건강법보다도 우수한 치료제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줌요법을 실천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병 호전되고, 건강유지에 탁월

김덕수 (남, 67세)

대구 산격제일교회 장로

대구시 북구 산격 1동 843-10번지

전화 : 053) 632-5961

저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오줌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신문사에서 나온 책자와 기독교신문을 보고 김용태 약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3개월 정도 되자 주위사람들로부터 더 젊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온 몸에 힘이 들어가고 생활에 활력이 솟았습니다. 좀 무리해서 일을 해도 피곤을 덜 느꼈으며, 오줌으로 눈을 씻은 후부터는 침침했던 눈이 환해 만사가 즐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오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더구나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줌을 마시면서까지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약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오줌요법의 효능을 설명해 주시고, 진심으로 권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박순덕, 62세)는 1년 전부터 김 약사님의 대체식을 먹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병을 앓으면서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일반 약을 복용했는데, 김 약사님이 권하신 대체식을 먹고 오줌요법을 실천한 후부터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당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평소에 입맛이 없어 식사를 할 때마다 곤혹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밥맛까지 좋아져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줌요법은 자신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건강에 자만하지 말고 건강할 때부터 오줌요법을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오래도록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는 오줌요법을 열심히 실천해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악몽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새 생명 얻은 듯



정순자 (58세, 주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3동주공아파트 201동 107호

전화 : 051) 403-8738

저는 오래 전부터 간경화와 당뇨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여러 번, 지난 8~9년 동안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받은 죽다시피 앓고 있을 때 이웃 분이 김용태 약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미 좋다는 갖가지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뽕죽한 수가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 약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분은 제 병세를 들으시고 오줌요법을 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오줌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며 오줌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정도가 지나자 피로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기운이 없고 피로가 심해 대부분 자리에 누워 생활했는데, 하루에 4~5회 정도 꾸준히 오줌을 마신 후부터는 걸음을 걷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더욱 호전되어 날마다 한 주먹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리가 빠진 자리에 오줌을 발라 주었더니 새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오줌을 코로 흡입했다가 입으로 뱉어내는 방법으로 비염증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 기능이 나쁘다 보니 항상 눈이 피곤하고 아파 책 한 장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 오줌으로 눈을 씻고 나서는 읽고 싶은 만큼 많은 책을 읽어도 전혀 피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이제 5개월이 넘었습니다. 저조차도 믿기 어렵지만 저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 현재는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줌요법은 어떤 한 가지 질병만을 꼬집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보고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어떤 약으로 건강이 좋아졌는지 무척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줌요법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평생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오줌요법이 제게 새 생명을 안겨 준 것 입니다.

궤양, 식도염, 대장염, 변비 3개월만에 호전



김귀환 (여, 51세)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 1동 383-6형제연립 201호

전화 : 053) 474-3747

언제부터인가 주위사람들에게 아기 피부 같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피부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웃 분의 권유로 작년 1월부터 오줌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피부에 윤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것처럼 더 젊어지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오랫동안 고생해온 질병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항상 위가 쓰리고 대변에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는가 하면 간헐적인 복통과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자주 들고 때로는 대변을 본 후에도 덜 본 것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매일 아침마다 오줌을 마신 후부터는 위궤양, 식도염, 대장염, 변비 증세가 크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더이상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극심한 변비 증세와 치질까지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제게는 호전반응도 오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속이 쓰려 커피도 못 마시고, 밥도 조금씩만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기력을 완전히 찾았음은 물론이고 지병처럼 괴롭히던 증상들이 호전되어 무엇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꿈도 못 꿔던 술을 마시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효과가 탁월한 오줌요법을 진작 알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오줌요법을 실천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주위 분들께도 권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호기심을 갖기도 하지만 오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오줌요법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뇨병 호전되면서 몸의 기능 정상화



우상걸(남, 61세)

구미시민교회 집사경북 구미시 신평동 150-23번지미림아파트 203호

전화 : 054)463-6145

저는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 병원 약을 달고 살면서 증상이 심해지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서요법 당뇨·암·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필자이신 김용태 약사님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김 약사님은 대체식과 함께 오줌요법을 권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체식을 복용하면서 4~5개월 정도 망설인 끝에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줌이 노폐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생겨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작년 10월 4일부터 하루 2~3차례 오줌을 마시고, 저녁마다 눈에 넣으며 얼굴에 마사지도 해 주었습니다. 먼저 눈의 피로가 씻은 듯 풀리면서 얼굴에는 광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400~ 500정도 올라가던 혈당이 저혈당으로 돌아와 230~250으로 내려왔습니다. 심할 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3개월 후부터는 병원 약과 인슐린 주사를 끊고, 오줌으로만 치료를 해도 될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서너 번씩 오줌을 마시면서 기회가 될 때 48시간의 요단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해 봤는데, 몸이 가볍고 뱃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주위사람들이 신기해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줌요법만큼 탁월한 건강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몸에서 나오므로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오줌요법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오줌 3총사' 잔병치레 없어

박숙희 (여, 39세 / 주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5-21

전화: 051) 863-2389

제가 허약한 탓인지 저희 아이들은 3명 모두 그리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국과 병원을 단골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기침이라도 하면 곧 이어 나머지 아이들도 아파서 시어머님과 아이들 셋을 데리고 수시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기가 일쑤였습니다. 약 봉지마다 아이들 이름과 병명을 써 놓아야만 할 정도였지요. 제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시 의료비지출명세표를 모아 정리하면 언제나 한도액까지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서민 가정에서 끝없이 들어가는 의료비 지출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줌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무조건 오줌을 마셔야만 한다고 강조했으나, 모든 것에는 정말 시와 때가 있는 법인지 어느 누구도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8월 하순부터 아이들 셋 모두 오줌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맏이는 여중 1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얼굴에 뾰루지 등이 자주 나 여러 가지 처방을 해보았으나, 도무지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약사님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피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차츰 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라면, 피자, 핫도그, 육고기 등 금기식품을 좋아하고 물을 적게 마시는 데다가 과일마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단기간에 생식체질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김 약사님께서 맏이에게도 "빨리 나아 미인이 되려면 생식과 더불어 오줌요법을 해야 한다. 생식 섭취 후 나오는 오줌은 최상의 품질이므로 한 방울이라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심한 거부감 때문에 마시지 않다가 생식 섭취 5개월 후부터 비로소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오줌요법과 생식의 병행으로 얻어지는 상승효과는 과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눈에 뵈 정도로 피부의 뾰루지가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는 차츰 아버지가 지도를 하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오줌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 자진해서 오줌을 마시는 것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지금처럼만 호전된다면 2학년 여름 방학 때쯤이면 복사꽃 같이 아름답고 뽀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찌나 군것질을 좋아하고 밥 먹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지 식사 때마다 아이 밥 챙겨 먹이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자연히 배탈이 잦았고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등 몸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단골신세가 되었고, 키도 또래에 비해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8월 하순부터 오줌을 마시고 나서는 종전에 비해 훨씬 밥도 잘 먹고 잠도 깊이 잘 자며 식은땀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누구보다 용기 있는 아이입니다.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오줌을 마셨으니까요. 남편과 김 약사님의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평소 무엇이든 잘 먹는 편이라 한번 오줌을 누면 양도 상당한데, 그 많은 것을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전혀 스스럼없이 시원스럽게 마시는 것이 여간 대견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셋이 오줌을 마신 것도 불과 다섯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유행한 홍역, 이질, 독감 등 전염병 예방주사를 전혀 맞지 않았는데도 다섯 달 동안 그러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적극적으로 예방주사를 접종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남편은 고덕도 않았습니다. "오줌요법과 김용태 생식(파워-큐)을 병행하면 천하무적인데 무엇이 부족하고 겁이 나서 예방주사를 맞히겠느냐.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들은 과거와는 다른 변형종이라서 예방주사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어떠한 질병에도 오줌요법과 생식으로 자체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것 이상의 대비책은 없다"고 주장을 하여 저도 그만 두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맏이가 심한 몸살기로 소아과에 며칠 다닌 것 말고

는 병치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같았으면 벌써 의료비 지출이 상당했을 텐데, 다행히 아이들은 아무런 탈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21세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의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아마도 100세까지는 거뜬히 수명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저희 집 아이들이 오쥬요법을 열심히 실천한다면 건강수명 100세는 물론 그 이상까지도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욕심을 내 봅니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이미 80세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급격히 70세 이상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허망한 기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어치 약보다 훨씬 낫다

백학기 (남, 83세)

경기도 일산구 대화동

전화 : 031)917-1059

제 나이 벌써 여든 셋입니다. 사람들에게 제 나이를 얘기하면 모두들 놀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젊게 보일 수 있느냐며 비법을 물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오쥬요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들려주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그 기적의 효과를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쥬요법을 실천한 지 이제 13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감기, 폐병, 당뇨병 등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었는데, 오쥬요법을 시작한 이후로는 모든 질병이 거짓말처럼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수지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수지침으로 1년만에 고칠 병이면 오쥬요법으로는 단 몇 달만에 고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수한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돈도 안 드는데, 실제로 100만원 어치의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쥬를 받아 그 자리에서 마시면 훌륭한 약이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되면, 아무런 고통없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쥬를 마시고, 몸에 바르고, 코와 귀에 넣고, 눈을 씻으면서 이대로라면 얼마든지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실천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일본의 경우는 1000만 명이 오쥬요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오쥬요법이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쥬요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20년간 괴롭히던 뇌종양 이기고 새 삶 찾아



권재오 (남, 69세)

거제 연구교회 담임목사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972번지

전화 : 055) 633-9146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거제도 섬에서 연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20년 전부터 몸이 쉽게 피로하고 두통이 심해 때로는 오래도록 먹던 진통제 양을 늘려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옹하다는 병원, 약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온갖 처방을 다 받아보았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면증까지 겹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나이드는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 침도 맞아 보았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신문사에서 발간한 김용태 약사의 '당뇨·암·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고 김 약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희망을 주시며 함께 운영하시는 한의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뇌종양이라는 것은 5년 내지 20년 정도 자라 10cm 이상이 되어야만 종합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병명도 모르고 죽을 고생을 한 것도, 잠을 이루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던 것도 모두 뇌종양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김 약사님께서서는 대체식과 본인이 10여 년간 건강비법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오즙요법을 권해 주셨습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랴 싶었습니다. 저는 거제도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부터 대체식과 오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과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 몸에서 나오는 오즙을 거의 다 마셨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서 물을 달게 해 마셨더니 오즙의 맛이 좋아져 먹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차츰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괴롭히던 두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잠이 잘 올 뿐 아니라 혈색이 환해지고 70이 다된 나이인데도 스테미너가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뇌종양을 고치는 데는 오즙요법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을 감히 확신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잠언 5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물이 히브리어로 '오즙'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오즙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20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뇌종양을 고쳐주신 하나님과 김용태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난·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즙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즙요법이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된 고혈압, 협심증 해소로 등산 마음껏 즐겨

김지은 (여, 53세)

이스라엘 선교사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6동 204호

저는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 협심증으로 가슴이 따갑고 답답하며 조금만 무리를 해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온 몸이 잘 붓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항상 피로로 젖어 있었습니다. 걸은 멀쩡해 보였지만 남모르는 고통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위 분으로부터 부산의 김용태 약사님을 소개받아 대체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김 약사님은 오줌요법도 함께 권해 주셨는데, 오줌이 더럽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오줌이 신이 주신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실천해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한 증상이 차츰 호전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협심증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에 오르는 것이 조심스럽고 힘겨웠는데, 이제는 거뜬히 산에 오를 만큼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줌은 눈, 코, 입과 온몸을 씻는 데 사용해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단 한방울도 버리기 아까운 귀중한 생명수입니다. 더럽다는 관념을 떨쳐버린다면 병들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 많은 양의 오줌을 마시기 위해 생수를 수시로 마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제5장 15~17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줌요법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어떤 병도 깨끗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줌요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있게 오줌요법을 권해 드립니다.

몸에 힘이 솟고 모발이 까맣게 자라나

이상윤 (남, 63세)

인천 모대학 교수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6동 204호

나이를 초월하여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부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30대 후반부터 머리가 무겁고 힘이 없었으며 늘 피곤해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복부팽만감과 불규칙한 배변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특히 오후에는 신경과민이 생겨 일의 능률이 저하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자각증상이 더 심해지자 소화제, 영양제, 보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별다른 효험이 없었습니다. 결국 50대에 이르러서는 만성피로가 급증하여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차도가 없이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노쇠한 탓이라고 스스로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2001년 1월 오줌요법이 좋다는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서너 번씩 오줌을 마셨는데, 특히 공휴일에는 거의 모든 오줌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 자기 전과 새벽에 오줌으로 눈을 씻고, 코와 귀에 넣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마사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각종 증세가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피로한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변비, 복부팽만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도 가벼워져 생활에 활력이 솟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달동안 머리에 오줌을 집중적으로 발랐더니 머리카락이 없던 부분에 새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신비한 효험이었습니다. 지금은 김용태 약사의 대체식을 병행하면서 한 방울의 오줌도 귀하게 여기며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오줌을 마시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 쏟으면서 하루속히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줌요법이야말로 전 인류의 무병장수를 이루어낼 획기적인 건강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줌요법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초월한 건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호전반응 극복 후 혈당 정상으로 돌아와



조성열 (남, 59세)

월평교회 담임목사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12

전화 : 063)432-6097

제가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된 지는 이제 서너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교직에 몸 담았던 총각시절부터 당뇨병이 있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항상 기운이 없었으며

걸핏하면 현기증이 일었고, 살이 계속 빠져 그냥 보기에 안 돼 보일 정도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500이 넘어가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분의 소개로 김용태 약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유로 대체식을 먹으면서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줌이 불결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줌을 마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약사님으로부터 오줌의 기적같은 효과와 오줌이 깨끗하다는 확신을 얻고 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온 몸에 알레르기처럼 가려운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호전반응이었습니다. 좀 곤혹스럽긴 했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오줌을 마시고 가려운 부분에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당뇨병이 거의 완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복용하지 않으며 오직 오줌요법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김용태 약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장, 간기능 좋아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박선초 (여, 58세)

월평교회 사모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12

전화 : 063)432-6097

이제 오줌을 마시는 일은 제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특히 많이 마시는데, 새벽 2시경 잠에서 깬 때도 마시고, 새벽 안식기도를 가기 전에 또 마십니다. 처음에는 종이컵 크기에 마시다가 아예 맥주 글라스 정도 큰 컵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심장과 간이 안 좋은 데다가 만성위염, 그외에도 검은 변이 나오고 자주 아랫배가 아파 주위사람들에게 '종합병원'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용태 약사님을 통해 오줌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이 있던 남편은 그날부터 바로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만 해도 오줌이 역겨워 차라리 죽고 말지 그 짓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약사님과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엉겁결에 오줌을 마시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동치미 맛도 낫다가 맹물 같기도 했지요. 그 뒤로 오줌 맛이 좋도록 음식을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야채와 과일, 생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심장과 간기능이 좋아졌고 만성위염의 경우는 거의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곱고 부드러워져 주위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혈색이 환해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 저 자신도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딸도 며칠 전부터 오줌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더니 제가 효과를 얻은 것을 직접 보고 용기를 얻었나 봅니다. 저의 가족은 오줌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주 2~3병 마셔도 간 기능 전혀 이상없어



이문석 (남, 71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회장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부산광역시 지원장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66-32

저는 일제시대 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아주 오래 전에 일본의 서적을 통해 오줌요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에 한 종친의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줌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종친이었는데 오줌요법으로 당뇨를 치료하고, 피부도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줌을 마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따로 컵을 준비해 갈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건강한 편이었고 그때까지 아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만 오줌을 마셨습니다.

건강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죠. 얼마 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간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점심에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는 꼭 마십니다. 이렇게 술을 즐기는데도 건강하다는 것은 다 오줌요법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농장에서 밭을 일구는 등 저녁 늦게까지 중노동을 하는 데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거뜨하다는 것 또한 오줌요법의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눈의 충혈이 심한 편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눈을 씻어주었더니 피로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100m 멀리에서 오는 버스 번호가 보일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양쪽 귀에 넣으면서 귀도 밝아졌고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종친회 행사 때 오줌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료를 나누어 주며 오줌요법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박 2일로 실시된 오줌요법 행사에 갔었는데, 김용태 약사님이 사비를 들여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극진한 정성을 쏟으시는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용태 약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했던 고혈압, 협심증 호전

이용호 (남, 65세)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 1리 1040번지

전화 : 054)335-5512

저는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병원에서 주는 약에 의지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나,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혈압이 240까지 올라가 쓰러지기도 하고, 조금만 흥분해도 심장이 뛰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동네분이 김용태 약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약사님의 권유대로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대체식을 먹으면서 오줌요법을 병행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줌을 마시고, 눈을 씻고, 피부에 마사지를 하고, 머리에도 꾸준히 발라 주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자 증상에 차도가 나타났습니다. 고혈압과 협심증이 현저히 호전되었으며 항상 피로하던 눈이 맑아지고, 돋보기를 써야 보이던 글씨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흰 머리카락이 차츰 검은 색으로 변하고 거칠던 피부가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노동을 하다보니 차가운 곳에 앉을 일이 많아 변비와 치질증세도 심했는데, 차츰 좋아지기 시작해 지금은 거의 90%가 나아졌습니다. 근래에는 고혈압과 협심증 약을 끊고 오줌요법만 실천하고 있던 중에 병원에 가서 혈청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여러 개의 혈청이 뭉쳐져 있는 모양이었는데, 진단 결과 완전히 풀어져 거의 95%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서글프기만 했는데, 오줌요법 덕택에 건강을 되찾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노인이 청년같은 건강을 지닌 비결, 오줌요법



김기일 (남, 77세)

홍릉경로대학 학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촌마을 우성아파트 110동 1305호

얼마 전 MBC 방송 건강프로그램에서 저를 찾아와 건강테스트를 했습니다. 나이보다 건강하게 산다는 제 이야기가 이미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는데, 나이는 노인이지만 몸의 기관은 청년 같다는 결과가 나와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중·고·대학교에서 40년간 교직생활을 하다가 최근 10년간은 오줌요법을 연구하며 각 기업체, 방송국, 대학교 등에서 건강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나이에 열정이 대단하다 하여 국내 종합일간지, 여성지, 방송 등에서 대대적으로 기사화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같은 건강을 지키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오줌요법입니다. 오줌요법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기적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박사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줌요법으로 효과를 본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30년 동안 고생하던 무좀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오줌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를 해 주었더니 신통하게도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성이라서 겨울이면 손, 발이 터지곤 했는데, 오줌으로 마사지를 한 뒤로는 항상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했던 해소증세와 축농증이 완전히 나았고 지금껏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으며 병원 신세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오줌요법과 함께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식이요법도 병행했습니다. 올해로 10년 째 오줌을 마시고 있지만 지금도 오줌요법의 효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오줌요법이 과학적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다면 전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훌륭한 건강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당뇨병에 합병증까지 99% 완치



김금식 (여, 64세)

대구 하원교회 집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원읍 천내 1리 806번지

전화 : 053) 632-5961

저는 지난 13년간 당뇨병을 앓으며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갈증이 나고 조금만 활동을 해도 피로가 몰려왔으며 음식을 먹어도 이내 배가 고파 자주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합병증인 관절염까지 겹쳤고, 눈에는 망막증이 생겨 한 쪽 눈이 거의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취미로 등산을 즐기는 편이어서 가끔 산에 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다리의 마디 마디가 쭈시고 살갓이 아파 밤에 자다가도 깰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기독교신문에서 김용태 약사님에 대한 기사를 읽고 부산으로 그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2000년 2월이었습니다. 김 약사님은 대체식과 오줌요법을 권하시면서 그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 되셨는지 오줌은 불결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귀한 생명수라는 것을 몇 번씩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유에 따라 매일 대체식을 먹으면서 하루에 4~5번 정도 200ml씩 오줌을 마셨습니다. 약 1년째인 지난 4월 4일 다시 김 약사님을 뵈었는데, 99%가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한 쪽 눈이 실명 위기에 놓일 만큼 두 눈 모두 안 좋은 상태였지만 차츰 좋아지기 시작해 나머지 한 쪽 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혈당 또한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곤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등산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워져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김용태 약사님 덕택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3년 된 녹내장 호전, '눈이 환해졌다'

홍정표 (남, 64세)

전주서문교회 안수집사

전주시 완산구 동안 3동 423-1

전화 : 018-407-0977

2~3년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

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별것 아닌 병 같아도 쉽게 차도가 없어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9월쯤 어떤 분의 소개로 김용태 약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저의 증세를 들으시고는 오줌요법을 권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당뇨병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병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오줌요법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당장 오줌요법을 실천했습니다. 김 약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오줌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3~4회 오줌을 마시고 아침, 저녁에는 오줌으로 눈을 씻고 몇 방울씩 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랄 만큼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흰 무엇이 자꾸 어른거려 잘 보이지 않고 답답했던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쉽게 피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담당의사가 신기해 할 정도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일도 없어졌고, 눈에 안약을 넣을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오줌요법만을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별 효험이 없었는데, 김 약사님이 권해주신 식이요법과 오줌요법 만으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오줌을 마신 이후로는 소소한 잔병까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고단한 일을 해도 몸이 거뜬하고 더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사례를 지켜본 가족들이나 이웃들도 오줌요법의 효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그들도 실천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무서운 당뇨병 이겨낸 기적의 치유법



임병래 (남, 64세)

자영업

대구광역시 북구 읍레동 1366 공작한양아파트 105동 606호

할렐루야! 저를 1985년부터 죽음으로 몰고 갔던 당뇨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현대의학, 동양의학, 자연의학이 있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한테는 다 소용없는 학문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핑 잡는 게 매' 라는 말이 있듯이 병을 고쳐야 믿고 따르지, 아무리 시키는 대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당분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질 뿐 나를 괴롭히는 당뇨병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코미디언 최용순 씨는 당뇨병으로 서울 을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리를 자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엔 조선일보에 당뇨병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한국 의료계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유명한 당뇨병 전문의사 서울 성애병원의 김일수 소장(38세)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에 최용순씨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서울의 을지병원 김모 병원장도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을 제일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 있는 박사님이십니다. 매일 같이 수백 명의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병원장 되시는 박사님께서 당뇨병에 걸려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당뇨병을 고치는 병원장님이 당뇨병이 걸려 고생하고 계시는가하면, 당뇨병을 연구하시는 김일수 소장이 당뇨병에 걸려 동료 의사들 보기가 부끄러워 숨어 다니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으니 우리 같이 죽어가는 당뇨병 환자는 어디 가서 병을 치유해야 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약사의 '당뇨, 암, 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란 책을 보고, 부산의 김용태 약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 약사님께서서는 자신이 개발한 YT 대체식과 '오줌을 마시자'라는 성균관대학의 생명공학 교수님의 책을 주시며 오줌요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부터 오줌요법에 대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처음엔 좀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 내가 살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 취침 전, 이렇게 하루 3번씩 오줌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넣고 코에도 넣었습니다. 처음엔 거부반응이 조금 있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몸에서 힘이 나고 혈당이 잡히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비염이 치유됐으며,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날 뿐 아니라 당뇨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건강비법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병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오줌요법을 하면 모든 병에서 해방이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 건강법을 전하고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줌요법의 놀라운 효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 눈, 피부, 치아 건강해지고 간, 위장 기능 튼튼 -

양정신 (여, 51세)
수당교회 담임전도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 3리

제가 목에 생긴 기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웃 분이 건강신문사에서 발행한 김용태 약사님의 '성서요법 당뇨·암·비만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기미가 치료된 사례를 보고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의 낀 기미로 고민만 하지 말고 김용태 약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올해 1월에 김용태 약사님을 찾아 뵙게 됐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줌을 마시라니요!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것은 김 약사님이 성경책을 열어 잠언 제5장 15~17절 말씀을 짚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셨던 물이 히브리어로 오줌이라는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렇게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오줌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다 버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약사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막상 오줌을 마셔보니 맛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김 약사님께서 권해주신 대체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한 석달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오줌을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줌으로 눈을 씻고, 코과 귀에 넣고,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감고, 목욕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작은 글씨도 잘 보일 정도로 눈이 좋아졌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또한 피부가 고와져 화장이 잘 받으며, 친구들이 '얼굴 박피 했느냐'고 물을 정도로 피부가 뽀얗게 변했습니다. 오줌으로 양치질을 한 뒤부터 치약을 쓰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잇몸이 튼튼해지고 이가 시린 증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3일간 금식기도를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고 피곤해서 잠을 자기 일수였는데, 오줌만 먹으면서 뿐만 아니라 금식 후의 후유증이 전혀 없이 오히려 간과 위장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오줌요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태 약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을 했을 때는 몸이 가벼워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배고픈 증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변비, 손·팔 저리는 고통에서 해방

도귀옥 (여, 39세 / 주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5-23

저는 처녀 때부터 거의 15년 동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과 팔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쥐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변비가 심해 화장도 잘 받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여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여름에 오줌을 마시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오줌요법을 소개하는 책을 읽어보고는 오줌을 마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다닐 필요도 없고, 자연히 치료비도 한 푼 들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땀을 흘리다가, 매일 오줌을 많이 마신다는 친지 분을 만나서 크게 격려를 받고는 아침 오줌을 나오는 대로 받아서 바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두어 차례 더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별다른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줌요법을 실천하면서 종전보다 많은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물을 자주 마시면, 오줌의 양이 많아짐은 물론 오줌이 적당한 농도로 묽어져 마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육고기 보다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육고기를 먹은 뒤의 오줌에 비해 야채나 과일을 먹은 뒤의 오줌은 농도가 묽어 마시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오줌요법을 실천한 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덧 변통이 시원하게 뚫려 하루 종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손과 팔이 저리는 현상도 거짓말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저는 오줌으로 눈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눈이 침침하고 피로했던 증상이 사라져 항상 눈이 편안합니다. 저는 조만간 만성 비염증상도 고치기 위해 매일 오줌을 콧속으로 흘려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효험을 보자 남편과 친정 어머니는 물론 여러 친구들까지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로부터 좋은 치료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자주 듣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신통한 오줌요법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많은 치료비와 고통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부터라도 오줌요법을 실천하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암 초기증상, 악성 견비통증에서 회복



김영아 (여, 45세)

중학교 영어교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5-21

전화: 051) 863-2389

저는 현재 중학교 영어교사로 2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오른손으로 칠판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어깨가 결렸는데, 마침내는 이러한 현상이 심해져 고질적인 견비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데다가 체질적으로 위와 장의 기능이 매우 허약해 항상 소화가 잘 되지 않았고 변통이 시원하지 않아 오랜 세월동안 고생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신경성 체질까지 더해져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졌는데, 그저 병약한 체질이 저의 숙명이려니 하고 체념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줌을 마시고 놀라운 효험을 보게 되면서부터 저에게도 오줌을 마시도록 강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느 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답답하기로서니 어찌 오줌을 먹을까!' 하고 부부지간이지만 한사코 남편의 권유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접어들어 위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나날이 상태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생각다 못한 남편은 2월 하순 '오줌은 죽어도 마시지 못하겠다'는 저를 김용태 회장님께 데려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김용태 회장님께서 처방하시는 생식은 일반적인 유기농법 생식제품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른바 '김용태 생식'은 경남 하동의 농부 이영문 선생이 비료, 농약, 퇴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논밭을 전혀 갈지 않는 독특한 태평농법 (*농림부 기획 연구 과제로 선정)으로 생산한, 순수하고도 좋은 지기가 충만해 있는 곡류와 엽채류 등을 동종요법 및 기(氣)에너지 처리로 가공한 고단위의 기(氣)에너지 생식제품이었습니다. 태초 원시인의 식생활에 거의 근접한 생식으로서 그 특유의 효능이 온갖 난치병·고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사례가 속출하여 이미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용태 회장은 환자들의 전인치유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명상, 믿음 및 적당한 운동을 당부함은 물론 빠른 쾌유를 위해 반드시 오줌을 마실 것을 적극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태 회장은 '생식오줌약사'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목격하고 태평생식처방, 오줌요법 등 전인치유법의 탁월함을 전해들은 것만으로도 저의 병이 조만간 쾌유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김 회장님의 처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될수록 신경을 덜 쓰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교직생활이란 것이 저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김 회장님의 처방과 훈시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학교 점심시간에는 저만 혼자서 생식과 과일 몇 개로 요기를 하고, 항상 좋은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제가 김 회장님의 지시사항을 제대로만 따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상태가 좋아졌을 테지만, 부득이 올바로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거의 차도를 보지 못한 채 넉 달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김 회장님을 찾아 뵙기도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먼저 좋아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낀 것은 어깨 통증이었습니다. 위와 장은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에서야 '이제 조금씩 좋아지려나 보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줌을 마시게 된 것은, 남편의 성화와 김 회장님의 적극적인 권유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여름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사태와 의료비 급상승도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 빨리 낫지 않아 혹시나 잘못되면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겠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 또한 여간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 누구라도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며, "가족 모두 건강유지와 유행성 홍역·이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오줌을 마셔야만 한다"고 가족 모두에게 거듭 설득했습니다. 2학기 개학과 더불어 갑작스레 학교를 옮기고, 더욱이 3학년 담임까지 맡게 되어 경황이 없는 와중에 9월 17일 일요일 아침, 처음으로 오줌을 받아 마셨습니다. '세상에! 오줌 맛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한 순간 토할 것 같은 역함을 느꼈습니다만, 코를 잡고는 꼭 참고 견뎌냈습니다. 오줌요법을 권유 받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인(?) 쾌거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후 저는 가족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하루에도 두세 번 오줌을 마시게 되었으며, 학교근무 중에도 한번 정도는 화장실에서 오줌을 받아 마시는 것을 습관화 했습니다. 오줌을 마신 지 처음 10일 정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무척 실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 기능이 좋지 않아 숙변이 지나치게 많이 고여 있는 데다가 한번에 마시는 오줌의 양이 너무 적어 위와 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될수록 많이 마시고 오줌을 가능한 한 참았다가 누면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시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정말 신통하게도 차츰 변통이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해 저는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남들처럼 불과 1~2일만에 변통이 시원하게 뚫리는 상쾌함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화장실 가는 것이 즐겁고 나올 때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고 변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아랫배가 제법 훌쩍하게 들어갔으며, 아침 오줌을 마신 20~30분 후에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즐거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숙변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저절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입니다. 10월 이후에는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보는 등 위와 장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식을 먹으면서 점차 풀려가던 어깨근육의 통증이 오줌요법 실천 후에는 움직이기에 수월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효과 만점인 오줌을 왜 이제서야 마시게 되었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진작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몸이 날아갈 듯이 건강해졌을 테니까요. '시작이 반' 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결코 중단 없이 더욱 열심히

마시고, 남편처럼 조만간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바르고 씻고 넣는 등 총체적인 오줌요법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저는 비록 오줌 경력 4개월 여에 불과하지만, 제 경험상 수많은 오줌체험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줌은 정말 정직합니다. 물론 오줌이 항상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의 맛과 성질이 즉각적으로 오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오줌이 짜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이 아무런 맛이 없고 싱거워져 김 빠진 맥주 맛과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오줌에 약품 냄새가 진동하여 오줌을 마시기가 참으로 거북합니다. 오줌은 우리 인체가 지닌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자기 오줌은 이 세상에 자신에게만 안성맞춤인 유일한 왁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암환자, 당뇨병환자라고 하더라도, 설령 에이즈환자라도 자신에게는 자기 오줌이 가장 뛰어난 특효약이며 산삼, 녹용을 능가하는 유일무이한 보약입니다. 저에게 생식처방과 오줌요법을 권해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신 김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장암, 늑막염, 치질 완치



김태주 (남, 45세)
 부산 수영로 교회 안수집사
 부산 광역시 수영구 광안 2동 164-1
 전화 : 051) 758-1427

저는 부산 광안동에서 에벤에셀 기독교서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정필도)의 안수집사로서 그동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27일 밤에 용변을 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온통 피로 물들고 한쪽 눈은 부어 올라 보이지도 않고 이마에도 탁구공 만한 혹이 났습니다. 119를 부르려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승용차로 K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여 이틀 동안 정밀검사를 해보았더니 말기 대장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초음파 모니터에 이상한 물체가 보여서 CT촬영을 한 결과 20cm가량 되어 보이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서 주치의의사는 그것이 대장암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때문에 화장실 바닥에 피를 쏟게 되었으며 말기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6개월, 하지 않아도 6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암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같은 교회에 나오시는 김용태 약사님이 지으신 '성서요법 암, 당뇨, 비만을 고친 사람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서에 있는 식생활 개선법을 따라서 약사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에덴 대체식을 하루 3번씩

먹고 생수를 한 되 이상 매일 먹었습니다. 일체의 탄산음료, 종류는 먹지 않고 현미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고기와 인스턴트 제품을 가려서 생채식, 과일 등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정신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에 “네 샘에서 나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이 히브리 원어로 오줌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하게 사는 길을 열어 두었으며 병이 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약사님의 오줌요법 암 당뇨 비만을 고친 사람들 책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오줌요법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에덴 대체식을 먹고 나오는 오줌은 다다익선으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줌을 버리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오줌 마사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의 제1장 1절이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 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명현현상으로 뱃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며칠 간은 설사가 나오고 힘이 없는 증세가 몇 번 나타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증세는 사라졌습니다.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컨디션이 좋아져 갔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해도 5년 간 사는 사람이 20%이며 말기 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1%도 안 된다는데 저는 김용태 약사님의 지도로 1년 만에 대장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던 늑막염과 치질도 고쳤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잘못된 식생활을 고침으로 대장암, 늑막염, 치질 등 몸에 있는 모든 병을 한꺼번에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진리가 실천되어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다같이 행복해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성서에 있는 건강법을 체득하였으므로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서 영육 간에 필리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유감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생식과 오줌요법은 70억 인류에게 내린 복음

김윤경 (여, 35세 / 교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5-21

남북한 7,200만 명의 우리 민족이 오줌요법만 확실하게 실천하더라도, 의료비는 현재에 비

해 10~100분의 1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꾸리나 솟요법을 병행한다면 의료비는 더욱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국가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가 구현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막대한 기회비용은 문화생활 향유나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무상교육과 기초생활 보장, 과학기술육성 및 남북한 통일 협력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물론 당장은 수많은 고급 의료인력과 병원·약국시설, 의약교육시설이 유향화 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겨나겠지만, 그들을 민족전통의학, 예방의학, 기초의학 및 건강한 장수연구로 돌린다면 오히려 의약 선진국으로 급부상 하는 일대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한낱 몽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존요법 실천은 오늘날 지구촌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 민족, 지역,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라는 인위적인 편협한 울타리를 뛰어넘는, 70억 모든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소망인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보편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오존요법 운동이 지니는 가장 가공할 파괴력은 무엇보다 치료비, 건강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는 원가 제로의 개념과 전신에 미치는 탁월한 효능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김용태 약사님께서 일찍부터 새 천년의 벽두 21세기가 갖는 문명사적 특징인 '자연주의 문명으로의 회귀'를 통찰하시고, 마침내 21세기 디지털문명시대 신 인류의 건강을 위해 자연의학의 실천을 선언하시면서 대대적으로 펼치고 계신 생식보급운동과 필생의 일대 과업으로 추진하시는 오존요법 보급운동, 오존건강국민운동은 정녕 개인의 삶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범세계적으로 인류 전체의 문제로까지 확장해 본다면, 오존요법 실천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써 계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70억 인류의 오존요법 실천운동을 통한 지구촌의 건강과 평화는 한낱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지구촌 저편에서 나날이 타전돼 오는 암울한 소식들- 광우병의 만연과 발병시기의 단축 및 발칸신드롬(*나토 연합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 발사로 인한 암 등 각종 불치병의 난무와 인명의 급격한 손실)의 확산, 에이즈 등 신종 전염병의 창궐과 현대의학의 속수무책,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안전성 의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조만간 인체면역력, 자연치유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생식 처방과 오존요법의 진가를 깨닫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3. 외국사례

1999.5.13~16. 제2회 세계오줌요법대회<독일 게스펠트>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간추린 것임.

오줌 먹고 발라 잃어버린 음성 되찾았다



Sister Catalina A.C.

Apostolic Carmel Fatimagiri Convent Nilambur R. S.

Malappuram DT.

Kerala 679330 INDIA

Tel: ++91-493220-264 Fax: ++91-493220-513

저는 케라라주 패라마기리의 사도회 회원입니다. 이 지역은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1976년 이래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교육과 예방교육의 홍보입니다. 치료방법은 역증요법(일반요법)과는 다른 동증요법, 오줌요법 등입니다. 1983년 이래로 저는 오줌요법을 실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1969년부터 중증 결핵으로 고생하며 10년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1982년에는 급성호흡기염증으로 음성을 잃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후두암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반요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줌요법책을 통해 하루에 3차례에 걸쳐 오줌을 먹고 목 주위에 오줌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주일 만에 음성을 되찾았습니다. 분명 신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한 때는 오후 5시에 체온이 섭씨 39.4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 10시에 물과 오줌으로 치료 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방법으로 건선암 등 난·불치병 환자들에게 오줌요법을 시행했으며, 많은 환자들에게 오줌요법을 추천하여 이 지역에 확산시켰습니다. 매일 2~3명의 암환자에게 권하고 건선, 만성중이염, 알레르기, 관절염, 소화성궤양 및 만성적 상처와 방사선 요법 후의 상처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오줌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오줌요법은 니람버르지역의 환자들에게 유익한 치료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세포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물질



Dr. William Chacon, MD

Centro de Acupuntura y Medicina Natural COHNAN Barrio
Zarago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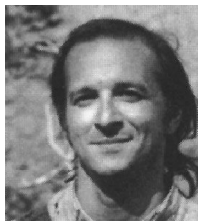
2e Calle Norte Iglesia 1 cuadro Este Le n NICARAGUA.

Tel: ++505-311-2240. Fax: ++505-311-5700.

세계보건기구(WHO)는 매우 효과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다른 전통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신장은 그 구조 및 다양한 기능을 고려했을 때 자연의 경이로 여겨집니다. 그 같은 다양한 기능에는 오늘날 과학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줌은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만한 기적의 물질입니다. 우리는 꾸준한 오줌세척법을 통해서 세포재생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봅니다.

leucemia에서 회복된 소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치료 후에 이 소녀는 오줌요법을 선택했습니다. 머드마스크를 통해서 오줌을 피부에 접촉시키고, 욕조에 오줌을 가득 채워 목욕함으로써 온 몸에 오줌을 접촉시켰습니다. 오줌 치료에 의한 몸의 반응은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피부는 8주 후에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상태 또한 신기할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WEST 증후군 어린이 오줌요법으로 주기적인 몸의 뒤틀림이 사라졌고, 그의 신경체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척추가 변형된 Yadira Yadira는 등뼈 척추의 변형으로 고통받았는데, 결국 그것이 그녀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줌을 통한 치료를 한 후 등뼈 변형이 멈추었으며,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치료의 재료로 오줌을 사용하는 것이 물론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오줌요법 사례 연구



Alex Lattanzi

via Cavour 6 54033 Carrara (MS) ITALY

Tel: ++39-0585-70315 Fax: ++39-0585-74545

alex.baul@mcn.it

저는 HIV에 감염된 친구인 엘에산드로 마시니의 경험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대증요법 처방 대신에 오줌요법을 선택했습니다. 3년 전부터 그의 사례 연구를 지켜봤는데,

자연치료법으로 가려는 그의 접근은 에이즈로부터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고무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받은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주제가 헤로인 중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면역부전의 원인은 아마도 성 접촉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처음 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몸은 지치고 쇠약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눈부시게 건강이 회복되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면역성자극물과 오줌단식(URINE FAST)으로 별다른 조제약 없이 심각한 중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고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오줌요법대회 후 1996년에 그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그리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HIV 테스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996년 4월부터 하루에 한번씩 자신의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줌요법과 단식으로 방광암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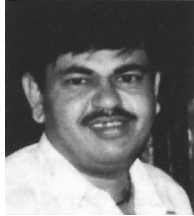
Arturo Rossetti

Mauro Macchi 67 20124 Milano ITALY

Tel: ++39-02-67382031 Fax: ++39-02-67382031

a.rossetti@tiscalinet.it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진단을 받았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대안적인 약에 매우 회의적이 됩니다. 그들에게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86년 이래 저는 전립선 문제로 매 2년마다 수많은 의료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붉은 생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식이요법을 실천하며,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10월 테스트 결과 방광암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들은 곧 생체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겠다고 수술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와 동일한 병으로 수술 후 8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연요법치료자와 오줌요법주의자가 되었을 때 수술을 거부하고, 자연치료법 중 오줌요법을 택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오줌요법이 가장 빠른 치료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challer 의사와 만나 28일 단식을 병행했습니다. 첫 10일 동안은 아내와 함께 단식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8일 후 상태가 호전된 것을 느끼며 2주 동안 단식을 계속해 총 42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체중이 10kg 정도 감소했고, 만성적인 전립선 증상이 90%나 줄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건강식이요법을 따랐습니다. 식단의 변화 없이는 질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22년 된 신장병, 오줌요법과 장수법으로 회복

Dr. Mahesh V. Sanghavi, MD

Shreeji Health Care Centre 136/3678 Pant Nagar, Opp.

Sangli Bank near Ghatkopar Rly. Station(East)

Mumbai-400075 INDIA

Tel: ++91-5113564 Fax:++91-22-5153802

dharmesh@bom3.vsnl.net.in

저는 오줌요법과 장수법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줌요법은 장수법의 특별한 분야입니다. 저명한 모든 책에 이것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오줌뿐만 아니라 동물의 오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 중 하나는 22년간 만성적 신장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입니다. 당시 노인의 주된 병은 고혈압과 단백요증을 가진 Blood Uremia(요독증)였습니다. 그런 그가 석 달 동안 오줌요법과 장수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자, 신기하게도 빠른 회복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신장 투석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생명수, 오줌이 암을 막는다

Dr. Kamataro Sano, MD 2-22-4, Aonuma Kofu-Shi

Yamanash-Ken JAPAN

Tel: ++81-55232-8321 Fax: ++55232-9515

sanoclinic@hotmail.com

현재 환자들에게 오줌요법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병원이 오줌요법을 채택한 첫 번째 병원입니다. 오줌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혈액의 한 부분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여기에는 암에 대항하고 암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소, 호르몬, 비타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줌은 용혈반응물질과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prostaglandin 암세포의 부분인 methyl group에 작용하여 암의 분해를 막는 CDAⅡ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줌에 포함된 CDAⅡ의 작용은 특히 Dr. Ryoh 에 의하여 증명된 바 있습니다. 요산은 superoxide radical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막습니다. 결국은 암의 근원을 막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오줌은 찌꺼기로 다루어져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오줌은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줌을 '생명수'라 부릅니다.

제1회 세계오줌요법대회 보도

Copyright © 1996 Reuter Information Service PANJIM, India

(Mar 20, 1996 01:03 a.m. EST)

인도의 퇴역장성 L. Ramdas 씨는 매일 오줌을 마신다. 일본의 의사 나카오 료이치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의 오줌으로 가글링(gargle)을 한다. "나는 (오줌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네덜란드의 Coen van der Kroon씨의 말이다. "아주 좋은 애프터쉐이브(aftershave)가 되지요." 오줌이 단순한 배설물이 아닌, 그 이상의 유익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 말고도 수백만 명이 있다. 오줌요법 애호가들은, 전통의학에 염증을 느껴 믿음만을 가지고 (어떤)치료에 임하는 무리들과는 다른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 그들의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 그들은 기구를 조직하고 있으며, 제약업계도 오줌을 이용하는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줌은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디오 저널리스트 Carmen Thomas 씨는 말한다. 그는 75만 부나 판매된 「아주 특별한 음료」라는 제목의 책을 비롯해 세 권의 책(오줌요법)을 썼다. 600명이나 되는 의사, 과학자, 치료사들이 최근 인도 서남부 고아주의 수도 판짐(Panjim)에 모였다. 그것은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세계오줌요법대회(World Conference on Auto-Urine Therapy)를 위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인도의 전 수상이었던 모라지 데사이 씨를 추모했다. 데사이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한 컵의 오줌을 마신다고 언론에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작년 만 9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인도의 오줌요법재단(Water of Life Foundation) 사무총장인 G.K. Thakkar 씨는 열성적인 참가자들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오줌으로 인해 아메바성 이질과 습진이 다 나았으며, 순식간에 몸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Thakkar 씨는 오줌을 '생명의 치료약'이라며 에이즈(AIDS)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에서 온 Tara EichT 씨는 말기암을 선고받았는데, 오줌을 마시면서 암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웨덴에서 온 Claude Jacot 씨는 정맥동염을 50년 동안 앓아 오다가, 코 안에 오줌을 넣기 시작한 이후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초심자는 오줌이 아주 심한 뒷맛을 남기며 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날의 숙취가 남아 있거나 그 전날 강한 향신료를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회의론자들은 오줌요법 얘기를 들으면 코를 찡그린다.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아직도 오줌을 가까이 하면 안될 그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고 미국의 지압치료사 겸 오줌요법 시술자인 John Wynhausen씨는 말한다. 봄베이 Jaslok병원에서 온 의사 R.D. Lele 씨는 오줌요법 운동이 강력한 과학적 이론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도 오줌요법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600명이 모였을 때 당신은 매우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이죠.” 그는 회의석상에서 말했다. Van der Kroon 씨는 오줌의 맛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가 쓴 「생명수 : 오줌요법 완벽 안내서」란 책에서, 그는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 전 양수 속에서 떠있는 상태로 있으며, 그 양수의 대부분은 오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1747년 독일 저술가 Johann Heinrich Zedler 씨는 “젊은이에게서 나오는 오줌을 가볍게 끓여서 거기에 꿀을 녹인 것은 눈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18세기에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은 황달, 류머티스성 질환, 통풍, 좌골신경통, 천식을 치료하는데 오줌을 이용했으며, Cannoniers는 가까운 곳에 오줌을 두고 이용했다. 불을 지피다 화상을 입으면 재빠르게 오줌에 담금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영국 태생인 암스트롱은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암, 폐결핵 등으로 고생하는 4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1940년대에 독일 의사들은 홍역이나 Small pox를 앓는 어린이들에게 오줌을 처방했다. Van der Kroon씨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에스키모 여인들은 샴푸 대신 자신의 오줌을 사용한다고 한다. Johann Abel 박사에 의하면, 5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오줌요법에 매료되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오줌을 주사하기도 한다. “독일에서 그것은 아주 거대한 물결이었죠”라고 말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인도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Ramdas 장군은 1989년에 한 친구에게 망가진 신장과 간을 오줌요법으로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매일 한 컵의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국제 성인교육협회장인 Lalita 씨는 “하루에 한 컵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63세의 퇴역 장군 Ramdas 씨는 자신은 결코 오줌요법을 선전하지 않았으며, 해군 동료들에게 조용히 전하기만 했다고 한다.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죠. 인상들을 찌푸리고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줌요법을 시행했습니다.”자신의 딸과 함께 오줌요법을 하는 Ramdas 씨는 오줌요법 덕분에 정력적으로 일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창피해 할 것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오줌이 지저분한 것이라는 세뇌를 다시 고쳐서 마음의 장벽을 먼저 낮춰야만 합니다. 오줌요법을 하는 데는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지요.”최근에는 기업들도 오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토마스 씨는 말한다. 미국의 효소 지주회사는 1만 개의 이동식 화장실에 있는 남성의 오줌에서 발견된 단백질을 추출하는 필터를 개발했으며, PortaJoh라는 미국의 한 회사는 혈전을 녹이고 심장마비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유로키나아제를 오줌에서 추출해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Van der

Kroon 씨는 말했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연간 5억 달러의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토마스 씨는 몇몇 제약회사들이 이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한다. 상하이의 공공 화장실에서 오줌이 모아지고, 그것에서 유로키나아제를 추출해 해외로 수출하는 제약회사에 팔린다. “유럽의 몇몇 회사에서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란 구절의 광고를 하면서 스킨크림 같은 제품을 팔고 있기도 하다”고 토마스 씨가 말했다. 한 네덜란드 회사에서는 간호사들의 오줌을 임신부의 오줌과 섞어서 불임부부들을 위한 시약으로 쓴다고 Van der Kroon 씨는 말했다. 어떤 이들은 오줌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미래의 약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가장 싼 약이며,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고위 관리인 Wilfred d'Souza 씨가 말했다.

원문 : Copyright © 1996 Reuter Information Service

‘생명수’라는 믿음으로 불치의 에이즈 극복

마크 그리피스 (프랑스)

연락처: 전화 33-46831-2791

전자메일 markgriffiths@wanadoo.fr

나는 20세부터 만성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공포심이 무섭게 위협해 왔다. 마침내 1986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5년 후의 죽음을 선고했다. 나는 ‘신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병을 만들어 냈는가?’,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것인가?’를 생각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1989년에 마약 히로인을 끊었다. 다음해는 외부적인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몸 전체의 건강에 좋은 오줌요법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오줌을 더러운 것이라고 거부해왔던 마음을 바꾸고 오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줌요법에 전념, 기적처럼 불치의 에이즈를 극복하게 되었다. 요즘은 건강보다는 자유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놀라운 체험사실을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란서,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등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인도 고어에서 열린 제1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와 독일의 게스펠트에서 열린 제2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에도 참석하여 직접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오줌요법 시행 45일 후부터 에이즈 차츰 호전

사프레즈 팔레오 (우루과이)

연락처 : 전화 598-2-507-0469, 팩스 598-2-204-4157

전자메일 gcasa@adinet.com.uy

나에게 처음 에이즈 증상이 나타난 것은 1997년 3월이었다. 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해 8월부터 오줌요법을 시작했다. 매일 1컵의 오줌을 마셨는데 시행한 지 2주 후에 처음으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다. 나는 계속 오줌을 마시면서 오줌 마사지도 병행했다. 신기하게도 시행한지 45일 후부터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내 몸 오른쪽의 앞뒤에 대상포진이 나타났을 때가 1998년 4월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매일 1000cc의 오줌을 마시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서 단식을 했다. 그리고 침술을 받으며 대상포진에 오줌 마사지를 했다. 명상도 빼먹지 않고 실천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인가 정신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의사 소통에 있어 감정의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에이즈, 열병, 말라리아, 치통까지 효과

빅토리아 세메 (탄자니아)

연락처 : 전화 255-65-502077 팩스 255-65-504299

전자메일 : lutengano@africaonline.com

탄자니아 지방에서 에이즈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죽음의 선고이다. 이곳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오줌요법에 대한 소문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오줌요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했다. 1994년 이후로는 Dr.Thakka(인도), Coen Van der kroon(네덜란드), Dr.Schaller로부터 여러 가지 오줌요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오줌요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자세한

지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1994년에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오줌요법을 실천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들의 ESR은 크게 낮아졌고 적혈구 수치는 증가했으며 백혈구 수치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두 남녀가 성 접촉을 했는데, 4일 후에 검진을 해보니 여자는 에이즈 바이러스 음성, 남성은 양성반응이었다. 그 후 두 사람 모두 오줌요법을 시작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성 관계를 할 때는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했는데 9개월 후에는 건강해져서 콘돔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오줌요법은 에이즈의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병, 말라리아, 치통 등 다른 병들의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지금은 많은 탄자니아 사람들이 오줌요법의 효능에 대해 알고 있다.

죽음 앞두고 오줌요법으로 극적 회생

조스 탈라베라 (코스타리카)

연락처 : 전화 506-253-5720 팩스 506-253-6573

에이즈에 걸린 한 청년은 코스타리카의 San Juan de dios 병원의 의사들로부터 집에 가서 편히 있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오줌요법을 실천했다. 하루 동안 배설한 오줌을 모두 마시면서, 야채와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셨다. 그리고 약간의 꿀과 프로폴리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차와 주스를 섞은 물도 마셨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과 명상도 잊지 않았다. 40여 일이 지난 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직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면역세포 숫자는 갑자기 800으로 돌아왔으며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매우 놀라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믿기 어려워했다.

그는 계속해서 80일간의 오줌요법을 실시하고 1997년 1월 26일 다시 혈액검사를 해 보았다. 이때 의사들은 그에게 더 이상 에이즈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 치료를 받았을 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몸무게도 40kg에 불과했었다.

의사들은 그 결과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병원과 보건부까지 가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결과는 에이즈 음성반응이었다. 결국 의사들은 그의 사례를 의학협회에 보고했는데, 그 의학협회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의사의 면허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다. 그 청년은 병원으로부터 자신의 파일을 넘겨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4부 오줌요법 현황

1장 재난 극복을 위한 오줌요법

재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며 생명의 끈을 지탱한 사례는 그동안 많은 화제가 되어 왔다. 오줌요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닥친 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로 매몰된 사람이 잔해 속에 갇혀 오줌으로 목을 적시며 기적적으로 살아서 구출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탄광에서 91시간이나 매몰된 상태에서 오줌으로 갈증을 해소하며 생존한 사람이 있었다.

평소 국민들에게 재난대책교육을 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재난의료시스템(NDMS)은 재난의 종류를 120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재난에 맞는 유사시 행동요령을 발표했는데(95.7.4 조선일보), 제3번형에 천재나 인재로 인한 매몰로 격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필요한 중요한 행동수칙 12가지를 명시했다.

그 중 5번째가 '오줌을 버리지 말고 컵이나 그릇 등에 받았다가 전량을 마신다'는 사항이다. 그리고 오줌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입술을 깨물어 그 피로 목을 축이라고 돼 있다. 이를 보면 미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평소에 재난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막상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쳐서야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누구에게든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오줌요법을 실천한다면 이러한 재난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장 국내 오줌요법 단체

국내의 오줌요법 단체에는 한국MCL연구회와 생명수(KAUT) 클럽 등이 있다.

이 단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줌요법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각종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줌요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담과 지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오줌요법의 적극적인 신봉자로서 10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요령을 터득해온 사람들인 만큼 오줌요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도 매우 적극적이다.

생명수(KAUT) 클럽 (회장 강국희)

생명수 클럽은 오줌요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하거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경험담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기 위해 1998년 3월에 창립되었다. 현대의학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암을 비롯해 고혈압, 관절염, 편두통, 갱년기증세, 만성 소화기장애, 폐결핵과 나병, 각종 알레르기, 냉증, 만성피로, 에이즈, 간질, 다발성 근육염, 당뇨병 등등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수많은 건강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고 나에게 맞는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생명수 클럽은 오줌요법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줌요법의 효능을 서로 확인하고 토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친목 모임이다.

주요 활동은 오줌요법 체험담 간담회 개최, 오줌요법의 학술연구, TV와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한 오줌요법 국민홍보, 건강설계상담, 오줌요법의 효능측정법 확립, 야채스프 제조법 실습, 오줌요법 책 출판 등이 있다.

(문의 전화 : 031-290-7802)

■KAUT Club과 국제오줌요법단체 네트워크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WorldConference on Urine Therapy)

*Urine Therapy Federation

*인도오줌요법협회(Water of Life Foundation-India)

*일본오줌요법협회 (MCL연구소)

*한국MCL지부(김정희)

*중국오줌요법협회 (Chinese Association of Urine Therapy: Grace Liau)

* (Taiwan Association of Urine Therapy)

*네팔오줌요법협회 (Water of Life Foundation-Nepal: OUM SHREE SAI RAM)

한국MCL연구회 (회장 김정희)

MCL이란 Miracle Cup of Liquid(기적의 물 한잔)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일본오줌요법의 개척자 나카오 의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92년에 MCL지부가 설립되어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1993년 10월에 일본의 나카오 의사를 초청하여 성동구민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으며 지금까지 MCL 회보를 꾸준히 발행하여 국내 오줌요법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원수는 600여명이고, 매월 회원들이 모여서 체험담을 나누며 요단식도 실행하고 있다. (문의 전화 : 02-447-6055)

3장 세계 오줌요법 학술대회

오줌요법은 일본과 독일을 필두로 인도,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대만,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우루과이, 알젠틴, 파라과이), 니카라과, 루마니아, 이집트, 티벳, 수단 등 많은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들 나라에는 이미 오줌요법 단체가 설립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

(World Conference on Urine Therapy)

제1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1996년 인도)

제1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는 1996년 2월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정부(State Bank India)의 재정지원과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의 후원으로 인도의 고어(Goa)에서 거행됐다. 인도 오줌요법단체들의 주도하에 세계 4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가국 대표들의 열띤 강연에 이어 피부질환, 순환기, 췌장, 간장, 호흡기, 정신질환, 갑상선, 안과, 이비인후과(알레르기), 만성질환, 골질환, 당뇨병, 오줌성분 분석, 천식, 치과질환, 정력증진, 부인과질환 등 각종 오줌요법 체험담이 발표되었다.

국내 언론들에서도 제1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제2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 (1999년 독일)

제2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는 40여 개 국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5월13일부터 16일까지 독일의 Gersfeld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MCL연구회 김정희 회장과 이해영 총무, 성균관대 식품생명학과 강국희 교수, 필자, 김기일 장로, 건강신문사 윤승천 사장이 참가하여 3편의 연구발표를 했다. 참가자 중 87명이 임상발표를 했는데, 의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독일의 인기 방송인 Carmen Thomas씨의 오줌요법 특강은 참가자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발표된 임상치료 사례는 암, 에이즈, 간염, 화상, 냉증, 눈병, 당뇨병, 고혈압, 피부병, 소화기장애, 만성피로, 빈혈, 변비, 치주염, 정력강화 등으로 오줌요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

1999년 5월 제2차 독일대회에서 2001년 제3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 개최지로 브라질이 선정되었는데, 현지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대신 11월, 12월중에 인도의 고어(Goa)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차 대회 개최국으로 추천된 바 있다.

부록

오줌요법의 신과학적 이해 : 생체정보(Bio-Information) 이론

<본고는 상원바이오테크 홈페이지(www.swbiotech.co.kr/main/data/content_fr.html)에서
퍼온 것임>

자신의 오줌에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생체정보(Bio-Information)가 최적의 조건으로 각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오줌을 마시면 가장 좋은 생체정보를 다시 흡수하게 된다.

1. 생체정보에 대한 개념

생체정보는 생명현상의 근원이지만 그 자체로는 물리적인 실체를 규명할 수 없는 비가시적
인 존재이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언제나 생명활동의 근원으로 작용하면서 생명현상을 유도
하는 끌개이며, 그 특성은 생명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으로 가시화 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는 적절한 조건만 설정되면 생체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
이다. 그러므로 생체정보는 비록 그 자체로는 가시적이지 않을지라도 생명활동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생체정보는 그 실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명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으면서 생
명현상을 주관한다. 또한 생명현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개별적, 독립적으로 작용하
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체정보, 생명작용, 의식작용 등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자신만의 고
유한 특성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체정보는 간섭, 중첩, 공명 등과 같은 파동적 성질
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비록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도 생체정보는 물리학적 파동
의 개념을 빌려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

1) 기술적 측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체정보는 생명작용을 주관하는 근원이므로, 생체정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 원하는 농작물의 건강한 생육
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육에 필요한 생체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유전
공학이나 육종기술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특정 농작물에 필요한 형질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의 생명공학은 세포나 분자수준에서의 유전자 정보나 생화학적 반응에 초점을 맞
추고서 이를 추구하는 반면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이들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해낸
근원적인 생명작용인 생체정보의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명기술은 생체정보의 물리적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대과학기술이 여러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자연의 가시적인 요소들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비가시적인 요소들(생체정보)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려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생물학, 의학, 환경생태학 등과 같이 생명현상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더 강하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생체정보와 관련된 기술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며, 새로운 개념의 과학이다.

생체정보는 그 자체가 에너지로 작용하기보다는 정보로 작용하는 까닭에 양적인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기록된 정보는 얼마든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양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체정보도 물리적 실체가 없으면서 생명현상을 주재하는 정보이므로 양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기술의 속성상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에너지보존의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생체정보관련 기술의 특성은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술적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첨단 기술의 과학이다. 그래서 생체정보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전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화학물질과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빚어진 총체적인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신 개념의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이처럼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자연의 근본적인 생명작용으로부터 비롯된 기술이어서 자연 및 환경친화적 기술이며, 연구개발 비용, 현장에서의 실시비용, 처리비용 등이 저렴하면서도 오늘날의 화학농법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생체정보 관련 분야의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탐색 혹은 연구착수단계의 기술이어서 상대적인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 관련 기술은 기술의 속성상 동양(우리 나라, 중국, 일본)의 문화전통에서 풍부한 연구재료를 취할 수 있는 까닭에 서구에 비해서 풍부한 연구자원과 연구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오늘날의 농업은 화학농업으로서 기술적 속성상 약탈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안목에서 농산물의 생산성만을 중시한 결과, 농약과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농산물의 질은 크게 떨어졌다. 또한 과다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지력의 상실, 토양의 오염, 각종 화학물질에 오염된 농산물의 양산, 수질오염, 수자원 고갈, 각종 환경오염 등을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총체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산업환경이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각종 식품들의 가공공정에도 생산과정의 편의, 저장과 수송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농업의 기술적 속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이나 음식물은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의학자들은 오늘날 불치병의 상당부분은 잘못 생산된 농산물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연산 농산물은 인공재배한 농산물에 비해서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을 호가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양적, 물질적 개념을 중시한 기술에서 탈피하여 질적 개념을 중시한 기술로의 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농산물의 질을 중시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의 중요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양적 개념을 중시한 기술과 질적 개념을 중시한 기술은 반드시 서로 대립적인 기술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양적인 개념을 초월한 것이어서 오늘날의 농산물의 생산성을 유지한 채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양적인 개념만을 중시한 기술이어서 사람들의 심성을 물질만능으로 치닫도록 이끌고 있다. 이에 비해서 생체정보의 기술은 사물의 질료적() 속성을 중시한 기술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물의 양적 개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의 기술이 지나치게 양적 개념만을 추구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반발로 사물의 질료적 속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할 뿐이다. 그러므로 생체정보의 기술을 현대적 기술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면 현대의 물질문명으로부터 비롯된 각종 산업, 환경,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사회, 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3.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전망

생체정보와 관련된 분야는 제반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생명과학적 관점이 급선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생명작용을 조절하려던(농업분야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중심으로 한 화학농업, 의학분야에서는 합성신약을 중심으로 한 약물요법)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약물요법이나 수술보다는 식이요법, 운동, 자세교정 등을 통한 자가치유력 유도나 면역증진 치료요법 등이 훨씬 효과적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동양의 음양오행의 이치와 경락설에 기초한 한의학적 의학체계의 효능성은 물론이고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

으며, 유기농법이나 미생물제재를 활용한 농법이 지금의 화학농법 보다 훨씬 바람직한 농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의 완전한 순환을 통해서 이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력을 복돋워줌으로써 토질을 개선하고 고전음악이나 전통음악(그린음악)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건강한 생장은 물론 농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음파나 특정 전자기파를 활용하여 해충이나 설치류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도입은 오늘날의 화학적 접근 방법으로부터 파생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래식 생명공학(전통의학과 농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새 생명공학적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일 뿐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연구는 이러한 노력들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생명과학 분야를 주도하게 될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전통과학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켜서 새로운 전자기술에 접목하여 하나의 장치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체정보를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생체정보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생체정보를 전사하는 것은 비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체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도 현대적 장비의 개발이 절실하다.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종자에게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음식물이나 기타 생활용품에는 건강한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장, 수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체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생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의학적 분야에서는 인체에 필요한 건강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 인체의 건강을 도모하며, 약재들이 지닌 기본적인 약성을 밝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은 새롭게 대두되는 신종분야로서 일단 기초기술을 확보하면 의학과 농업분야는 물론이고, 그 응용분야가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동양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연구를 준비하거나 개시단계에 있다.

4.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례

- 1) 운동역학
- 2) O-Ring Test
- 3) 수맥과 다우징

4) 동종요법

5) 오줌요법(Urine Therapy)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줌요법에 대해서 한 두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줌요법은 인체를 통과하면서 체내의 세포가 지닌 생체정보를 수집한 채 배출된 오줌을 사용하여 자연치유능력을 유도해내는 치료방법이다.

BRS(생체정보 공명분석 및 생체정보 전사시스템 : Bio-Information Resonance Analyzing & Bio-Information Transcribing System)를 사용하여 인체의 생체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 타액 오줌 정액 머리카락 등을 측정하는 것도 바로 혈액 타액 오줌 정액 머리카락에도 필요한 생체정보가 각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면 '오줌은 배설물이므로 일종의 쓰레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다. 오줌은 한마디로 더러운 배설물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줌요법은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치료방법이다. 옛날에는 노인들 중에 자신의 손자의 오줌을 받아서 매일 아침 상복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를 쉽게 해석하자면, 아이들의 건강한 생체정보가 각인된 소변을 노인들이 복용함으로써 건강한 생체정보를 흡수하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줌요법은 다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모든 질병을 오줌을 이용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어린 아이의 오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의 오줌이 가장 좋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줌은 인체를 완전히 순환하고서 배출되는 물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모든 생체정보를 흡수한 상태이다. 그런데 인체에는 면역기능이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인체에서 질병이 발생한 환부를 지난 물은 다시 인체의 다른 장구나 조직을 거치면서 그 신호를 인체에 가하므로, 인체는 이러한 생체신호를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생체정보(면역기능)를 강력하게 발한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는 물은 그러한 생체신호를 흡수한 상태에서 일정한 순환을 마치면 마침내 오줌의 형태로 체내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오줌에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생체정보가 최적의 조건으로 각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오줌을 마시면 가장 좋은 생체정보를 다시 흡수하게 된다. 이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돋워주는 생체정보를 충분히 흡수하였으므로 인체는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오줌요법을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부록

오줌요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

세계적으로 오줌요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나의 건강법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체험을 통한 연구를 거듭하고, 그것을 언론이 꾸준히 보도한 일은 없었다.

다음은 국내외의 각종 언론보도 내용이다.

89. 10 월간 불광 : 오줌요법 소개(김정희)

90. 4 건강다이제스트 : 난치병을 치료하는 오줌요법(김정희)

90. 5 건강다이제스트 : 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오줌요법(김정희)

90. 7 건강다이제스트 : 오줌의 강정 및 항암작용(김정희)

90. 7 주부생활 : 자신의 소변으로 건강을 되찾는다(김정희)

90. 11 쿼 : 오줌을 마시면 암도 낫는다(김정희)

90. 12 한방과 건강 : 오줌요법

91. 7 장생 : 기적을 일으키는 오줌요법(김정희)

91. 8 장생 : 오줌요법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김정희)

91. 9 장생 : 과연 오줌은 생명의 물인가(김정희)

91. 3.18 한국일보 민간요법 : 오줌마시기 - 번진다(송영주 기자)

91. 4.7 일요신문 : 오줌요법, 효과 크다 논란 낱설이다

91. 4 여성백과(KBS) : 만병통치 민간요법의 특효약(?) 오줌, 하루에 한잔씩 오줌을 마신다

91. 4 대한생명 : 맥주를 마시듯 오줌을 벌컥(김정희)

91. 5.8 동아일보 : 오줌 마시기 신드롬(서울의대 김진규 교수, 임상병리학)

91. 5.6 스포츠조선 : 오줌은 단순한 배설물 아닙니다(이종현 기자)

91. 7.13 조선일보 : 소변 마시는 최소 백만명

91. 8 건강다이제스트 : 고질적 만성질환을 오줌으로 치료한다(편집자)

91. 5 여성동아 : 자신의 소변 마시는 오줌요법, 과연 효과 있나(홍태숙, 의사신문 편집국장)

91. 1.15 조선일보 : 생존 경북호 선원 7명, 먹을 음식 없어 장화에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 견뎌냈습니다

91. 3. 25 의학신문 : 오줌이 난치병 치료효과 있는가?

91. 3.21 후생신보 : 오줌치료법, 일본서 인기

91. 11 주부생활 : 자신의 소변을 마셔(김정희)

92. 9. 21 주간 세이브 : 기적의 건강요법 오줌요법, 오줌 한잔으로 성인병 고친다

92. 3 우먼센스 : 오줌요법을 실천하여 기적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92. 10 장생 : 생명의 물이라 불리우는 오줌으로 성인병에 도전하는 오줌요법(이숙영 기자)

93. 3 행복이 가득한 집 :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오줌요법, 고혈압, 당뇨병, 에이즈까지 효험봤다는데(자유기고가 정윤정 기자)

93. 10 21 동아일보 : 오줌요법, 기적의 건강법인가

93. 8 한국약국신문 : 오줌요법 국내진출 확장

93. 8.18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 91시간만에 살아 나왔다, 한보탄광 광원1명, 갱목 - 소변으로 연명

93. 10.21 일간 스포츠 : 오줌요법, 기적의 건강법인가

93. 10.18 한국약국신문 : MCL연구소 오줌요법 세미나 - “자연치유력과 현대의학 접점” 주제로

93. 10.25 중앙경제신문 : 의학건강, 자신의 오줌 하루 한잔씩, 오줌요법효과에 관심

95. 4.23 일요신문 : 오줌, 편견 버리면 거의 모든 질병에 효과

95. 3.8 서울신문 : 소변은 만병통치인가

95. 3.9 부산매일신문 : 자기소변요법 “만병통치”

95. 7.2 동아일보 : 백화점 붐과 생환자 윤성희(62세) 52시간 생환수기 - 소변을 받아 마셨다

96. 2.25 동아일보 : 오줌으로 병 고칠 수 있다

96. 2.25 한국일보 : 자기오줌복용으로 질병치료

96. 2.25 국민일보 : 사람소변에 암치료 특효물질 - 안티네오플라스톤 단백질 함유

96. 3.26 국민일보 : 자기오줌요법 선풍, 만병통치 - 마시기, 양치질, 수백만명이 애용, 의사등 600여명이 인도의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에서 임상치료발표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부산매일신보 등등 여러신문에서 자가소변요법을 소개하면서 만병통치, 인체조직재생, 암치료에 특효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96. 5.15 KBS 2TV 아침방송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김익환 선생님(고교 교사), 고혈압으로 4번이나 입원, 유언까지 남길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오줌요법과 자연식으로 지금은 혈압이 정상이다. 하나님 주신 생명수이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1잔 마시고 나머지로 머리 감고 세수한다.

96. 6.10 조선일보 : 암, 소변으로 쉽게 진단, 중국 시액개발 - 그 자리서 진단

96. 12.23 MBC 10시 임성훈입니다 : 김정희 회장을 비롯하여 MCL회원들이 출연하여 오줌 마시기, 세수, 양치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97. 5.30 중앙일보 : 주민 소변받아 약 만든다, 녹십자 혈전증치료제 현지공장 추진

97. 5.31 중앙일보 분수대 : 북한 사람의 소변

97. 6.12 중앙일보 : 평양에 소변활용공장, 녹십자, 과 합작 합의

98. 4.1 조선일보 : 임신부 오줌에서 에이즈, 암치료물질 발견, 미국 매릴랜드 대학 교수

98. 10 SBS 세상에 이런 일이 : 26살때부터 현재 33세까지 오줌먹는 사나이 소개(서울 종로구 동숭동 정용관)

98. 11.27 KBS2TV : 금요 미스터리, 오줌요법 집중 소개(한국MCL연구회 출연)

98. 12.25 동아일보 : 98.12. 25 오줌요법 본격 연구를

99. 4.19 EBS 환경과 오줌의 이용

99. 4.20 SBS 밀레니엄 특급 : 마리린몬로의 맥주목욕, 양귀비의 오줌요법 목욕 이야기

99. 5.30 건강신문 제374호 : 제2차 세계오줌요법학술대회 화보로 소개

99. 6월간 건강가이드(건강신문 자매지) : 오줌요법 화보로 소개

99. 6.23 한국경제 : 쥐 오줌에서 1g에 1억원하는 값비싼 의약품(백혈병 치료물질)생산 - 카톨릭 의과대 교수팀, 소, 돼지의 오줌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99. 7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제256호 : 오줌요법 소개 - 자기 소변 마셔 암·당뇨 치료한다 (한국MCL 연구회장 김정희)

99. 8.19 SBS 라디오 방송(아침5~6시) : 유명미 아나운서, 강국희 교수와 오줌요법 대담

99. 9.15 세계평화교수협의회 廣 제209호 : 오줌요법연구동향(강국희)

99. 10.10 <http://enviroweb.org/coe/snuffit2/lifewater.html> : 오줌요법하는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사진 소개

99. 10.18 MBC 화제집중 : 강국희 교수, MCL회원 출연

2000. 1 KBS 건강 365(월간지1, 2월호) : 오줌요법 소개

2000. 1.30 메디컬쇼는 놀라워 : 김정희 회장과 MCL회원 출연 오줌요법 소개

2000. 3.24 건강조선 : 오줌요법 특집 소개(강국희 교수)

2000. 4.3 시니어저널 : 오줌을 마시자(김정희 씀).4. 10, 17, 23일 연재

2000. 4 한국대체의학회지 제3권 제1호 : 오줌요법의 과학성(강국희)

2000. 4 복음치유선교회 주최 특별교육에 오줌요법 강의(김정희)

2000. 5.13~14 제6회 요단식 모임(부산)
(일본 MCL 고미야마 가요코 부회장 참석)

2000. 5.24 수산경로대학에서 오줌요법 강의(김정희)

2000. 5 '오줌을 마시자'출간(김정희, 강국희 공저)

2000. 8.12 복송된 신광수(미전향 장기수)송별 모임

2000. 9.5 흥릉교회 노인대학에서 오줌요법 강의 모임

2000. 9.19 MCL주최 10년 이상 오줌요법 체험자 모임

2001. 5.12~13 제76회 MCL모임 및 제7회 요단식 모임(경북 왜관)

(일본 MCL고미야마 가요코 부회장 참석)

2001. 6.1 '오줌요법, 암·당뇨·비만을 고친 사람들' 약사 김용태 지음, 건강신문사 발간

2001. 6.5 AFP 연합뉴스 '중국인 300만명 건강·장수 위해 자기 오줌 마셔' 보도

2001. 7.7 오줌건강(요료법) 공개 대강연회 개최 (부산일보 대강당 : KUTI 주최)

2001. 7.7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오줌건강운동본부 창립총회 개최

(부산일보사 대강당 : KUTI 주최)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회를 위한 건강신문 건간신서 31

2001년 6월 1일 초판 발행

2004년 8월 16일 초판 8쇄

2005년 4월 15일 초판 9쇄

2005년 11월 11일 초판 10쇄

저 자 김용태

발 행 인 윤승천

발 행 처 건강신문사

등록번호 제8-00181호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400-1

전 화 305-6077(대표)

팩 스 305-1436

값 12,000원

I S B N 89-88314-31-X